



9

198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9호

(루게 479)



◆◆◆◆◆◆◆◆◆◆

차 례

◆◆◆◆◆◆◆◆◆◆

| | |
|---------------------------------|----|
| 오, 나의 조국이여 | 4 |
| 김일성 그이는 인민의 위대한 태양 | 5 |
| 조선아, 네 이름 해처럼 별처럼 | 5 |
| 은하리의 보름달 | 6 |
| 영원히 수령님의 사랑으로 | 6 |
| 백두산에 올라 | 7 |
|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 | 8 |
| 창작에서의 강령적 지침 | 8 |
| 연사시초 | 12 |
| 뜨락 | 14 |
| 천만걸음을 오직 한길우에 외 1 편 | 15 |
| 연분홍 진달래 | 16 |
| 절정우에 | 16 |
| 그대만이, 오직 그대만이 | 17 |
| 환희 | 18 |
| 내 고향의 시내물 | 26 |
| 조국과 나 | 27 |
| 류다른 사냥 | 28 |
| 병사들의 어머니 | 39 |
| 고마운 우리 법 | 40 |
| 곤장덕의 이깔숲(외 1 편) | 41 |
| 참된 인간의 모습 | 42 |
| 인간의 도덕(외 1 편) | 43 |

| |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 뚝기념 | 44 |
|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 요강 | 44 |
| 위훈의 날개 | 45 |
| 오늘에 이어 래일에도 | 48 |
| 잘 있으라 나의 학교여 | 49 |
| 리정표 | 50 |
| 누리에 빛날 광복거리여(외 1 편) | 58 |
| 다시 찍은 사진앞에서 | 59 |
| 아들의 어깨 | 60 |
| 영원한 건설의 근위병으로 | 60 |
|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 | 61 |
| 고운 무지개 | 61 |
| 이 트랙에 있어도 | 62 |
| 내가 찾는 사람 | 63 |
| 비내리는 봄날에 | 72 |
| 당일군의 풍모에 대한 참신한 형상 | 73 |
| 나의 성장과 함께 | 75 |
| 울바자에 대한 시 | 75 |
| 시대의 숨결속에서 | 76 |
| 신천 | 79 |
| 인삼 | 80 |

오, 나의 조국이여

조성관

고아의 설움에 울면 수난의 그날에도

내가 서있어라

원망치 앓았노라, 내 이 땅에 태여났음을

-주체의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백두에 솟아 빛나는 장군별 우러르며

온 세상이 한결같이 칭송하는 그 이름을

전설같은 장군님의 이야기

내가 지녔어라

귀속말로 전하여 들으며...

-**김일성** 동지의 전사!

오, 피멍든 이 땅의 상처자국 쓰다듬어주시며

태양의 빛을 받아

의지가지없던 고아의 눈물 씻어주시며

빛을 뿌리는 별들처럼

오각별 빛나는 우리의 기발

위대하신 수령님 모시여

공화국기발 우리 손에 쥐여주신

위대한 우리 인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수령님!

영명하신 지도자동지 모시여

양양한 우리의 미래!

창조로 들끓는

로동의 열매가 여기에 있고

태여날곳을 이미로야 고를수 없는 일

자주로 떨치는

하지만 그 어데도 아닌 이 땅

인간의 존엄 여기에 있나니

바로 이 땅에 내 태여났음을 자랑하노라

온 세상 한결같이 우러르는곳에

오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김일성 그이는 인민의 위대한 태양

씨싸이 테쇼메

인류의 새봄 위대한 4월에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
주체의 태양 솟아올랐네
혁명적 가정의 찬란한 빛을 뿌리며
해방의 사명을 두어깨에 걸머지시고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붉은 기치 휘날리시며
굴종과 압박, 착취와 쇠사슬을
끊어버리었네

김일성 그이는 인민의 위대한 태양
인민의 락원 조선땅에 높이 일떠세워
주체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게 하네
인류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도록
혁명의 거세찬 힘으로
제국주의의 성새를 짓부시네

그이는 만고의 위대한 태양
단결의 중심, 승리의 기치
혁명과 건설의 영재
인민전쟁의 탁월한 조직자, 령도자
불요불굴의 반미반일투사

가사

그이의 령도따라 우리는 나아가네
평화롭고 화목한 자주의 세계를 향하여

오! 인민의 위대한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 위해 바치시는 그이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축원하노라

불멸의 창조적 사상인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세계는 전진하리라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영광을 드리노라, 인민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께

그이는 로동계급의 수령
참다운 우리모두의 벗
우리는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 담아
삼가 축원하노라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그이의 령도따라
우리는 나아가노라
(필자는 에티오피아사람임)

조선아, 네 이름 해처럼 별처럼

김휘조

만경대 봄빛 흘러 꽃핀 강산에
백두산 아름다운 노을 비겼네
조선아 조선아 내 조국의 이름아
네 이름 빛나네 해처럼 별처럼

자애론 수령님 손길을 따라
영명한 지도자 이끄시는 나라

조선아 조선아 내 조국의 이름아
네 이름 빛나네 해처럼 별처럼

은혜론 빛발로 강산은 밝고
인민의 행복은 가득 넘쳐라
조선아 조선아 내 조국의 이름아
네 이름 빛나네 해처럼 별처럼

은하리의 보름달

리룡현

머루 다래 향기에 젖어
달빛도 줄줄이
산은 산마다 주렁진 열매로
풍요한 옷자락을 펼쳐들었구나

달아, 시원히 옷는 보름달아
하많은 네 이야기
 시내물에 다 실렸느냐
아홉굽이 골안에 물소리도 끝없구나

소쩍새도 깊이 잠든
밤이 새도록
모든 산에서 황금을 파내라시며
무릎을 마주하시고 가르쳐주시던 그 밤
귀틀집 불빛과 마주 웃던 달아

너도 그날의 그 불빛을 안아
네 얼굴 그리도 환하지 않느냐
아홉굽이 시내물아
너도 그날의 그 말쑥 새겨안고
네 물소리 그리도 맑아지지 않았더냐

취할듯 풍기는 과일향기도
그날의 그 달빛을 머금고 무르익어

이리도 달디단 향기 넘치는게 아니냐
네 달빛이 비껴내린 모든 산
그 갈피갈피에 간직한 열매의 훈향이
골안 가득 하늘 가득 넘치누나

산골은 산덕을 봐야 한다고
못사는게 산타이 아니라 하신
아버이 그 사랑 산마다 꽃피우며
달아, 은하리 보름달아
그날의 불빛 안고 사는 마음에
너는 정답게 비껴내리누나

그날 그 달밤을 못잊어
대지에 뿌리내린 젊은이들
마주 옷는 얼굴에도 달빛은 곱구나
텔레비죤 마주하고 《황금산》을 걸어보는
온 나라 얼굴들도 너처럼 환하구나

아, 아버지 그 은정을 못잊어
수십년세월 하루같이
산간농민들의 마음에 등실 떠
한시도 내리지 않는 은하리 보름달아
너는 언제나 밝게 밝게만 웃는
이 나라 농민들의 환한 얼굴이 되었구나

영원히 수령님의 사랑으로

한정규

금시
방안 가득 향기 풍길듯
별나비도 날아들듯
진달래 목란꽃 송이송이 새겨진
시제품 꽃담요

봄빛처럼 파스해 그 이름 《봄빛》
눈속에서도 꽃피라 그 이름 《진달래》
일군들이 고른 좋은 이름
몇번이나 외워보시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기쁘시여, 더없이 기쁘시여
한장의 담요를 손에 드시고
아이들부터 먼저 주자시며

금시 아이들을 불러들이실듯
창가로 다가가시여라

그러자 창밖엔
함박눈 송이송이 꽃잎처럼 내리고
어데선가
눈내리는 날이면 명절처럼 좋아
떠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오, 눈송이 눈송이
차갑던 저 눈송이를
기쁨의 눈으로 바꿔주시며
수령님 맞으신 백두의 눈 열마였더냐
한장의 담요마저
마안산 아이들에게 덮어주시며

《봄빛》도 그 이름 좋고
 《진달래》도 그 이름 좋지만
 오늘의 이 봄빛,
 이 진달래는 어디서 움텄는가
 그 파스한 세상에 다시없을
 마안산 그날의 담요아래
 온 나라 아이들을 다 잠재우고싶으신
 그이의 마음이어

세월의 끝까지 영원토록
 수령님 그 사랑으로
 우리 인민을 감싸주시면
 찬바람도 모르리
 눈비도 모르리

-이 담요를 《마안산》이라 이름지읍시다

마안산, 마안산은 예서 어딘가
 그날의 눈보라를 다 막아주신
 못잊을 한장의 담보
 오늘 다시 수천수만이 되어
 아이들의 요람부터 덮어주거늘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고있어라
 더 뜨거이 더 뜨거이

백두산에 올라

김병두

오늘 오르면 언제 다시 오를가
 내 나이 륝십고개를 넘어
 아득히 구름우에 뻗은 가파로운 길로
 주먹 쥐고 기어오른 백두산정

류달리 감회깊어
 비바람에 씻긴 부석도 만져보고
 언제나 백두산을 잊지 말자고
 동무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노라

잠시도 가만히 서있지 말라
 내 옷자락 흔들어주며
 백두산정을 넘나드는 바람아
 눈시울 뜨거워지는 나의 생각 깨치지 말아다오

피눈물 삼키던 소년시절에도
 내 고향 나리꽃 피는 재당령마루에서
 모자를 벗어 흔들며 흔들며
 광복의 희망 안고 바라보던 백두산!

내 젊은 나이때부터
 그 몇번 오르고올랐던가
 오를 때마다
 인간의 높은 세계에로 나를 세워주는 백두산!
 세대를 이어 가닿을 혁명의 먼 기슭도
 가깝게 보여오는 혁명의 성산!

저기 장군봉을 보아도
 젊은 시절의 수령님 모습인듯
 거연히 서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 어려오고

천지의 푸른 물결 보아도
 백번 쓰러지면 백번 일어나 싸우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이라고 하신
 친애하는 그이 말씀 메아리로 울려와
 바람결은 내 백발을 흘날려도
 내 가슴속엔 청춘의 역센 나래 펼쳐져라

아, 백두의 피줄기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그이 모시여
 창창히 열린 조국의 미래를 여기서 보나니
 눈가엔 절로 행복의 눈물 어리고
 심장은 삶의 활력과 청춘의 열정으로 높뛰여라

백두산 백두산
 그때문에 그때문에
 너도 젊어있고
 내 마음 또한 늙지 않으려니

아니할 생각을 하였구나
 이 백두산정을 오르며
 내 나이 륝십고개를 넘었다고
 오늘 오르면 언제 다시 오를가고

내 한생
 친애하는 그이따라
 혁명의 꽃을 피워갈 이 마음
 인생의 황혼기에도 열정을 안겨주는
 백두산에 올라
 투쟁의 숨결을 호흡하고
 새롭게 청춘으로 태어나는 행복이어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 창작에서의 강령적 지침

리상복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따라 제3차 7개년계획의 첫째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환경속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발표 1돐을 맞이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혁명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있다.

문헌은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을 심오히 밝히고 그 원리를 발전풍부화시킴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 근본지침으로 삼아야 할 과학적이며 실천적 방도를 제시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이끄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이라고 하시면서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이다. 여기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사업만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이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며 완성해나가는 혁명적 당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에는 주체의 사상체계만이 존재하는것이며 혁명대오안에는 주체사상만이 차넘쳐 흐르고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되고있는 것은 바로 이 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을 가장 정확히, 곧바르게 가르쳐주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하는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철저히 기초하고있다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며 세계발전과 사람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힐데 대한 세계관의 근본사명을 철저히 실현한 영생불멸의 혁명학설로 되였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질뿐아니라 가장 완성된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명시하였다.

때문에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백전백승의 혁명적 기치로 되고있는것이다.

실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중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있다. 여기에 바로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라고 하신것은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는데서 거대한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문헌은 주체사상교양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이라는것을 명백히 알고 그 요구대로 사상교양사업을 할데 대하여 가르치기있다.

우선 문헌에서는 주체사상과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의 관계를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가 이룩하여놓은 사상리론업적을 옹호하고 구현하는 과정에 창시된 혁명사상이며 따라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원칙들을 다 계승하고있다.

그러면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더없이 높아진 오늘의 시대적조

건에 맞게 로동계급의 혁명론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사상리론적 재부를 력사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하며 사상교양에서 주체사상이 철두철미 관통되어야 하는것이다.

또한 문헌에서는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이 주체사상교양으로 되게 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있다.

중요한것은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이 다 주체사상교양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밀접히 결부시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공다운 태도를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는것이다.

당이 진행하는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주체사상교양으로 되게 한다는것은 모든 형태의 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함으로써 그 사상교양사업들이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맞게 진행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다른 형태의 교양사업이 다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 이 교양사업에 포괄되어 진행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사상교양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주체사상교양이 당의 유일사상교양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수 있다.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이 주체사상교양이라는것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주체사상교양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우리 당이 진행하는 계급교양사업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로 되고있는것만큼 우리 작가들은 이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과 근로자들 내부의 사상투쟁의 본질적 차이와 특히 그의 각이한 투쟁방법들을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갈등묘사에서 정확히 구현하는것이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가 적대분자들과의 계급투쟁과 다르다고 하여 이 투쟁을 미미하게 만들거나 약화시킴으로써 갈등을 모호하게 하고 주인공들의 성격을 예리화하지

않는 소극적 창작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현시기 우리 당이 중요시하고있는 사회주의에 국주의교양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있다.

현실은 이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릴 때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살며 싸우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체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기 위하여 애쓰는 근로자들의 전형적 성격 창조에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재부들을 튼튼히 고수하고 계승하도록 하고있다.

이리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혁명화과정, 혁명적 세계관의 확립과정, 투사의 혁명활동과정을 깊이있게 묘사하여야 한다.

중요한것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라렬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그러한 이야기를 낱게 한 주인공들의 풍부한 정신세계, 생활감정, 사상적 지향을 예술적으로 예리하게 그려내는것이다.

당정책교양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우리의 당적 문학예술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할 때라야만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문학예술이 오늘의 근로자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혁명적 진리와 방법을 가르쳐주자면 우리 당의 로선과 현행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정치사상적 및 름리도덕적 문제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현실주체의 작품을 더 많이 써내야 한다.

현실주체의 작품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그림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성있게 세워진 우

리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생동하게 구현되고있는 위대한 생활력을 직접적으로 밝힐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당정책의 관철에로 힘있게 고무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은 주체사상의 원리들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새로운 원리들을 풍부히 한 끝없이 귀중한 문헌이다.

문헌은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이 세계의 일반적 특징과 인간의 본질적 특성,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원리들을 포괄하고있는 완성된 과학적 세계관이라는것을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이 차지하고있는 지위와 의의가 밝혀지게 되었다.

우리는 사회주의혁명시기는 물론 과도기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환경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것만큼 그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만 혁명과 건설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 불굴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세계를 인식할뿐만아니라 변혁하는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며 인간의 면모를 공산주의적인것으로 개조하는 과정은 심각하고 극성으로 충만된 복잡한 과정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상적으로 심각하고 극적으로 심오한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내야만 혁명적작품의 사상예술적 심오성을 보장할수있다.

인간의식의 개조와 형성의 점차성과 복잡성은 하나의 법칙이다.

어 법칙적 요구를 무시한다면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으며 또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목적도 달성할수 없다.

사건의 우여곡절만 찾고 인간의 정신적 체험의 복잡성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다. 비록 사건은 작은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겪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굴곡과 풍부성을 볼줄 알아야 한다.

문학예술이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의 확립과정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생활과 투쟁에서 교과서로되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혁명투쟁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계급적 각성과 혁명적정열을 깊은 련관속에서 잘 보여주어야 한다.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과정에는 우선 계급적으로 각성하는 과정을 동반하기때문에 작품이 계급적 선을 날카롭게 세우고 등장인물들이 제기

되는 문제들과 생활현상의 사회계급적 본질을 똑똑하게, 깊이있게 보고 판단하도록 그려내야 한다.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의 형성발전과정을 잘 그리자면 생활을 다양하게 그리고 다방면적으로 그려야 한다.

문학작품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자면 생활을 단순하게 일면적으로 그릴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복잡한 세계관의 혁명적 발전과정을 여러모로 그리며 생활을 의의있게 보고 교훈적인것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에는 혁명의 주체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는것이 정식화되어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주체의 원리들이 심오하게 해명되어있다.

문헌에서는 특히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라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새롭게 밝힌 기초우에서 혁명적 수령관과 혁명적 인생관에 관한 새로운 원리들을 밝혀주고있다.

혁명적 수령관을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이다.

문학작품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구현한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수령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그리는 문제인것만큼 그것은 작품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심오하게 밝혀낼것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작품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잘 그리자면 수령의 위대성을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형상으로 잘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것을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주인공들의 체험세계와 결부하여 그리는것이다.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깊은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이야말로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체험세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수령에 대한 흥미의 감정이 더욱 강렬해지고 불타오르는것이며 수령만을 믿고 따르려는 혁명적 신념에 영원불변한것으로 되는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을 절감하는 주인공의 체험세계가 그의 생활로정과 사상정신적 및 심리적 상태와 결부되면서 절절하게 형상화되어야 주인공들이 지닌 수령관의 높이가 설득력을 가지고 잘 표현될수있다.

작품창작에서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주인공들의 체험세계는 그것이 혁명적 수령관 구현의 근본전제로 되며 성격장성과정과 밀접히 련관되어

있으므로 이 체험세계들 여러 측면에서 깊이 파고들어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작품창작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형상으로 옮겨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수령관의 구체적인 표현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주인공들에게서 표현되는 수령에 대한 흥미심을 잘 그리는것이다.

참다운 흥미심은 심장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을 잘 그리는것은 주인공들이 지닌 혁명적 수령관을 사상정신적 측면에서 옮겨 구현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실천행동을 통하여 표현되는 충실성의 바탕을 구체적으로 밝혀낼수 있게 한다.

흥미의 선을 설정하지 않은 작품들에서는 흥미심이 일관한 흐름을 이루지 않지만 여기에서도 그것을 일정한 계기에서 집중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자면 작품에서는 흥미심이 절절하고 뜨겁게 표현될수 있도록 계기를 바로 설정하여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의 구체적 표현과정을 잘 그리자면 흥미심과 함께 또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과정을 심도있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적 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가 현시기 창작실천에서와 우리의 주체문학건설에서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만큼 우리 창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수령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깊은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작되는 매 작품마다 혁명적수령관이 심원하게 형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그 사상예술적 수준이 높고 사람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주의 현실과 날을 따라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사상예술적 요구에 맞게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을 더욱 다양하게, 보다 풍부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독창적이며 심오한 해명을 준 역사적 문헌이다.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더욱 심화발전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높은 단계으로 치달아 오르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문학을 높은

경지로 이끌어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문학을 한계단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작품의 주제를 더욱 다양하게 개척하고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며 형상을 보다 창발적으로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자면 작가들이 정치적 식견을 높이고 현실 체험을 강화하며 개성적특성을 살리는것이 필요하다.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문헌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이라는것을 론증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자주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문헌은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주체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을 줌으로써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문헌은 특히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굳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더하여주고있다.

문헌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사상리론은 령도자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다.

주체사상교양사업이 사소한 편향도 없이 심화되고있는것은 사상교양사업을 틀어쥐고 진두에서 이끌어나가고있는 우리 당중앙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일찍부터 당사업, 특히 당사상사업발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당이 전개하는 모든 사상교양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문헌은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잘 창작하게 하는 강령적 지침으로서 우리 작가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연사시초

리병철

우리의 첫 동지

군모아래 반짝이는 고운 눈매며
바투 짜른 단발머리의 아름다움이여

너성의 몸으로 어떻게 혁명군이 되었을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
스스럼없이 물어보는 말을
너전사는 조용히 웃으며 받아주네

어려서 떠나온 고향은 회령
왜놈들의 날창앞에 쓰러진 어머니의 유언이
맺히어 풀길없는 마음속 그 아픔
어찌 다 말하랴만 그래도 말을 하네

우는 조가 젖동냥 다니던 일이며
어린 동생 산중에 묻던 일이며
헤아리는 슬픔이 끝인들 있으랴만
김정숙어머님은 조용조용 말을 잇네

남포등 불심지엔 재가 쌓여도
눈물나는 이야기에
같은 처지 노동자들 함께 우누나

-하늘에 벼락을 빌고있으라
총잡고 스스로 벼락이 되자
혁명만이 혁명만이 사는 길인데
믿고 따라야 할분은 오직 장군님뿐...

조국의 광복 위해 굳게 뭉치자고
그 말씀 뜨거운 너전사 따라
노동자들 한뜻으로 어깨 짝 껴안을 때
성벽처럼 미더운 단결의 한복판에
김일성장군님 높이 우러렀음이어!

시대의 기슭밖에 뿔뿔이 흩어져
갈길 모르던 품팔이군들
그 밤에야 처음으로 남은 나이 헤아려보며
무엇인가 세상에 값높은것 알게 되었네

아, 불같은 말로 《동지》라 불러
언제나 눈물나게 외롭던 사람들을
혼자 아닌 《우리》로 묶어세워준 너전사
그이는 분명 우리의 첫 동지라고,

풀빛 그 군복

임당수 아닌 서두수에
심청이 아닌 삼월이
왜놈들의 통수식 제물이 되어
열일곱살 꽃나이에 죽다니 웬말이나

이제 방금 수문이 열리면
삼월이를 삼켜버릴 시퍼런 물살 굽어보며
산천도 무심타고 저주하는 통곡소리가
하늘땅에 사무친들... 눈물만으로도야
불쌍한 그 목숨 어이 구원하랴

아, 조선아 나의 조국아
어디에 가야 다문 한치라도
눈물에 잠기지 않은 너의 땅이 있느냐

소문을 듣고 모여온 사람들모두

흰옷 입은 사람들모두... 그들자신에게도
딸이 있음을 생각하며 땅을 치는 거기로
가슴을 치는 거기로

하늘에서 금시 내리게라도 한듯이
땅에서 솟기라도 한듯이
문득 섬광처럼 나타난 혁명군 너전사
풀빛 군복 단정히 여민 허리띠에
자그마한 권총 빛나고있었음이어!

혼자서 한놈 또 한놈
왜놈들에게 무서운 죽음을 주고도
오히려 레사스레 단추랑 여미는
너전사의 그 풀빛 군복은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한줄기의 빛이였고

죽을 시간만 앉아서 기다리며
울지도 못하던 우리 삼월이

영문을 몰라 쳐다보다가 그만
불을 비벼대며 눈물로 적시는
너전사의 풀빛 그 군복은
우리 운명 지켜주는 살뜰한 정이었고 사랑이었고

그래서 연사땅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잊지를 못한다
새 세상의 밝은 빛을 푸른 희망속에 안겨준
혁명군 너전사의 풀빛 그 군복...

뜨거운 사랑으로

어쩌다가 한번씩 옷을 때면
보조개가 움쑅움쑅 패이는 소년아
너는 온 공사판에 제일 어린 노동자

네 교향 전라도가 어디라구
고 작은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돈을 벌러 왔단말이나

키보다 높은 그 자갈통
하루 몇번을 채워야 돈을 버느냐
고임돌 딛고 올라서서
자갈어랭이 쳐들어주며 쏟아주며
너전사가 묻는다.

-돈을 벌어 뭘 할래?

붉은살 내비치는 배등걸이 걸치고
터갈린 작은 손등으로
이마의 땀 씻으며 자갈을 추며
소년이 대답한다

-우리 어머니 잣은 기침병
약을 사가지구 가서 고쳐드릴래요...

...억이 막혀 울수도 없어
너전사는 품속에 간직했던 조개껍질
조개껍질속 기름고약올

열번이라 스무번 서른번이라
물갈기 솟구치는 두만강물동
너전사는 무슨 일로 걸어보실가

걸어보구 걸어보구 또 걸어보시네

사품치는 물살은 바위돌로 누르고
동안 뜬 디딤돌은 바루 옮겨놓으며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너전사는 가며 오며 걸어보시네

소년의 손등에 발라주며 생각한다
-고약으론 아물굴수 없는
피멍든 조국의 상처...

땀에 젖어 미여진 소년의 배등걸이
무릎위에 펼쳐놓고 너전사는
옷섬의 바늘 뽑아 꿰매주며 생각한다
-바늘로는 다 기울수 없는
혈벗은 조국의 람루...

이윽고 날도 저물어
캄캄한 어둠이 에워쌀 때
지쳐서 비칠대는 소년의 팔을 끼며
너전사는 가만히 자신의 허리춤에
숨겨찬 권총을 만져본다

그리고는 소년의 팔을 낀채
비탈도 진펄도 곧추 질러 걸어간다
이 밤에 또 하나
새로 무어질 조직의 동지들
모여서 기다릴 치성바위굴 거기로...

아, 어떻게 알았으랴... 그날의 소년과 그의
어머니
너전사께 이끌려 걸은 그 길을 거쳐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길줄이야...

받드는 마음

하늘의 별들도 하도 궁금해
저희끼리 소곤대며 물어보건만
동발의 꺾쇠는 힘주어 흔들어보고
걸채이는 돌뿌리는 하나하나 뒤집으며

아, 향기라 꽃향기 풍겨오도록
잠자는 꽃송이들 깨우고싶고
깃에 든 산새들도 모두 깨워서
청 고운 노래 우짖게 하고싶고

너전사는 간절한 맘속으로 속삭이네
 -여울몰아 너 오늘만은
 사향가 노래되어 조용히 흐르려마
 -물동우에 높낮은 돌부리들도
 모를 죽이고 걸채이지도 말고
 보석이 되어 보석이 되어 빛나주려마...

...

하늘의 별들이 그 어이 알았으랴
 장군님 이 물동을 밤에 건느셔
 연사땅에 오신다는 사령부통신
 너전사가 바로 오늘 받은줄이야...

뜨락

백일호

오산덕 초가집
 이 정갈한 뜨락에
 지금은 백화 만발하고
 온갖 새 날아들어도

그날엔
 이 작은 한칸방에
 가난이 들어차서
 어설픈 처마밑
 치달이 없는 밖으로
 부엌마저 밀려나간 집

이 집에서
 빼앗기고 뜯기기에
 단길새 없던 문턱 넘으신 어머니
 장군님 우러러 따르고
 그 길만을 가시려는 마음속에
 혈전만리 끝없는 광야를
 뜨락으로 펼치시었으니

어머니께서
 그 어린신 나이에
 세월의 눈비 다 맞으시며
 이 뜨락에 심으신것은
 정치없이 떠나간 겨레 찾아
 장군님의 전사로 세워주실
 그뜻

그 뜻 심고 가꾸시여
 바람 세찬 광야우에
 원쑤에게 남편 잃고 헤메이던
 그 《갑산집》녀인만을
 애국의 한길에 꽃꽂이 세워주셨던가
 전라도에서 온 《부엌데기》만을
 혁명투사로 빛내여주시였던가

정녕
 이 뜨락처럼
 험한 산밭 다 넘으시며
 밀림속에 숨어 살던
 마지막 초막까지 찾아
 혁명의 큰길가에 내세워주시었으니

어머니께서
 김정숙어머니께서
 이렇게 찾아내시여
 키워주신 전사들 그 얼마던가
 장군님의 전사로 혁명에 나선
 투사들 그 얼마던가

아, 그날의 대오에 이어서며
 어제도 찾아오고
 오늘도 찾아와
 언제나 열려있는 오산덕 초가집앞에
 세상은 넓어도
 한뜨락이구나

천만걸음을 오직 한길우에 외 1 편

리덕진

이 아침도

오산덕을 찾아오고 찾아오는
천만걸음을 이 끌어주시려
금시 저 백두산을 내리신 걸음인듯
옷자락엔 하얀 서리꽃

우려려

조용히 다가서면
어머님께선 환히 웃으시며
그토록 정답게 맞아주시건만
내 마음은 왜 이리도
자꾸 뜨거움에 젖어오는것인가

우리를 한품에 안아주시려
어머님 헤쳐오신 천만줄기
험난한 가시덤불길이 떠올라선가
영원히 그 품에 안겨 살아도
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님사랑
뵈올적마다 더더욱 사무쳐오는탓인가

우려려

하고싶은 마음속의 말
어머님께 아뢰이면
저 멀리 맑고 푸른
평양하늘을 바라보시며
천만마디 귀중한 가르치심을
오늘도 이 가슴에 새겨주시는
김정숙어머님

한걸음 옮겨서도

한마디 말씀을 하시여도
오직 장군님의 뜻으로 뛴썩신
그 맑고 깨끗한 숨결
이 가슴에 부어주시는듯

가슴은 자꾸 뜨거워오누나

다정한 누나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여
모진 눈서리를 다 막아주시며
나어린 아동단원들을
장군님의 전사로 키워주신 그 품

대원들에겐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동지
장군님을 보위하시는 길에서는
한몸 육탄이 되신 친위전사

해방의 그날엔

이 나라 인민들모두를
장군님의 사랑속에 안아주시려
그토록 그리시던
고향집 찾는 일도 뒤로 미루시더니

아, 그리워

어머님이 그리워
천만걸음들이
오산덕을 찾는 오늘엔
또다시 그 걸음들을 이 끌어주시려
아직도 백두의 초연서린 군복차림으로
고향의 언덕우에 서계시는 어머님

어머님 한생에 바라신 념원도

혈전만리길에서
어머님 찾으신 행복도
오로지 장군님만을 받들어모신
그 일편단심이셨기에

아, 어머님, 우리 어머님

서리꽃 반짝이는 저 옷자락엔
장군님을 뵈옵고 행복에 눈물 짓던
삼도만의 그 맑은 하늘이
상기도 비껴있는듯
장군님 모시고 조국땅을 밟으시던
그날의 그 기쁨이
삼지연의 진달래꽃향기로 어려있는듯

이 순간도

따뜻한 그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혁명가의 참된 삶을 깨우쳐주시고
한생을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위대한 장군님께 바치신
그 불타는 충성으로 이끌어주시는 어머님

오, 우리의 어머님

어제도 오늘도
천만사람을 맞으시고
천만사람 떠나보내시며
어머님자신께서 몸소 걸어오신
오직 그 한길우에 세워주시여라
백두의 서리꽃 하얗게 불린
그날의 그 군복을 영원히 갈아입지 않으시고...

연분홍 진달래

떨기떨기
진달래 피어나면
마음도 피고
강산도 피여 향기로 넘치고

그윽한 꽃향기 좋아
꽃을 안아 볼에 비비면
이 가슴에 사무치는
어머님 생각...

눈보라 일어 땅은 얼어터져도
장군님 들어서실 사령부의 천막가에
겨우내 봄진달래 피워올리시며
백두의 찬서리를 녹이시고
봄을 꽃피우신 그 충성이여

조국진군의 날
넘치는 조국의 향기
천만 송이송이로
마음속에 소중한 안아오신 꽃

광막한 백두밀영의 밤
《사향가》의 은은한 선들속에
대원들의 가슴가슴에
나라 찾을 굳은 맹세로 무너지던 꽃

아, 고향집뜨락에 기어이 들어서시리라던

어머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던가
사랑하는 조국산천에 돌아가시리라던
어머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지던가

연분홍 그 진달래
그윽한 그 꽃향기
장군님 모신 조국의 숨결로 느끼셨기에
험난한 싸움의 먼먼 길에
안고오신 그 진달래
그렇듯 오늘에도 붉게 피었으리

어찌 봄만이라
이 가슴엔 사시절 진달래 피여 웃나니
어머님의 그리운 모습으로
언제나 가득차 넘쳐나누나

오, 천년만년 세월은 흘러가도
그날에 피워안고오신 진달래꽃은
무궁한 봄을 안은 조선의 얼굴
영원한 봄빛을 안은 조선의 미소

어머님처럼
아버이수령님 우리리
한생을 충성의 꽃으로 피고피는
인민의 깨끗한 마음의 꽃
진달래, 진달래

절정우에

강기수

봉은 봉마다
기묘하고 아름다워
금강산엔
일만이천봉우리

오르면서 내리면서
감탄속에 다시 보고
황홀하여 샘을 세며
웃음속에 다시 쏘아
어김없는 세월의 년륜처럼
금강에 솟아있는 만이천봉우리

봉은 봉마다
전설의 유래와 자랑이 있어

만사람의 경탄속에 솟아있는
너 기묘한 금강의 봉우리여

너의 아름다움
어머님 손채양하시고 바라보시며
금강의 꽃길도 미루시고
장군님의 점심을 보장한 식사터
뜨겁게 우리 마음 끌며
쉬이 발걸음 못떼게 하나니

하늘끝에 솟아야만 봉이던가
만사람의 마음이 우러르는 여기
삶의 아름다운 봉이
예 있거니

아, 금강의 절정우에
유구한 수천년 역사에
오직 김정숙어머님께서만

또하나의 봉을 얹으셨구나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신
후세에 영원할 충성의 봉을

그대만이, 오직 그대만이

김철민

수수해도
내 어머니를 존경했고
늘 손이 젖어있어도
내 어머니의 그 손을 닦한적 없듯이
조국이며, 나에게는 그대가 제일이더라

힘겨운 싸움 치른 이 땅에
성한것이란 마음밖에 없을 때
아버지가 입고 온 병사의투를
밤새워 줄이는 어머니를 보며
내 처음으로 그 마음을 헤아렸거니

주는것이 많아서
때없이 찾는 어머니가 아니더라
평화롭고 복된 나날에만 알게 되는것이
조국이며, 그대가 아니더라

오, 유흥의 여가에
한가로운 마음속에 깃들지 않았더라
나는 저 분계선 하늘밑
언땅에 배를 붙이고
그대를 지키며 생각하지 않았던가

남들이 오랜 사원과 첩탐을 자랑하며
조국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채더미를 디디고 무쇠기둥을 세우며
천리마로 그 말을 대신했고
전투에 전투를 이어오며
그대의 위대함에 가슴부풀지 않았던가

남이 못가본 길을 걸으며
남이 못느껴본 궁지로 행복하던 마음이며
허리띠를 조이고 신들메를 조이며 달려온

그것으로 하여 추억도 뜨겁고
할말도 많은 우리 인민속에 나도 있는 영광이며

그래서 저 하늘가에
흰 연기 뿜어올리는 공장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우리 거리 서로 의중계 잇대고 사는 추녀들아래
평화로이 깃드는 안식이 목숨처럼 중하노라

속깊은 어머니의 그 마음
시련을 이겨보고 고난을 겪어보며 알게 되듯이
조국이며, 그대와 운명을 함께 하며
내 진정 알게 되었노라

그대만이, 오직 그대만이
이 나라 아들딸들을 품에 안고
불타는 강도 험한 진펄도 건너
광활한 미래에로 나아갈수 있음을
사나이 더운 가슴에 새긴
나는 그대의 아들!

아,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어머니를 부르며 울던 어린시절처럼
돌뿌리에 걸쳐여 넘어지면서도
어머니를 먼저 찾던 그 마음처럼
그대를 세상으로 알고 나는 사노라

행복하다고 그대를 따르고
힘겨웁다고 그대를 탓하랴
자식마다 제 어머니 자랑이 있대도
나에게는 내 어머니가 제일이듯이
조국이며, 위대한 나의 조국이며
그대만을 믿고 내 심장 고동치노라!

환희

김창욱

1

이 강산의 모든것, 비록 그것이 알려지지 않던 한떨기의 꽃과 한포기의 풀이라 해두 이전과는 달리 생신한 활력을 가지고 자라나던 시절이었다.

해방된 이듬해의 초여름, 땅의 주인이 된 농부들의 청초는 흥타령에 춤을 추듯이 백학이 너울거리는 드넓은 논밭에서는 푸른 벼포기들이 파도처럼 굽니고 공장굴뚝에서는 노동자들의 거세찬 숨결인양 뭉개연기가 꾸역꾸역 솟아올랐다. 이제 녀자들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 희소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고있는데 가두고성기에서 또 새로운 보도가 울려 퍼졌다.

《…어제 하오, 우리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사업에 분망한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사무소를 현지도하시였습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교육의 문호에서 봉쇄당하고 배움에 굶주렸던 우리 청년들에게 최고의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거리를 오가던 젊은이들은 물론,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과 보짐을 인 아낙네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전주대에 매여달린 고성기를 놀라운 눈길로 황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있었다. 그들의 머리우에서 보슬비가 내리었다. 하지만 새라새로운 소식들로 이어지는 하루하루를 자기나름의 꿈과 희망으로 보내고있는 그들은 소리없이 내리는 보슬비쯤은 거의나 느끼는것 같지 않았다.

김정숙녀사를 모시고 경상동길거리에 나선 강형민이도 처음엔 곳은 날씨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정확할것이다. 지금 고성기에서 울려오고있듯이 해방된 조국은 이제 자기의 력사에 종합대학의 창립을 자랑차게 기록하게 된다. 얼마나 위대한 사변인가!

대학창립준비위원회 상무일군으로 활동하고있는 강형민은 이 강산에 새로 밝아올 현대문명의 그 찬연한 려명을 고대하면서 환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시내의 학자들과 유지들을 만나면서 땀흘리다니 이 여름의 장마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르고있었다. 물론 모든일이 희망하는대로 순조롭게 되는것은 아니었다. 해방전에 민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고심참담한 생활을 하면서 절감한바와 같이 오랜 세월 현대문명에서 버림받은 이 땅에는 대학의 교수진영과 학생원천이 부족하고 변변한 참고서적조차 막

연한 상태에 있었다. 해방은 되었지만 일제의 칼에 맞은 민족사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5월은 이미 지나가고 6월도 마지막 고개에 올라섰다. 50을 넘어선 로학자답게 형민은 이마가 반나마 벗어지고 보기좋은정도로 다부룩하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노상 평온한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는 조급해지는 생각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잦아졌다. 잠을 설치고 난 아침에는 입에 밥을 떠넣어도 모래알을 씹는것처럼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육체적 피곤이나 마음의 고충이 한 개인의 일때문이라면 무슨 대수이겠는가. 문제는 해방된 조국에서 교육을 위하여 무엇인가 이바지하려고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않는것이였다. 그는 며칠전에 학자들의 살림살이형편을 알아보시려고 자기집에도 들려주신 김정숙녀사께 자기의 이같은 걱정을 숨김없이 내놓았다.

《…학생원천도 그렇고 불만한 서적조차 없으니 정말 맨주먹으로 빈 터전에 서있는것 같은 막연스러운 심정입니다.》

아침안개가 걷히여가는 정원을 걸으시면서 형민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시던 녀사께서는 그 진한 안개발을 조용히 저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아무것도 없다고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서 나라의 민주교육을 발전시켜나가려는 인민들과 청년들의 불같은 지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민들과 청년들의 지향…)

형민은 녀사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안으면서도 수천개의 성들을 아귀맞추어 쌓듯이 해야 하는 과학의 아득한 요새가 단순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김일성** 장군님께서 사무소에 몸소 나오시여 여러가지의 가르치심을 주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김정숙녀사께서 또 형민이를 찾으시는것이였다. 녀사께서는 댁앞에서 형민이를 만나시자 무척 반가와하시였다.

《선생님, 우리 오늘은 시내의 책방들을 돌아봅시다.》

어제 전국의 각지에 널려있는 서적의 실태를 알아보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책방들을 돌아보시려는것이였다. 형민은 웅당 해야 할 일을 미루고있는 자신을 질책하면서 녀사를 따라서지 않을수 없었다. 젓빛안개와 같은 보슬비는

여전히 한모양으로 내리었다. 중절모를 눌러쓴 형민은 우산도 없이 한발 앞서 걸어가는 녀사를 바라보며 긴숨을 내그었다. 떠날 때 비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

그가 이렇게 원심을 쓰고있는데 녀사께서 걸음을 늦추시면서 물으시었다.

《입학생들이 언제부터 모여오게 됩니까?》

《다음달 초순으로 정해졌지만 벌써부터 찾아와 기미를 알아보는 축들도 있습지요.》

《배우고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어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개중에는 한갓 욕망만을 가지고오는 청년들도 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녀사께서는 문득 안색을 달리하시더니 어떤 단층건물을 웃으시는 눈길로 가리키시었다. 추녀가 낮은 단층집의 회벽에 《홍국책방》이라는 간판이 걸려있었다. 밖에서 잘 들여다보이게 유리창을 많이 해단 책방앞에 이르자 김정숙녀사께서 반쯤 열려있는 미닫이형의 출입문으로 먼저 들어서시었다. 책방안은 그닥 넓지 않았다. 널쪽으로 만든 매대를 경계로 안쪽의 벽에는 책장모양의 당반이 서너층으로 매여져있었으나 책은 두 당반에도 차지 않게 꽂혀있었다. 하지만 형민의 눈길을 끈것은 책방의 어설픈 모양보다 그안에 마주서있는 세사람의 상서롭지 못한 표정이었다. 매대의 밖에는 어제 형민이를 찾아왔던 흰로동복차림의 청년이 서있었다. 그리고 안쪽에는 까만 세라복의 예쁘장한 처녀가 책을 들고있었는데 방금 안방으로 통한 문을 제끼고 나온듯한 장년의 사나이가 안경속의 눈알을 굴리면서 처녀에게 된소리를 퍼붓는것이였다.

《아니 1원짜리 책을 50전에 팔아? 50전이면 다른 책 하나의 값이야. 영?》

처녀는 청년이 매대우에 내놓은듯한 10전짜리 돈들을 불깃한 눈길로 가리키면서 자신없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모자라는 돈은 이틀안으로 가져오겠다 하기에...》

그 말에 역대우같은 청년이 한발 다가서면서 간청하였다.

《정말입니다. 내 생소한 평양에 올라와 하루벌이로 지내다나니 단번에 목돈을 칠수 없어 그렇습니다. 예?》

형민은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눈이 부리부리하고 몸집이 실한 청년은 성질도 만만치 않을 상실했으나 자신을 극력 억제하는것 같았다. 주인도 그것을 느꼈는지 억지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 엇그제까지는 자네가 내 말을 구슬려가면서 우리 책을 공짜로 얻어읽는것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했네. 지나가던 행인이나 다름없는 자네가

글공부를 하는것이 기록해서말이네. 하지만 나도 저책들을 하늘에서 공짜로 얻어오는게 아니야. 책을 팔아야 우리도 먹고 살아갈게 아닌가, 영?》

주인은 새로 들어선 형민이도 책을 사러 온 손님으로 여겼던지 넉넉하지 못한 자기의 벌이를 알아달라는듯 마지막 말은 한탄비속이 옮기는것이였다. 그의 말은 진실일수도 있었다. 청년은 얼굴을 떨구었다. 다음에는 매대의 돈을 찾아칠 생각도하지 않고 맥없이 돌아섰다. 어깨가 처진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던 처녀가 아버지의 소매에 매여달리었다.

《아버지! ...》

책방주인은 딸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같이 무의미한 기침을 할뿐이였다. 책방안에는 불시에 어수선하고 서먹서먹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여직껏 그들의 모습, 한편의 책을 두고 허전하게 돌아서는 청년과 안타깝게 입술을 씹는 처녀를 생각이 깊어지신 눈길로 바라보시던 김정숙녀사께서는 청년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 손에 들고 계시던 자그마한 가방을 급히 여시는것이였다.

《아니 돈은 저에게...》

형민이가 녀사의 뜻을 느끼고 서둘러 웃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지만 그분께서는 벌써 매대우에 책값을 내놓으시었다.

《우리가 보래줄테니 값을 치르세요.》

《예 ? ...》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책방주인은 안경을 추슬러올리면서 녀사와 형민이를 번갈아볼뿐이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주인과의 일은 뒤에 보시려는듯 우선 형민이에게 말씀하시었다.

《그저 책에 취미를 가진 동무같지 않습니다. 좀 알아봐야겠어요.》

녀사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책을 들고 인차 밖으로 나가시었다. 그러나 형민은 어제의 일때문에 난감한 기분으로 서성거리기만 하였다. 마침 정신을 차린 책방주인이 말을 걸었다.

《미안하지만 이자 그분이 누구시오?》

《김정숙녀사이십니다.》

그의 대답에 주인과 딸은 동시에 눈이 커졌다.

《아니 그럼 산에서 왜놈들을 삼대치듯하셨다는 이름나신 그 녀장수란말이시오?! 》

《예...》

형민이의 대답에 더욱 놀란 집주인은 큰 실책을 한 사람같이 주먹으로 가슴을 탕 하고 울리면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버렸다.

《사실은 대학을 세우는데 책이 필요해서 들렀었는데...》

형민은 혼자 나가신 녀사의 일이 넘려되어 그만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날씨때문인지 행길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형민이가 길 왼쪽을 바라보니 청년을 따라잡으신 김정숙녀사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인가 하시면서 책부터 안겨주었다. 형민이가 그리로 다가갔을 때 녀사께서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는 청년을 잡화점의 추녀밀로 이끌었다. 아까보다 더 찾아지는 비를 그으시려고 하시는것 같았다.

《동무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요?》

녀사의 다정한 물으심이였다.

《...저 박춘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춘일동무는 나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방금 책방안에 같이 있지 않았나요.》

춘일은 그제야 생각이 나는듯 저으기 미안해하는것이였다.

《용서하십시오. 혼자 생각만 하다가니 그만... 아, 선생님도...》

춘일은 곁에 온 형민이도 알아보고 거듭 인사를 하였다. 형민은 어색하게 그의 인사를 받았다. 두사람의 관계를 알지 못하시는 녀사께서 다시 물으시였다.

《동무는 어디서 왔나요?》

《검이포에서요.》

《고향이 거기예요?》

《내게는 뭐 고향이라는데 없습니다.》

춘일은 될수록 형민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대답하였다.

《아니 고향이 없다니요?》

녀사의 의아해하시는 물음에 춘일은 보슬비가 내리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였다. 가장 외로운 때에 외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의지하고싶어지는것은 인간의 어찌할수 없는 감정이다. 춘일은 낮도 모르는 자기에게 책을 사준 고마운 녀인이라는 생각때문인지 한숨을 지으면서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게는 정말 이렇다 할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삼신에서 검이포제철소까지 쪽배로 석탄나르기를 했었는데 내가 열세살 나던 해에 홍수를 만나 대동강에 묻혔습니다. 나 혼자만이 사람들의 손에 건져졌지요. 나는 그때부터 철공장에서 고역을 치르었습니다. 인젠 다 옛말로 되였지요...》

춘일이의 말에 녀사의 안색이 차츰 흐려지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조선사람치고 누구나 그러했지만 대동강의 거치른 물결우에서 쪽배와 같이 파산된 그들의 운명은 세상에 흔치 않은 비극이였다. 하건만 그 비극의 주인공은 해방을 맞이하여 역스럽던 과거가 영영 물러갔때문인지 듣는 사람보다 오히려 현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해방이 되었으니 저도 이제는 사람구실을 해볼가 합니다. 우리 공장에 오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공장의 주인이 되려면 로동자들도 많이 배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선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떠났었는데...》

형민은 다음 말을 듣기 거북하여 헛기침을 하면서 잡화점의 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의 등뒤로 녀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디에 거처하고있나요?》

《학비도 장만하고 책도 사려고 삼신탄광의 철길공사장에서 하루벌이를 하고있는데... 참 아주 머님은 누구십니까?》

녀사께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시였다.

《나는 김정숙이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아, 이러지 마세요.》

만약 녀사께서 승용차를 타고오시였거나 화려한 비단옷을 입으시였다면 일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추녀밀에서 만난, 보통녀인들같이 수수한 옥양목저고리에 화장기조차 없으신 녀사의 소박한 모습을 두고 춘일은 그것이 바로 세인이 경모하여마지 않는 항일의 녀성 영웅이시라는것을 전혀 상상도 못하는것이였다.

2

김정숙녀사께서는 춘일리와 헤어지신 다음 생각에 잠기시여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의 곁을 따르는 형민이도 마치 얼굴에 뿌려지는 보슬비를 막으려는 사람같이 중절모를 꼭 눌러쓰고 말없이 걸었다. 중절모의 채양에 가리워진때문인지 전에 없이 우울해보이는 표정이였다. 그는 춘일리를 만나던 순간에도 될수록 눈길을 피하려고 하였다. 녀사께서는 우선 그런 형민이에게 생각이 가시였다.

원래 형민이의 아버지는 교육의 보급과 국권회복을 목표로 삼은 《대한자강회》의 주요인물로 활약을 하다가 일제의 비밀경찰에 암살당하였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형민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민족교육을 부흥시키리라는 칼날같은 결심을 품고 얼마 되지 않는 논밭을 팔아 대학의 사법과를 나왔고 민족교육의 자유를 주장한 《죄》로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형민은 출옥후에도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그가 평북도의 어느 고을에 내려가서 사립학교를 운영할 때 그 기상이 얼마나 도그했던지 그곳의 면장도 형민이의 집을 찾아가야 할 일이 생기면 늘 짊고다니던 개화장을 길실에 숨겨두고 대문안으로 들어서기전에 모자부터 벗어쥐였다고 한다. 그의 머리는 명석하였고 교육자로서의 경험도 풍부하였다. 형민은 후배들에게 교훈적인 조언을 주는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여기였다. 그러던 그가 최근에 오면서 차츰 우울해지고 때로는 초조해하는 빛을 감추지 못하는것이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그가 먼곳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기회에 물으시였다.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많으신것 같군요.》

형민은 생각에 잠긴채 수궁하였다.

《예, 한 스승의 말을 회상하던중입니다. 그는 사람이란 오래동안 먼길을 방황한후에야 비로소 가까운 길을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녀사께서는 때아니게 심중해진 그를 보시면서 가벼운 웃음을 지으시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아닙니다. 사실 나는 스승의 그 이야기를 과학탐구와 관련되는 조언으로만 기억했지요. 헌데 지내면서 보니 그 말은 보통생활에서도 교훈으로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녀사께서는 그의 심정을 깊이 알고싶으신 때라 가만히 듣고만 계시었다.

《나는 아까 단순한 욕망만을 가지고 대학을 찾아오는 분별없는 청년들도 있다고 했는데 춘일도 바로 그런 젊은이들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방황한다고 해야 할지...》

녀사께서는 금시 의외로운 표정이 되시었다.

《그럼 선생님은 벌써 그 동무를 만나셨단말입니까?》

《어제 찾아왔길래 예비심사라고 할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녀사께서는 내막을 물으시는 눈길로 형민이를 바라보시었다.

《해방후 공장의 기능공양성소를 다니면서 중학교 저학년의 자습교재를 몇권 얻어보았는데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2차방정식의 풀이도 못하니깐요. 상식이나 좀 있을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세계명인에 대하여 물었더니 역시 썩스피어가 누구인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사람인지 캄캄이었지요. 한번 더 동정심을 가지고 현재 알고있는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산소용접법은 좀 안다나오. 허허, 참...》

형민은 제사 허무한듯 속이 빈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김정숙녀사의 심정은 전혀 다르시었다.

《그 동무는 노동현장에서 배우지 못한 청년이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가까운 길을 옆에 두고 먼길을 방황하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겁니다.》

《그건 너무 이른 속단이 아닐가요?》

《속단이 아닙니다. 이젠 내가 오래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입니다.》

그의 말마디속에는 과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울리고있었다.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들어보십시오. 그 청년의 나이가 27살이라는 데 뉴턴 아이작크는 벌써 23살에 대학의 유망한 교수로 되었고 다윈 찰스는 22살에 대학을 나와 세계 탐험의 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머리를 저으시었다.

《그건 너무 기계적인 대비가 아닐가요. 그 사람들에겐은 일찍부터 배울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대신 배움에 대한 불같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녀사께서는 조용히 한숨을 지으시었다.

《그럼 춘일이같은 청년들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답답하기만 합니다. 참고가 될가 하여 말하지만 중등교육이 개화한 나라들의 대학, 이를테면 그리스의 아테네종합대학이라든가 프랑스의 니스종합대학 그리고 단마르크의 피벤하븐종합대학들 모두가 수십년의 교육력사를 거쳐 창설되었습니다. 저-기서 집을 짓고있듯이 대학도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쌓는것과 같은 교육의 순차성이라는것이 있으니까요.》

형민이 가리키는곳에서는 무슨 건물을 짓는지 등에 벽돌을 짚어진 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사선으로 맨 발판을 따라 2층의 층막으로 오르내리고있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형민이에게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으시었다. 하지만 교육사업에서는 자기류의 신조가 있다고 자광하는 그가 쉬이 납득할것 같지도 않았고 책방도 가까와져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었다.

《책방주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대학창립자금을 주고 필요한 책들을 넘겨받도록 합시다.》

그런데 막상 책방에 들어서보니 주인은 없었다. 예쁘장한 처녀가 공손히 머리를 숙이면서 갑자기 책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는 그리로 갔다는것이였다. 녀사께서는 시간의 여유가 없으시었다. 어제 평양으로 올라온 희생된 전우의 유가족을 만나서야 할 시간이 지났던것이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형민에게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하시었다.

《어찌겠습니까. 수고스러운대로 선생님이 한번 더 찾아와주십시오.》

《와야지요. 그런데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나는 대학창립에서 나서는 곤난을 숨김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춘일이같은 청년들을 돌려보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바를 말했을뿐이니까요.》

형민은 녀사의 얼굴에 비끼신 그늘을 느꼈던지 이렇게 미안한 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형민이와 헤어져 혼자 걸으시는 녀사의 마음은 단순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시었다. 그 분께서는 중병에 시달리면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약 한숟가락 떠넣어주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가슴저미는 아픔을 체험하고계시었다. 불원간 그이의 눈앞에는 어제 평양역에서 만났던 희생된 전우의 유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었다. 그때 녀사의 반가움은 헤아릴수없이 크시었다. 베적삼에 짙신을 신은 전우의 안해나

토스레웃을 걸친 그 아이들의 허술한 차림새가 문제가 아니었다. 사연도 많은 회령땅에서 생활의 모진 가시덤불길을 헤쳐오느라고 귀밑에 때 이른 서리가 내렸으나 삶의 억척같은 의지가 빛나는 녀인의 눈이며 아버지의 모습을 방불하게 되새겨주는 그 아들의 뜸뜩한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것이 눈물겨웁도록 기쁘시었다. 전우의 아들은 녀사의 손목을 뜨겁게 잡으며 울먹거렸다.

《나라가 광복되면 함께 대학공부를 하자고 하던 기송이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혼자 나오셨습니까. 네? 기송이를...》

녀사께서는 대답할 말씀이 없으시었다. 아니 할말은 산갈았지만 목이 꼭 잠기시여 대답이 나가지 않으시었다. 정말 기송이는 유격근거지의 해빛밝은 언덕에서 푸르른 하늘에 연을 띄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해는 왜 동쪽에서만 뜨고 꽃들은 왜 해빛을 받아야 피어나는지, 자기는 세상의 모든것을 알고싶노라고 하면서 노을같은 미래를 꿈꾸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남동생은 이 누나의 가슴에 노을같은 꿈을 남겨둔채 너무도 이르게 곁을 떠나간것이다.

그날밤, 김정숙녀사께서는 비내리는 어두운 길로 걸음을 옮기시려니 마안산의 밀영에서 《백두산... 대동강...》을 외우던 아동단원들의 생각도 간절하시었다. 이제는 전우의 자녀들도 끝끝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장군님의 품으로 찾아오고있다. 그들도 춘일이와 같이 배움에 대한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있을뿐이다. 한다면 해방된 조국에서 배움의 창창대해를 단숨에 건너갈 크나큰 포부를 안고 배에 뛰어들어 춘일이처럼 내버려두어야 하는가? 녀사께서는 그 어지러운 환영을 털어버리시려고 머리를 흔들면서 눈빛을 밝히시었다. 앞을 보시니 희미한 외등밑에 웬 청년이 내리는 비에 몸을 말긴채 비에 몸을 말긴채 하니 서있었다. 순간 녀사의 머리에는 온종일 잊어지지 않던 한 청년의 얼굴이 번개치듯 떠오르시었다. 춘일이였다. 의지할데가 없는 그가 비내리는 저 외등밑에 외로이 서있지 않는가!

(춘일동무...)

속으로 부르시노라니 왜 그런지 눈곱이 찢릿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청년을 끌어당겨 어깨를 따듯이 어루만쳐주고싶으신 강한 충동을 느끼시면서 외등밑으로 바빠 다가가시었다. 하였지만 막상 가보시니 그는 춘일이가 아니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낯모를 청년이였다. 녀사께서는 아쉬운 마음으로 외등을 지나치시었다. 우산을 두드리는 비소리가 더 잦아졌다. 정말 춘일이는 이 시각에 어디에 있는지... 혹시 청년은 이 밖에도 철길공사장에 나가있는것이 아닐까?

녀사께서는 그의 거처지를 알아두지 못하신 일

이 몹시 후회되시었다.

그런데 얼마후 김정숙녀사께서 택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초소근무실에서 기다리던 경위중대장이 웬 청년이 찾아왔다갔노라고 하면서 봉두편지 하나를 내미는것이였다. 녀사께서는 《박춘일 올림》이라고만 써여있는 결봉을 뜯으시었다. 안에서 편지와 함께 1원짜리 지폐 한장이 묻어나왔다. 녀사께서는 정성스럽게 포박포박 박아쓴 편지부터 읽으시었다.

《존경하는 김정숙녀사께

저는 책방의 남혜동무를 통해서야 꿈처럼 믿어지지 않는 모든것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뵈을 길이 없기에 이 글을 남기고 래일 공장으로 떠나갑니다. 떠나는 이 시각에 제일 가슴 미여지는것은 의지가 없는 저같은 사람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신 녀사께 고맙다는 인사도 올리지 못하는 일입니다. ...

저는 이제 와서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공장을 떠난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았습니다. 더구나 공부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녀사께까지 큰 걱정을 끼쳤으니 이 무도한 자기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에 가서 죽기내기로 일하는것이 그 죄스러운 일을 씻는 길이라면 나는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빛같은 은정이 스민 책값을 대신할수 없는 이 돈을 남기고 떠나려니 죄송스러운 눈물만 앞을 가리웁니다.

...녀사의 옥체만강을 빌면서...》

김정숙녀사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여 편지를 더 읽지 못하시었다. 그분께서는 비발이 뿌려치는 컴컴한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시었다. 거기에 파릿한 번개가 부딪쳤다. 번개불속으로 바람에 휘젓기는 수양버들의 몸부림이 언뜻 비치였다. 사나운 비바람에 몸부림치는 운명... 불현듯 비내리는 외등밑에 서있던 젊은이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시었다. 그가 꼭 춘일이같이 생각되시었다. 녀사께서는 그에게로 두팔을 벌리고 달려가고싶으시었다. 이순간 녀사께서는 그들의 문제, 지난날 배울래야 배울수 없었던 투사의 자녀들과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에게 창창대공을 날수 있는 날개와도 같은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시었다. 드디어 녀사께서는 장군님께 모든 사실을 보고드리리라 마음다지시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장군님의 집무실에는 김정숙녀사께서 앞상의 끝의자에 앉아계시었다.

책상주위를 걸으시면서 녀사로부터 모든 사연을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어두운 창가에 다가가시여 비내리는 밖을 내다보시었다. 검소한 책상우에는 각종 법령초안들과 여러 부문에서 올려보낸 문건들 그리고 장군님께서 집필하시던 보고문들이 빈자리가 없이 놓여있었지만 그이께서는 만사

를 잊으신듯 창문만을 내다보시다가 이윽하여 몸을 돌리시었다.

《그 청년들이 모두 우리를 믿고 찾아왔겠는데 빈 가슴으로 돌아서려니 그 마음들이 어떠했겠소...》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시듯 잠시 서계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런데 대학창립준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는 그 정도가 아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곤난이 생기자 외국인교수들을 초빙하자느니 준비된 지식청년들을 외국에 류학을 보내자느니 여러가지 의견들을 내놓고있소. 하지만 그렇게는 할수 없소. 자기 나라에서 쓸 일군들을 어떻게 남들보고 키워달라고 하겠소.》

《강선생도 그 생각만은 확고합니다.》

너사께서는 이렇게 형민이에게서 느낀바를 말씀올렸다.

《그것은 강선생이 이전부터 민족적 량심이 있었기때문이요...》

장군님께서서는 이러시다가 문득 웃으시는 표정을 보이시었다.

《...하지만 먼길을 방황해야 가까운 길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들지 않누만》

너사께서도 조용히 웃으시었다.

《어떻소.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그런적이 있었소?》

《저도 강선생에게 그때 이야기를 할가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없었소!...》 장군님의 말씀에는 궁지가 넘치시었다. 《...앞길을 가려보지 못할 천고의 밀림속이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만을 걸었소! 요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는 인민에게 의거한것이고 또하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그 길을 연구한것이요.》

책상우에서 전화종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수화기를 드시고 누구와 몇마디 말씀을 나누시고는 다시 앞상주위를 거니시었다.

《대학을 세우는데서도 리치는 마찬가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의 대학을 세우는데 수년이 걸렸지만 당장 민족간부가 요구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남의 본을 따를수 없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한 자리에 박혀서시었다. 벽에 걸려있는 조선지도의 북단을 깊은 추억이 어리신 눈빛으로 조용히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천천히 말씀을 옮기시었다.

《나는 몇달전부터 백석탄밀영에서 군정학을 하던 때를 생각하고있었소. 그때 우리는 적들의 포위속에서 모든것이 불비했지만 만만을 무릅쓰고 대원들을 공부시켰소. 자기의 이름자도 쓸줄

모르던 대원들에게말이요...》

김정숙녀사의 안광에도 어느덧 환희의 빛이 넘치시었다.

《그때 우리 동무들은 단기대학을 나온것 같다고 기뻐들 했습니다.》

《웁소. 그렇게들 말했소. 그렇다면 지금도 그때처럼 짧은 기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기초지식을 쌓아줄수 있지 않소. 이제는 광복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먹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소. 할수 있소. 아니 꼭 해내야 하오!》

김정숙녀사께서는 높뛰는 가슴을 안으시고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서시었다.

(백석탄밀영에서의 군정학습!...)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투쟁속에서 금보석처럼 찾아내신 귀중한 경험을 더욱 빛나게 다듬고계신것이다. 동시에 그속에서 태어날 새로운 생활을 굳게 확신하고계신다!

너사께서는 장군님께서 하시는 마디마디에서 고고성을 올리며 태어날 그 어떤 위대한것의 탄생을 온 심장으로 예감하시었다.

3

이튿날아침,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교육국의 사무실에는 숙연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김정숙녀사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형민은 그분께서 내놓으신 춘일이의 편지를 읽고난 다음에도 글줄에 눈길을 박은채 움직이지 못하였다.

(춘일이는 떠나갔다. ... 그것이 나의 잘못때문이란말인가?...)

그래도 형민은 대학창립을 위하여 자기만의 노력을 해왔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다음 신문지상을 통해 전국에 호소하였더니 각지의 공장과 기관들에서 적지 않은 서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너사께서 다녀오신 《홍국책방》주인은 그분의 간곡한 의향을 전달받은 다음 자기 집의 책들을 량가로 이관시키고 남해라는 딸은 대학교서관에 취직시키겠노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직 학생문제만은...)

이때 김정숙녀사께서는 여러가지 생각에 잠겨 밖을 내다보시었다. 간밤의 비바람에 부대끼었을 창밖의 수양버들이 그이의 애무를 바라듯 가볍게 흐느적거렸다. 너사께서는 실실히 드리운 수양버들을 거쳐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외우시었다.

《춘일 동무 같은 청년들이 한둘이 아닐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지금 기차의 창가에 어깨를 떨구고 앉아 흘러가는 산천을 서운한 눈길로 내다보거나 춘일이가 그러했던것처럼 대학을 찾아올라오고 있을 청년들을 그리보시는듯싶었다. 형민은 한숨을 지었다.

《나는 이 며칠사이에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배울래야 배울수 없었던 조선청년들의 깊은 상처를 새삼스럽게 보았습니다. 눈물겨운 생각도 많았고...》

김정숙녀사께서는 조용히 돌아서시면서 말씀하시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난날을 한탄만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식으로 그들을 동정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사람이란 먼길을 방황한 다음에야 가까운 길을 찾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민족의 진정한 령도자가 없었던 낡은 사회에서 생겨난 말이 아닐까요?》

《예?》

듣는 사람이면 누구나 옛말책의 명구처럼 신성하게 받아들이던 자기의 말을 단마디로 부정하시는 녀사앞에서 형민은 놀라운 나머지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선생님은 력사에도 밝으시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력사에서 진정한 령도자를 모시게 된 그때부터 조선혁명은 갈길을 몰라서 방황한적도, 길을 헛갈린 일도 없이 오직 승리의 가까운 길만을 이어왔습니다.》

형민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엄연한 력사적 사실이였기 때문이다.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생각에 잠기였던 김정숙녀사께서는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건철장을 가리키시면서 이번에는 생활적인 이야기를 꺼내시였다.

《선생님은 교육사업을 비유해서 집을 하나 짓는데도 엄연한 순차성이 있다고 하셨지요?》

형민은 정중한 몸가짐을 흐트러뜨리면서 손을 가볍게 저었다.

《아, 아, 나는 건설전문가가 아니니 일반적인 도식을 말했을뿐이지요.》

녀사께서도 가볍게 웃으시였다.

《저 역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산에서 싸울 때 하루이틀사이에 수십채의 밀영을 짓던 일이 생각나서 한 말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짓는가 하는것도 역시 사람들의 의지에 달린것 같습니다.》

《음...》

형민이의 생각은 더 깊어졌다. 오랜 교육가로서의 그의 예민한 심리는 녀사께서 하시는 생활적인 모든 이야기들이 자기의 완고한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라는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선생님, 그러니 우리는 대학의 입학생모집기준도 순수 학력본위로만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에서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립장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녀사께서는 잠시 사이를 두시였다가 말씀을 이

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하시였기때문에 산에서 싸우시면서 대원들에게 단기교육을 주시던 경험을 살리시여 드디어 종합대학에 예비과를 설치하기로 발기하시였습니다.》

형민은 선뜻 리해하되지 않는 눈길로 녀사를 바라보았다.

《그게 어떤 교육형태입니까?》

《2~3년사이에 초등교육으로부터 중등교육의 과정을 해결하려는것입니다.》

《2~3년...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반박이라기보다 그 어떤 가능성을 알고 싶어하는 물음이었다.

《배움에 대한 지향이 강한 우리 청년들은 꼭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음...》

형민은 아득한 추억의 갈피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에 잠기면서 슬며시 눈을 감았다. 배움에 대한 지향... 그것은 지난날 형민이의 심장에서 고패치던 박동이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다닐때 조선민족은 결코 궤등하지 않다. 조선청년들도 배우기만 하면 너희들, 일본놈들보다 비할바없이 월등하다는것을 내 보여주리라! 이런 불같은 의지로 공부하였다.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름이 휘감긴 상상봉에 올라가 이끼오른 바위를 손으로 긁어가면서 고구려의 옛 성터의 흔적을 찾아낼 때나 뽕나무에 묻힌 옛동굴에서 고대인들의 생활흔적을 찾아 헤매일 때도 그런 의지로 살았다.

(그러던 내가 언제부터 인간의 의지력을 홀시하고 온갖 채능가운데서 비상한 기억력과 박식한 지식만을 첫자리에 놓게 되였는가?)

그것은 자신이 교육계에서 이름이 알려지던 때부터였다. 옳았다! 그때로부터 의지에 대한 신념이 무디여지고 그대신 교육자의 직업적인 관습이 사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기여들었다. 형민은 이렇게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제3자의 립장에서 바라보았다. 어떤 자각의식때문에? 아니다! 그것은 사회현상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을 지니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내비치지 않는 녀사, 바로 지금 앞에 계시는 위대한 녀사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형민은 긴숨을 내그었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의 홍수에 무너져나가는 자기 신념의 담벽을 역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애써 그리안으려 고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박동이 높뛰기 시작하였다.

(종합대학에 예비과를! ...)

그것은 전혀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던 말이었다. 또 세계의 그 어느 대학의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혀 새로운 교육형태였다. 이 새

로운 교육형태속에서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은 비상한 의지력으로 최선문명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이 소식을 알게 될 온 나라 인민들은 민족적인 환희로 바다와 같이 설레일것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실 때 사람들은 길을 헛갈리지 않는다고 하신 김정숙녀사의 말씀은 실로 뜻이깊은 명언이시였다. 형민은 드디어 눈을 뜨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정말 어떻다고 해야 할지... 여직껏 순수 학문만을 제일로 여겨온 나 자신이 오늘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가봅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 이젠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선생님...》

김정숙녀사께서는 형민의 복잡한 심정을 헤아리신듯 가볍게 떠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형민은 그분의 손길에서 옮겨지는 따뜻한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인간에 대한 참사랑의 깊이를 새롭게 체험하였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평양역으로 이어진 포장도로를 따라 경위중대의 화물자동차 한대가 쾌속으로 달리고있었다. 운전수옆에는 형민이가 앉아있었다. 조금전에 부대의 남새밭에 나가는 자동차편을 아신 김정숙녀사께서는 형민이더러 가던 길에 있는 역전에 들려보라고 이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쪽으로 가는 기차는 늦은 아침에 있으니 춘일동무는 혹시 역전에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형민은 서둘러 자동차에 올랐다. 자기가 돌려보냈던 청년을 데리러 간다고 생각하니 그의 마음도 기쁘기만 하였던것이다.

장마가 지뭇게 이어지던 하늘이 건칠듯이 높아졌다. 비가 멎은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도 전에없이 활기를 띠였다. 신록이 무르익을 대동강반의 거리는 얼마나 산뜻한가!

드디어 역전이 가까워졌다. 《뚜-》 기차의 기적소리가 울리였다. 자기 생각에 떠있던 형민은 기계적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운전수가 가속기를 지그시 밟았다. 발동기소리가 높아지면서 자동차가 쏜살같이 내달리였다. 그러나 역전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자동차는 바퀴를 밀고나가면서 급히 박혀섰다. 까만 쉼라복의 한 처녀가 들이닥치는 자동차도 몰라보고 총알처럼 앞길에 뛰어들었던것이다.

《아- !》

자동차가 덜치듯 벗어나는 순간에야 위험을 깨달은 처녀가 비명과 함께 얼굴을 싸쥐면서 주저앉았다. 그의 가슴에 안겼던 꽃보자기가 젖은 땅위에 구울렸다.

《아니 남해가!?!》

처녀가 소스라치듯 얼굴을 들었을 때 형민은 크게 놀라면서 자동차문을 열어제끼고 급히 땅에

내려섰다.

《남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얼굴이 파랗게 질렸던 처녀가 형민이를 알아보고 그만해야 입술을 떨었다.

《선생님... 춘일동무에게 책이라도 주려고...》

더 말을 옮길 시간이 없었다. 두번째 기적소리가 울렸던것이다. 형민은 역구내로 앞서 달려나갔다. 남해가 창황중에도 땅에 떨어졌던 책보자기를 안고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들이 구내에 나섰을 때 기차는 흰김을 뿜어올리면서 이미 차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형민은 몇걸음 따라갔지만 점점 빨라지는 기차들 따라잡을수도 없었고 하두많은 차창에서 춘일이의 얼굴을 찾아볼수도 없었다.

《춘일동무 !-》

남해가 눈앞으로 언뜻언뜻 지나지는 차창들을 바라보면서 무의미하게 소리쳤다. 덜커덩... 덜커덩... 련결짬을 넘어서는 차바퀴소리만이 높아졌다. 더는 어찌할수 없음을 깨달은 처녀는 형민이를 향해 발을 구르면서 안타깝게 호소하였다.

《선생님, 그 동무는 끼니를 번지면서도 책을 모아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만하면 그 동무는 밤잠을 자지 않고 책을 볼것입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공장에 알려 그 동무를 다시 대학에 불러줄수는 없습니까, 네?》

남해 향학열에 불타는 춘일이의 그 뜨거운 지향에 감복되어 처녀의 순결한 랑심이 가리키는대로 아버지 몰래 책을 빌려주고 헤어지면 그만일수도 있는 이 시각에도 책보자기를 안겨보내려고 천방지축 달려온것이다. 형민은 처녀의 가룩한 마음앞에 머리가 숙여졌다.

《남해, 나는 정말...》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바람처럼 지나쳐버리는 차창들, 처녀의 목소리처럼 귀따갑게 울리는 차바퀴소리들... 구내의 전철기를 넘어서는 기차의 기적소리가 가슴에서 귀중한 그 무엇을 뽑아내며 길게 울리였다. 그런데 마지막 차칸이 지나쳐버린다음 순간 텅빈 구내를 살피던 그의 눈길이 한곳에서 박히듯 멎었다. 간밤의 비에 아직도 군데군데 물이 고여있는 구내의 한끝에 흰보자기를 옆구리에 낀 청년이 멀어져가는 기차를 망연히 바라보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춘일이였다! 형민은 갑자기 높뛰는 가슴을 안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춘일이!》

얼굴을 돌린 춘일이가 형민이를 알아보고 저으기 의아해하였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형민은 그의 손목부터 덱씩 그러쥐였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소. 나를 용서하오. 그사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소.》

로동현장에서 뼈마디가 굶어진 춘일은 생각하

는바도 넓은 청년이었다.

《나는 선생님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헤엄치기만 한 자기를 어리석게 여겼을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나오다가 대학교사를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보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도 장군님께서 세우시는 대학의 지붕에 기와라도 며칠 없고 가리라 마음먹고 기차에서 도로 내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였다. 형민은 소박하고 깨끗한 그의 량심에 깊이 감복하면서 청년의 어깨를 따뜻이 어루만졌다.

《고맙소! 춘일이.》

《나는 그저 생각했을뿐이지 아직...》

《아니요. 그런 깨끗한 마음이 귀중한것ियो. 장군님께서는 바로 동무와 같은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에 예비파를 내오도록 조치를 취하시였소!》

《예?!》

춘일은 자기의 운명앞으로 다가오고있는 그 어떤 놀라운 변화를 느끼면서도 아직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예비파라는건 어떤것입니까?》

《2~3년사이에 대학공부를 할수 있는 기초를 배워주는 학과요. 알겠소?》

춘일은 그제사 모든것이 리해되는듯 꿈만 같은 사실앞에 입술을 깨물었다. 동시에 크나큰 감동을 억제하는 그의 불편으로 가벼운 경련이 스치면서 놀라운 빛이 어려있던 눈에 밝은 물기가 글

썩해졌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춘일은 더 참지 못하고 얼굴을 떨구면서 어깨를 가볍게 떨었다.

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해도 손가락을 썸으면서 눈물을 지었다. 형민은 처녀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었다.

《남해도 도서관이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해야 하오. 이제는 녀성들도 남자들과 같이 나라의 역군이 되어야 하니까 모두 배워야 하오.》

《선생님!》

남해는 형민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울먹거렸다. 그것은 모두 위대한 사랑에 목매여하는 행복의 눈물이고 억제할수 없는 환희의 감정이였다. 형민이도 따라와지는 눈길로 먼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 며칠동안 김정숙녀사께서 다니신 걸음걸음이 새삼스럽게 눈앞을 스치였다.

동시에 새 력사의 위대한 전환기에 그분께서 걸으신 며칠동안의 길이 형민이 자신과 아버지가 대를 이어가면서 교육의 진리를 찾아 걸어온 길보다 비할바없이 길고 또 춘일이나 남해와 같은 청춘들이 걸어가게 될 환희로운 미래로 아득히 이어져있다는 생각이 가슴후덥게 새겨졌다.

문득 흘러져가는 구름사이로 밝은 해빛이 부채살처럼 쏟아져내렸다. 세기를 두고 이 땅을 덮고있던 무지의 그 해발은 바야흐로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였다.

가사

내 고향의 시내물

한호

들꽃이 피어나는 산기슭을 굽이돌아
흐르며 속삭이는 내 고향의 시내물
맑은 물에 헤엄치며 내가에서 뛰놀던
못잊을 추억이 네 물결에 어려있네

붉은별 군모 쓰고 떠나가던 그날에도
정답게 따라서던 잊지 못할 시내물

달밝은 전호에서 고향을 그릴 때면
어머니의 음성처럼 그 물소리 울려왔네

흐르는 세월속에 추억은 많아도
어이하여 그 물소리 가슴에 남아있나
꿈결에도 들려오는 고향의 시내물
한생을 안고살 내 삶의 젖줄기라네

조국과 나

김재규

그 언제부터였는가. 내 심장속에 고이 간직하고 사는 이름, 언제 어디서나 잡시도 나의 심장속에서 떠나지 않고 고동치며 나를 부르고 이끌어주던 조국이였다. 그 조국이 나의 심장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것은 아마도 해방된 그해 여름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어린 목동이던 나는 그날도 바람부는 야산등성이에 웅크리고 앉아 흘러가는 구름장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지주집에서 같이 머슴을 살던 팍서방이 나를 향해 두손을 쳐들고 흔들며 올라오는것이 아닌가.

《야야! 해방이다, 해방!...》

《??...》

아직 철이 없던 나는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참이나 멍하니 마주보았다.

《이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누만... 우리두 이제 내 나라를 가지구 살게 되었던말이야.》

《내 나라라는것이 뭐냐요?》

《...응... 그건... 집 없는 우리들에겐 집과 같은 거다. 남의 집이 아니라 제 집...》

그 역시 내 나라에 대한 정확한 어휘 뜻을 찾지 못해 안타까와했다. 그러나 포근하고 따사로운 그 무엇이 나를 품어주는듯한 느낌만은 확연했었다.

나는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생각이 났다. 온갖 고역에 시달리다가도 나를 보면 한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곤하던 나의 어머니! ... 그리고 별이 종종 내다보이는 움막집에서도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잠들던 동요시절이 떠올랐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날 팍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된듯한 숨막히는 환희를 느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사이 나는 여러번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을 수위에 모신 공화국정권을 튼튼히 다지는 선거에 참가했었다. 그동안 조국은 얼마나 먼길을 걸어왔던가.

조국은 홀려간 세월 준엄한 시련의 언덕과 풍파사나운 날바다를 넘어오면서도 이름없는 전사를 잊지 않고 한품에 따듯이 안아주고 키워주고 오늘에로 이끌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리의 참다운 조국입니다.》

조국은 진정 나의 어머니였고 내가 사는 따사로운 품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총을 메고 미제원수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견결히 싸울수 있는 혁명전사로 키워주었으며 이 땅에 포성이 몇자 조국은 나를 학원에 불러 공부를 시켜주었고 오늘에는 필봉을 가다듬고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여가는 문필가로 키워주었다.

이 땅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고 행복한 삶의 길을 열어주고 혁명전사로, 작가로 키워준 조국은 나의 한생의 전부였다. 조국이 있었기에 해방전 배움의 길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며 시들어가던 동요시절, 소년시절들이 먼 과거로 되었으며 행복만이 약속된 새 생활이 펼쳐졌었다. 그러기에 조국은 나의 심장속에 고이 간직된 다정한 품이였고 의지하고 살아갈 희망찬 생활의 언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였고 친히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조국은 곧 수령님의 자애롭고 은혜로운 품이다.

그러기에 전쟁의 불비속에서도 고지를 선했로 물들이며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면서도 전우들은 그 이름을 높이높이 불렀다.

그 조국이 있었기에 원썩을 무찌르고 끝끝내 고지를 지켜낼수 있었다.

조국이 나를 불러 총창대신 펜을 손에 쥐여주었을 때에도 먼저 그 고마운 품을 생각하였다.

시대의 선구자들인 작품의 주인공들과 운명을 같이하며 심혈을 바쳐 미숙한 글줄을 옮길 때에도 항상 심장속에 간직한것은 조국의 이름이였다.

조그마한 성과라도 올리면 먼저 기뻐한것은 조국이였고 그때마다 파분한 치하와 영예를 안겨준 것도 조국이였다.

허나 그 조국이 수십회의 영광에 찬 년륜을 새기는 오늘 내 무엇보다도 가슴저리게 생각되는것은 조국이 안겨준 믿음과 사랑에 응당한 보답을 못한것이다.

땅은 자기 품에 만물을 안아 온기를 주고 수분을 주고 자양분을 주어 눈을 티우고 싹을 기르며 마침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것처럼 조국은 나를 안아키워준 어머니품이였다.

조국과 더불어 한생을 같이 살아온 나는 조국 앞에 다하지 못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일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진다.

조국이 안겨준 은혜를 영원토록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 몸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위대한 나의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류다른 사냥

1

마가울의 을씨년스러운 날씨였다. 소슬바람에 대황구치기의 울창한 수림은 끊임없이 설레이고 락엽은 갈가마귀떼처럼 까맣게 날려 개울가에서 얼마간 떨어진 풍막주변에도 수북이 떨어졌다.

숲속에 햇빛이 희미하게 비쳐드는 한낮무렵, 그 풍막속에서 스물일여덟살쯤 돼보이는 항일유격대 지휘관이 나왔다. 시꺼먼 눈썹밑의 끝날같은 눈빛이며 혁띠를 꼭 졸라맨 탄탄한 몸집아래 굵직한 자욱투성이가 된 목직한 군화에서는 혈전속에서 버려진 표표한 기상이 풍기였다. 화로불앞에 수국이 앉아있던 젊은 대원이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후닥닥 일어섰다.

최현은 꺼멓게 죽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놀려주듯 말하였다.

《오늘은 코까지 빨개졌군. 그렇게 죽쳐있다면 매일쫄은 아주 쓰러져서 나를 간호부로 만들지 않겠나?》

《...》

정진수는 중대장의 눈을 마주 쳐다볼수 없었고 개를 떨구었다. 뒤끓는 그의 심중을 위로해 주듯 가랑잎이 발치에 와서 덩굴며 가볍게 살랑거렸다.

《왜 말이 없나? 우리가 <민생단>협의를 받국이 풍막으로 내몰리웠다구 이젠 다다, 끝장이다 하고 생각하고있나.》

《...》

《그래서 기가 죽어있나?》

정진수는 죽쳐있는 자기 꼴을 중대장이 달가와 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기에 진속과는 다르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니라—》

최현은 정진수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모르는척하면서 그의 대답만을 절대적인것으로 긍정했다.

《아무렴, 그럴테지. 우리가 아무리 지금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해도 정신이야 꺾일수 있나. 더구나 적탄이 비발치는속에서도 날쌔게 뛰어다니며 중대를 전투승리로 고무하던 우리 전령병동무가 말이야. 안그렇나?》

정진수는 발끝을 굽어보며 잠잠히 듣고있을뿐이었다.

《이걸 중대에 갖다주게. 중대에는 총이 한자루라도 더 필요될테니까.》

최현은 손에 쥐고있던 총을 내밀었다 그자신이

리철모

어깨에 부상까지 당하면서 왜놈들에게서 빼앗은 마레상보총이었다.

《그리구 동무가 메고있는 그 총은 이리 주게!》

정진수는 자기 어깨에서 구경이 크고 소리가 요란한 다태갈보총을 벗어나서 중대장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중대장이 내미는 마레상보총을 받아 쥐었다. 박해를 받고 대오에서 밀려난후에도 중대를 생각하여 총을 보내주자는 중대장의 마음에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뜨직했다. 중대와 떨어져있는 외로운 처지에서 다소나마 마음의 의지가 되는것은 그래도 총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중대장은 두자루밖에 안되는 총중에서 하나를 중대에 보내자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시뻘뻘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우리 처지에서 이걸 꼭 중대에 갖다줘야 합니까?》

《물론 동무의 묻는 뜻은 알만하네. 하지만 우리야 이 다태갈보총이 있지 않는가. 이것 한자루면 되지!》

최현은 손에 진 다태갈보총을 가슴노리까지 쳐들어보이였다.

《이게 어떤 총인줄은 알겠지?!》

《예, 작년 9월에 사령관동지께서 중대장동지에게 주신...》

《음, 동문 그후에 입대했어도 알긴 아누만. 이 총은 사령관동지께서 나한테 주신 총이네. 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이 최현에게 주셨단말이네. 알겠나? 한자루도 아니고 녀자루씩이나... 이게 그중의 한자루지 ...》

최현은 총을 쥐지 않은 오른손으로 총신을 정히 쓰다듬으면서 그자신이 이미 스무번도 나마 이야기해주어 정진수가 머리속에 환히 새겨두고 있다는것도 잊고 자랑하듯 뽐내듯 말하였다.

정진수는 중대장이 배양 그렇게 해온다는것을 알고있기에 덤덤히 듣고있었다.

《중대에 가게 되면... 거기있는 석자루의 다태질들을 다 잘 다루란다고 알려주게. 티끌 한점 묻혀선 안된다고말이네. 그러지 않았단간 내가 중대에 돌아가는 날 가만두지 않겠단다고 말해두게!》

정진수는 《예!》하고 대답하면서도 리해되지 않는것이 있어 잠시 주뭇거리다가 《중대장동지, 그럼 우린... 중대로 돌아가게 됩니까?》

하고 기대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에게 있어서 중대로 다시 돌아간다는것은 치욕스런 《민생단》협의를 벗어던지고 혁명의 길에 다시 들어서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는 운명적인 문

제였다. 하기에 지난 이틀동안 그 문제때문에 줄곧 속을 태워오던 그로서는 방금 한 중대장의 말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심각해진 정진수와는 달리 최현은 의례히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있는 사실을 말하듯 레사롭게 대꾸했다.

《돌아가지 않으면... 혁명을 하자고 총을 쏜 사람들이 혁명대오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나. 갈데가 있다. 우린 꼭 중대로 돌아가게 되네. 돌아가지 않구...》

정진수는 애타게 바랐던 그만큼 그 말을 선험 믿기가 어려워 어정쩡해 서있다가 《알았습니다.》하고 확신이 없는 대답을 하고 그자리를 떠났다.

최현은 숲속으로 멀어져가는 그를 바라보며 품속에서 호박물부리를 꺼내어 담배를 피워물었다. 얼굴이 뿌옇게 연기에 싸이도록 담배연기를 세팔게 뿜어올리면서 그는 손맛을 즐기듯 손가락으로 물부리를 쉬임없이 만지작거리었다. 그의 사색, 그의 감정, 그의 기지와 결심들은 모두 이 호박물 뿌리와 이어져있어 복잡한 정황에 부닥치거나 마음의 안정이 요구될 때에는 더 말할것 없고 지금과 같이 일을 뜻대로 처리하여 기분이 흐뭇해졌을 때 그에게서 항용 나타나군하는 버릇이었다.

개울을 건너 숲속으로 걸어가는 정진수는 방금 중대장에게서 들은 말이 있는데다 이틀동안이나 풍막속에 격리되어있다가 중대로 찾아가는 길이여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중대와 떨어져있게 된 처절한 생각에 젖어들었다. 혁명의 품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하나의 전투단위속에 생활로 구현되어있는곳인 중대는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터전이며 보금자리였다.

왜놈들의 발전소공사장에서 수송대의 말보다 더 모진 채찍을 받아가며 등짐을 지던 그를 유격대는 자기품에 안아들여 눈을 티워주었고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었으며 그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었다.

의란구전투때와 팔도구전투때 중대원들의 총구앞에서 벌벌 떠는 왜놈들의 물결에서, 해방된 마을인민들이 자기들의 팔소매를 붙잡고 흘리는 감격의 눈물에서 유격대원들의 임무와 사명을 자각한 그는 자기자신도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한몸 바치고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뿌듯해졌다. 그는 지휘관들과 구대원들의 모범을 따라 일생을 혁명의 길에서 혁명가로 살며 싸우리라 다짐하고 중대앞에 제기된 임무수행에 힘과 성의를 아끼지 않았었다.

한데 《민생단》협의를 받고 중대에서 밀려나오는 청천벽력파도 같은 일이 생길줄이야... 생각할수록 가슴이 허물어 저내리는것 같았다.

그들의 중대가 로야령을 넘어 여기로 온것은 달포전이었다.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

할 목적에서였다.

이곳 대황구치기의 깊은 수림속에는 여러개의 산림부대가 있었다. 그들과 통일전선을 실현하자면 우선 우사령부대에 대한 공작이 필요하였다. 그 부대에서 우사령은 제노라고 하는 인물이었을 뿐만아니라 인원도 제일 많아서 다른 산림부대에 주는 영향력도 컸다.

그리하여 최현은 정진수와 함께 여라문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우사령부대에 찾아갔다. 우사령은 처음부터 도고하게 나오면서 결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현은 진지한 태도로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오의성, 사려장 부대들과 련합작전을 진행하여 승리한 동녕현성전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우사령은 마침내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서 최현의 제의를 응낙하여 결국 공작은 승리적으로 끝났다.

최현은 그날밤 푸짐한 대접까지 받고 이튿날 아침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그들이 골짜기에서 한마장가량 나왔을 때 말을 탄 유격대통신원이 달려오더니 얼마전부터 상급지휘부에서 중대에 내려와있는 조이빈주임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길로 류하촌에 가서 그곳 《자위단》을 치고 무기와 탄약, 식량들을 로획해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최현은 통신원을 돌려보낸 다음 류하촌으로 통하는 큰길까지 걸어나왔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마차 한대가 달려왔다. 마차우에는 어제밤 식탁에 마주앉았을 때 안면을 익힌 우사령부대의 한 지휘관이 타고있었다.

최현은 그에게 어디 가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 지휘관은 무척 곰살궂은 태도를 보이면서 류하촌 《자위단》으로 탄약과 식량을 가지러 간다고 하였다.

최현은 그 말이 심상찮게 여겨져 그를 길가의 풀덤불속에 데리고 가서 담배를 권하면서 이것저것 물었다.

그러자 그는 류하촌 《자위단》의 훈련을 위한 소집요일이며 장소, 무기고와 탄약고의 위치 등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그곳 자위단장이 우사령의 처남 되는 사람으로서 두사람의 정분이 두터울뿐만아니라 우사령으로부터 반일적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들에게 탄약과 식량을 아낌없이 내준다는것들을 말하였다.

최현은 신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마차를 떠나보낸 다음 호박물부리에 담배를 피워물고 한동안 생각을 굴리었다. 만약 《자위단》을 친다면 그들과 깊은 련계를 맺고있는 우사령부대에 유격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킬수 있었으며 궁극에는 그들이 유격대와의 반일통일전선을 거부해나섬으로써 다른 산림부대에 나쁜 영향을 줄수도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반일통일전선 실현에 스스로 장애를 만들어놓는 결

과박에 가져올것이 없는것이였다. 그 《자위단》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리용하는것이 더 유리한 길이었다

최현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주견대로 류하춘 《자위단》을 치지 않고 돌아왔다. 그것때문에 조이빈으로부터 압력이 가해지리라는것을 예상했지만 그것이 두려워 맹목적으로 그의 지시를 집행할수는 없었다.

한데 그것이 빌미로 되였다.

조이빈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벌리더니 목에 피대를 둘구며 따져물었다. 《자위단》은 유격대와 인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왜놈들의 주구단체이다. 그런데 왜 그들을 치지 않았는가, 왜 비호하였는가, 이것은 그놈들과 내통하고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체를 밝히라! …

조이빈의 목소리가 병실주변의 숲속을 찌렁찌렁 울리였다.

사람들은 불안한 낯빛으로 최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최현은 애당초 이 모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듯한 도도한 태도였다.

그는 《자위단》을 처서는 안될 이유를 밝히고는 단호히 말하였다.

《나는 털끝만큼도 잘못된게 없다!》

그러자 《민생단》심의를 전례를 뒤집어놓은 목록치 않은 그의 배짱에 비위가 거슬렸던지 조이빈이 탕! 하고 책상을 쳤다.

《철직이다!》

그말과 함께 그가 데리고 온 세명의 대원이 달려나와 최현의 옆구리에서 권총을 빼여냈다. 그러나 최현은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발치에 있는 다태갈보총을 틀어쥐였다. 그러자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세 대원을 확살스럽게 떠밀치며 최현은 결연히 말하였다.

《흥 철직이라구? 어림도 없다. 누가 시키구말구해서 하는 혁명인줄 아느냐 놈라!… 이건 사령관동지께서 혁명을 하라구 직접 나한테 주신 총이다. 내 죽으면 죽었지 이건 내놓지 못하겠다.》

금시 방아쇠라도 당길듯이 격해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세 대원은 다가서지 못하고 비실비실 물러섰다.

그날 회의에서 정진수 역시 중대장과 한짝이 되어 다니면서 《적을 비호》했다는 혐의로 철직을 당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중대장의 본을 따라 총만은 내주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중대로 가져가고있는 이 마레상보총이였다.

조이빈은 두사람에게 엄혹한 제재를 가하였으나 결패사나운 최현을 다룰수는 없었던지 개울 건너 풍막속에 격리시켜놓기만 했을뿐 경호병도 붙이지 않았다. 자기 질문에 진실한 대답을 하는것이 유익할것이라는 전제밑에 류하춘 《자위단》이 모이는 요일이며 무기교와 탄약고, 식량창고의 위치 등에 대해서 물었다.

최현은 그 모든것을 알고있을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조이빈의 물음에서 무슨 기미인가 했던지 단마디로 모른다고 잘랐다. 정진수 역시 모른다고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조이빈은 그러지 말고 털어놓는게 좋을게라고 위협조로 말하였다.

풍막에 떨어져있는 지난 이틀동안 다만 그 일만이 있었을뿐이였다. 하지만 정진수에게는 어느 날에도 비길수 없는 고통스러운 이틀이였다. 그는 혁명의 품에서 밀려나와 치욕의 나락속에 굴러떨어진것만 같아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았다.

한데 놀라운것은 중대장의 태도였다. 중대장은 자기에게 《민생단》혐의를 뒤집어씌운 그 회의를 꿈에 네뚜리로 아는것 같았다. 조이빈의 눈총앞에서도 그처럼 버젓하게 행동하더니 풍막에 와서도 조금도 기가 쏠리는 기색이 없었다. 밥도 다 먹고 잠도 제대로 다 잤으며 아침에는 개울가에 나가 옷등을 벗어놓고 땀수마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물고기기를 보고는 그것을 잡아 보겠다고 손바닥을 오그려붙이고 돌아가며 신발을 다 적시기도 하였다.

정진수는 정치적 생명이 칼도마우에 오른 이때 어찌면 저릴수 있으랴싶어 놀래였다. 어찌보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조금도 각성이 없는 사람의 행동같기도 했다. 그런데다 정진수 자기보고 왜 죽쳐져있는가고 나무라는가 하면 방금전에는 《중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정진수는 중대장의 그러한 행동들이 혁명가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전부터 품고오던 물음과 함께 새라새로운 더 많은 질문들을 자기앞에 제기해움을 느끼였다. 그가 알고있기엔 차후의 처분이 내려질때까지 풍막속에 격리되어있는 자기들에게 아직은 중대로 돌아갈만한 아무런 담보도 없었으며 사태는 의연히 험악했다. 한데 중대장은 무엇을 믿고있길래 그처럼 버젓이 행동하며 중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까지 하였을가? 그를 끄떡없이 행동하도록 마음을 곳곳이 받쳐주고있는것은 과연 무엇일가? 결패일가? 투지일가? 대담성일가? 아니면 불의에 아부할줄 모르는 정의감일가?… 하지만 그러한 기계만 믿고 마음놓기에는 부닥친 정황이 너무도 준엄하지 않은가. 그러면? 무엇일가…

해답을 찾지 못한채 중대에 가서 총을 넘겨주고 돌아섰다. 그때 병실앞에서 그를 띄여본 조이빈이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하였다.

《쓸데없는 배짱을 부리지 말고 내가 묻던걸 빨리와서 대는게 좋겠다구 일러! 조금이라도 자기를 생각하겠으면…》

류하춘 《자위단》소집일이며 탄약고, 식량창고들의 위치를 대라고 강박하더니 그것을 두고 타리개를 더욱 죄이자는 속심이 뻔했다. 정진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의 앞을 지나 풍막으로 돌아왔다.

중대장은 화로불옆에 있는 소잔등만한 바위들을 타고앉아서 무엇인가 손안에 쥐고 열심히 갈고있었다.

정진수는 그의 등뒤에 가서 조이빈이 하던 말을 전달하였다.

최현은 한참이나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하다가 《빨리 와서 대는게 좋겠대구?...》

하고 되뇌이더니 《흥!》 하고 코방귀를 뀌었다. 그리고는 갈던것을 쳐들고 살펴보았다.

정진수는 그제야 그것이 가래나무열매라는것을 알아차렸다. 가래로서는 이미 모서리가 칼로 자른듯이 갈려져서 거기에 구멍까지 빠끔히 들여다보였다.

그것을 확인하자 최현은 혹 하고 돌가루먼지를 불어내고는 호르레기를 불듯 가래토시를 입에 물고 불었다. 그가 입김을 묘하게 불어넣는데 따라 가래토시에서는 뻑-뻑-뻑-뻑 하고 갖가지 묘한 소리가 울려나왔다. 그것은 호르레기소리 같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여우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였다. 정진수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허거른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튿만 들어도 왜놈들이 치를 떠다는 자기 중대장에게서 싸움군의 기개와는 어울리지 않는 장난군소년과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던것이다. 그는 의혹을 참지 못하여 물었다.

《중대장동지 그게 뭘니까?》

《우레네》

《우레라는건...》

《사냥할때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입에 물고 부는거네. 원래는 살구씨나 복숭아씨 같은걸로 만들지만 그런게 없어서 가래로 만들었는데 꽤 쓸만하구만.》

최현은 다시금 그것을 갈기 시작했다. 정진수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서 물었다.

《그런데 그건 만들어서 뭘합니까?》

《뭘하다니? 사냥을 하지!》

《네예? 사냥을요?!...》

《왜?》

《지금 우리 처지에서 사냥을 한단말입니까?》

정진수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어서 났나간 소리를 질렀다. 자기 운명에 대한 걱정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다 조이빈이 점점 더 타리개를 조이는 이때에 사냥을 가자고 할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것이다. 그의 심정을 헤아렸던지 최현이 말하였다.

《하면 했지 못할건 뭘가.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나,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져있나,하늘은 높아지구 짐승들을 살쥔것다. 요즘같이 심심한 때에야 해볼만한 일이지. 여기서 시시한 성화나 받으면서 속을 썩일것 있는가. 산바람을 쏘이면서 머릴 거뜰하게 만드는게 낫지.》

정진수는 눈이 둥그래졌다. 심심한 때 머리도

거뜰하게 만들겜 소일삼아 사냥을 가자고 하다니?... 무엇을 믿고있기에 저처럼 배포유하게 행동할수 있을까?...

정진수는 중대에 갔다오던 길에 품었던 의문의 타래속에 더욱 깊이 감겨들어갔다.

2

사냥갈 차비를 한 그들은 이른날아침 개울을 따라 골짜기로 올라갔다. 정진수는 쌀과 팥술가지, 가마솥을 등에 지고 뒤에 따라섰고 최현은 총과 철피, 침구들을 메고 앞에서 걸었다.

구름 한점없는 맑은 날씨였다. 골짜기에서 빠져 나온 개울물이 락엽을 떠이고 급실거리며 흘러갔다. 물우에는 물안개가 뽕얇게 서려있고 개울가에 밀려나온 락엽들은 밤사이에 성애가 하얗게 끼여 살얼음과 함께 발밑에서 바삭바삭 부서졌다. 이른 아침의 누기찬 랭기가 온몸에 끼쳐와 마음은 그지없이 상쾌하다.

불현듯 그들의 말소리에 놀라 장끼 한마리가 푸드득하고 가까운 풀덤불속에서 날아오르더니 꺼정꺼정하고 울며 개울너머로 사라진다. 그러자 숲속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들의 발자국소리, 흘러가는 개울물소리만 울릴뿐.

《그래, 우레 부는 법을 좀 익혔나?》

문득 앞에서 걷던 중대장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어제밤에 우레 부는 법을 가르쳐주고는 연습 해두라고 일러두었던것이다

정진수는 자신이 없어 대답을 머뭇거리었다.

《내 가면서 대주지. 이리 주게!》

정진수가 우레를 내주자 최현은 사냥을 하자면 갖가지 짐승소리를 내는 묘리를 익혀야 한다면서 그더러 한가지씩 들어보라고 하며 뻑-뻑-뻑-뻑-하고 불기 시작했다. 우레소리가 다시금 숲속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소리를 귀따갑게 들으며 잠시 걸음을 옮기던 정진수는 무심히 개울웃쪽을 바라보다가 전기에라도 닿은듯 온몸이 짜릿하게 굳어졌다. 건너편 개울가에서 조이빈과 그가 데리고 온 세 대원이 웃저고리를 벗어놓고 속내의 바람으로 세수를 하고있었던것이다.

세 대원은 물우에 엎디어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푸푸거리고있고 방금 세수를 끝낸 조이빈은 물이 똑똑 흐르는 얼굴을 들고 일어선다. 이쪽의 두 사람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금시 눈이 화등잔같이 커졌다.

그것을 일별한 정진수는 짜릿한 긴장감과 함께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몰라 당황하였다. 자기들이 사냥가는것을 보면 조이빈이 결코 가만있지 않으리라는것을 직감했던것이다.그런데 최현은 개울 건너편 사람들을 못보았을리 없건만 짐짓 못본체 하면서 내쳐 우레만 호-호- 하고 불고있었다.

조이빈의 존재를 눈밖에 둬으로써 기어이 그와

엇서보려는 그의 고분창은 성미가 대뜸 알려졌다.

정진수는 안달이 났다. 조이빈의 성난 얼굴을 보아서는 중대장이 우레부는것을 말리고싶었지만 중대장의 결기사나운 성미를 생각해서는 감히 그만두라는 암시로 그의 몸을 건드릴수 없었다. 그리하여 저혼자 가슴을 조이며 조바심치고있는데 위험이 섞인 조이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개울가를 찌렁 울리었다.

《어딜 가는가?》

최현은 그제야 저편 개울가를 돌아보고는 더부룩한 눈섭을 으쓱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저편의 화난 목소리와는 너무도 대조되게 낮고 천연스러웠다.

《보면 모르겠소. 사냥을 가오.》

《뭐 사냥을-? ...》

조이빈의 얼굴이 대뜸 격분으로 이그러지더니 주걱턱이 덜덜 떨리었다.

《건방지게! ... 누가 사냥을 가라고 했는가?》

《왜, 할일도 없는 때에 좀 좋소? 담과 용맹도 키우구 사격술도 높이고, 또 몸단련도 하고... 앞날의 혁명투쟁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몸을 준비해 두는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최현의 웅골찬 대답에 놀란것은 개울 저편 사람들뿐만 아니었다.

《뭐, 뭐라구? 내가 일러준걸 다 잊었는가.》

조이빈이 눈에 독기를 띠우며 소리치는데 정진수는 정진수대로 새삼스러운 충격에 눈이 둥그래졌다. 어저께는 심심풀이나 하기 위해 가는것처럼 사냥의 목적을 말하던 중대장에게서 결코 그것이 아닌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기때문이었다.

(야날의 혁명투쟁을 위한 개체의 준비를 위해서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에 오래 묻혀있을 겨를이 없었다.

《가긴 어딜 가? 서라! 셋! 썩 서지 못해?!》

조이빈은 고래고래 소리치다 못해 자기 대원들에게 명령했다.

《빨리 건너가서 붙잡지 못해?!》

그러나 금시 세수를 하다가 물이 툭툭 흐르는 얼굴을 쳐든 세 대원은 최현의 룽룽창은 기품에 위압되어 범접하기가 두려워진데다 무기도 안가진채 살얼음 낀 찬물속에 발을 잠글 일이 끔찍하여 건너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할 뿐이 었다.

최현은 그들더러 보라는듯이 일부러스럽게 총을 두어번 추스려메고 총부력을 틀어쥐었다. 그리고는 더 지체할것도 없다는듯 정진수에게 가자는 눈치를 보이고 제가 먼저 앞장섰다.

정진수는 중대장의 도도한 모습을 보자 마음이 한결 든든해져서 그의 뒤를 따라섰다.

개울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서라!》, 《서라!》,

《돌아서라!》하는 소리가 울려왔다. 그러나 개울 옷쪽에서는 멀어져가는 발자국소리와 함께 액-웨! 하고 가래침을 툴아뺏는 소리만이 거기에 화답하듯 간간이 울릴뿐이 었다.

최현은 한동안 덤덤히 담배를 피웠다. 그러다가 정진수를 돌아보며 느닷없이 물었다.

《동문 사냥미럽을 좀 아나?》

방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것 같은 심상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는 정진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물음은 자신이 할 말의 말꼭지와 같았던것이다.

《사냥을 하자면 짐승들이 붙는곳과 습성을 잘 알아야 하네. 곰이나 범같은 큰 짐승들은 깊은 산에 있지만 노루같은 짐승은 야산을 끼여야 만날수 있네. 그리고 짐승을 찾을 때에는 바람이 부는쪽을 맞받아나가야 하네. 그래야 짐승은 사람이 오는쪽을 모르고있다가 걸리게 되네.》

정진수는 중대장의 목소리를 먼데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들으면서 제 생각에 움하여있었다. 아까는 조이빈의 목소리때문에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중대장의 말이 이제금 깊은 의미를 띠고 머리속에 날날이 밝혀졌다.

(담과 용맹을 키우고 사격술을 높이고 또 몸단련을 위해서 사냥을 간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최현은 자기의 사냥지식을 시위하듯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범을 만났을 때에는 그놈이 먼저 사람을 보았는가, 사람이 먼저 범을 발견했는가를 가려서 쏘아야 하네. 만일 범에게 먼저 발견되었다면 그놈이 먼저 선수를 쓸수 있기때문에 위험하네. 곰을 만났을 때에는 뒤에서 쏘지 말아야 하네. 그놈은 한방 얻어맞으면 뒤편 돌아서서 뛰면서 아무거나 닥치는대로 물어서 태를 치는 습성이 있어서 앞에서 쏘거나 옆에서 쏘아야 하네. 산돼지는 뒤나 옆에서 쏘야 하네. 그놈은 총알을 받으면 곧추 앞으로 달아나기때문에 앞에서 쏘면 덮치울수 있네.》

정진수는 여전히 제 생각에 묻혀있었다.

(그러니 중대장은 혁명대오에 다시 돌아가게 될것을 철석같이 믿고있을뿐만아니라 그날에 짝 울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두자는 속심이 아닌가. 중대장에게 그런 투지를 안겨주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느덧 그들의 앞에 산비탈이 나타났다. 최현은 산길에 들어서자 흑-흑- 나는것 같았다. 굽힌 자욱투성이가 된 군화신은 발이 락업을 파헤치는 소리가 더욱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정진수는 그에게서 떨어질세라 바짝 따라섰다.

3

구레골등판에 온지 사흘이 되었다.

찾나무며 분비나무, 자작나무들이 성깃성깃 들 어선 구름으로 런던한 파도를 이룬 높은 사나이 들 의 기개와 열정을 키워주는 더없이 좋은 훈련 장이었다. 최현은 고기가 물에 든것 같은 기분으 로 온 산관을 돌아다니며 큰 짐승들만 끌라 메돼 지 한마리와 노루 두마리를 잡았고 노루무리를 만났을 때 그가 넘겨준 총을 가지고 정진수도 오 늘 노루 두마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흡족한 기분 으로 한마리씩 메고 너럭바위근처에 돌아온 그들 은 인차 점심을 먹고 다리쉬를 하였다.

그때 어떻게 찾아왔는지 조이빈의 두 대원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 쪽지를 내놓았다. 쪽지를 받 아 쥐고 훑어보는 최현의 더부룩한 눈섭이 한 전 호에서 내민 무수한 총창마냥 뻗뻗이 일어섰다.

쪽지를 본 정진수도 가슴이 뛰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지금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는 마지막기 회를 준다면서 빨리 돌아와서 류하춘 《자위단》 의 소집요일과 탄약고, 식량창고들의 위치를 대 주던가 아니면 그놈들을 치는 전투를 직접 지휘 하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조이빈의 대원들이 돌아가자 최현은 한동안이 나 입을 꼭 다물고 서있었다.

정진수도 수곳이 생각에 묻혀있었다. 사냥을 온 뒤부터는 해종일 짐승을 찾아 산관을 돌아치 다가 밤에는 피로에 몰려 굳잠이 들다보니 지긋 게 달라붙던 운명에 대한 억울하고 비참한 생각 은 간곳이 없고 싱싱한 기운만이 온몸에 차넘쳤 었다. 한데 방금 본 쪽지로 하여 청하지도 않은 그 생각이 또다시 부나비처럼 머리속에 날아든것 이다.

그들은 오후에도 내쳐 사냥을 떠나긴 하였다. 그러나 둘이 다 말이 없었고 늦도록 돌아다녔지 만 헛물만 켜다.

어두워져야 숙영터에 돌아온 그들은 저녁을 먹 고 모닥불앞에 마주앉았다.

정진수는 타오르는 불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려니 또다시 《부나비》가 머리속에 날아들었 다. 조이빈의 쪽지에서 본 《지금 처지에서 벗어 날수 있는… 기회》란 구절이 오만가지 생각을 불 러일으켰다. 정말이지 두루 어떻게 해본다면 무 슨 번통이 생길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는 중대에 가고싶었다. 몹시도 가고싶었다. 그러나 중대장의 속생각을 알수 없으니 안타까웠다. 그는 끝내 참 지 못하고 잠긴 목을 터치였다.

《중대장동지!》

《왜 그러나?》

담배를 피워문 최현은 불길속에 눈길을 던지고 있었다.

《이젠… 쌀은… 두끼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지.》

《성냥은 일곱가치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썼으니까…》

《탄알도 열네알밖에 없습니다.》

《알고있네.》

힘들게 뻤 말치고는 너무도 무심히 받아주는 대답이다.

정진수는 울분이 목을 메워 다음말을 떼지 못 했다. 그때 중대장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왜 그것뿐이겠나. 날씨는 나날이 추워지는데 동무도 나도 아직 여름옷을 입고있지 않나. 게다가 집도 없구 덮을것두 없구…》

중대장의 말에 정진수는 뜨거운 격류가 온몸에 흘러드는것 같았다. 그는 그 충동에 가슴속에 묻 처 저있던것을 터쳐놓았다.

《중대장동지, 이젠 잡아놓은 짐승고기만 해도 우리가 다 처리하지 못하겠는데 자꾸 잡아서 는 뭘 하겠습니까. 이젠 사냥을 그만두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최현의 얼굴에 신중한 빛이 어리었다. 그는 담 배연기를 몇모금 내뿜다가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 다.

《물론 우리 두사람의 반찬감으로는 이미 잡은 것만으로도 넉근하지. 그러구 뭐나 다 떨어져가 고있는 형편에서 여기서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점 점 더 어려워지고있다는것두 사실이구… 하지만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구 풍막으로 내려가겠나. 거기 내려가면 조주임의 성화를 받을건 뻔한 일 이구. 결국 강요에 못이겨 류하춘 <자위단>을 치 구 그것때문에 우사령부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 고 술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에 지장을 주게 만들겠나. 그렇게 혁명에 해를 주면서도 <민생단 >협의를 벗어던지고 중대에 돌아가야만 하겠나. 우리야 그렇게 할수가 없잖은가.》

정진수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고개를 숙이였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삶의 갈림길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정쩡해 있는가가 깨달아졌다.

《진수! 우리 괴롭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여기서 좀더 지내자구.》

최현의 목소리는 후더운 정과 애라는 열망에 차서 울리였다.

《지금 우리 처지에서 혁명에 조금이나마 보탬 을 줄수 있는 일은 사냥을 해서 중대동무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사냥을 혁명과업으로 삼고 좀더 계속하자구 … 그러구 사냥이라구 왔던바에야 범도 한마리 잡아야지.》

정진수는 오늘밤 자기가 한 모든 말이 후회되 었다. 동시에 중대장의 마음속 깊이는 자기로서 는 도저히 헤아릴수 없는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는 사냥의 목적에 대해서 몇차례나 새로운것을 알게 되여 놀랐지만 오늘밤 들은것과 같은, 그 런 깊은 뜻과 굳은 속다짐이 있을줄은 몰랐었 다. 자신을 역경속에 몰아넣으면서도 오직 혁명 의 리익만을 생각하는 중대장의 일거일동을 통하

여 혁명가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가진듯싶었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졌다. 바람에 나무가지들이 웅웅 몸부림치고 불길의 이쪽저쪽으로 날리었다. 완전히 겨울을 느끼게 하는 찬 바람이었다.

최현은 뿌옇게 덮여있는 연기도 아랑곳없이 속연한 낮빛으로 앉아있다가 혼자소리를 하듯 중얼거렸다.

《복판땅은 여기보다 훨씬 더 춥겠는데 사령관 동지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애틀한 정이 울리는 그 목소리에 정진수도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그는 중대장이 복판원정을 떠나가신 사령관동지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방금 한 중대장의 말이 어떤 사랑의 자양분을 받으며 옹터서 자란것인지 그리고 그 말속에 신념과 의리로서 다져진 얼마나 뜨겁고도 숭엄한 감정이 깃들어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었다.

이날밤 최현은 모닥불을 피웠던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으나 온몸을 휩쓸 따듯한 온기속에서도 오래도록 몸을 뒤흔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4

다음날아침 그들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사냥해온 짐승들을 나무가지에 매달아놓았는데 제일 낮은곳에 매단 메돼지의 뒤다리가 없어진것이였다.

메돼지의 몸통이에 난 이발자국이며 바닥에 찍혀진 발자국들을 살펴보고 최현은 대뜸 그 《도적》이 비호산에서 온 늙은 호랑이임을 알아맞혔다. 그놈이 아니고서는 것처럼 높은곳에 뛰어올라 고기를 덮칠수가 없는것이였다.

《그놈이 재미를 붙였으니 오늘밤에도 또 올게요.》

《그럼 다른데로 자리들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정진수의 불안해하는 물음에 최현은 떡심줄게 대꾸했다.

《옮기긴 왜 옮기겠소. 그렇잖아도 범잡으러 가자던 판에 제발로 찾아오는 범이야 여기서 잡아야지.》

이날밤 그들은 나무우에 덕을 매고 거기에 올라 밤을 새며 범이 오기를 기다렸다.

최현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 갈구리같은 그믐달이 사위를 어스름하게 밝히자 산등성이쪽에서 거뿔한 그림자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왔다. 허리가 늘씬한게 늙은 범이 맞았다.

최현은 숨을 죽이고 었디여 총을 겨누었다.

정진수도 눈에 정기를 모으고 중대장의 뒤에 었드려있었다.

범은 두사람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짐승들을 달

아맨 나무밑에 와서 돌아치다가 뛰어오르기에 맞춘한 비탈진 옷쪽에 가서 난딱 주저앉더니 나무우의 고기를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썩-하고 울리 뛰었다. 그러나 메돼지의 뒤다리를 덮치기만 했을뿐 얼마 물어뜯지 못하고 떨어졌다. 범은 땀자리에 돌아가더니 연거퍼 뛰어오르기를 반복하였다.

정진수는 범이 땀자리에 가서 나무우를 노려보며 주저앉는 때가 그놈을 쏘는데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대장도 그것은 알고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마음을 조이며 이제나저제나 하고 총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범이 열번도나마 뛰어오르기를 반복하도록 중대장은 무쇠로 부어만든듯 한본새로 까딱않고 누워있었다.

정진수는 나무우에 올라와 밤을 새우자니 내장까지 얼어드는것 같았다. 그랬으나 그는 참아가며 좀더 기다렸다. 그러나 중대장은 추위도 타지 않는 사람처럼 끄떡않고 누워서 아까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서도 여전히 쏘지 않고있는것이였다.

왜 그럴까? 범이 너무 커서 두려워서 그럴까?

하지만 중대장은 그렇게 큰것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던가. 그리고 사령관동지께서 치하해주셨다는 높은 사격술과 담력을 가지고있지 않는가.

정진수는 더는 참을수 없어 범이 땀자리에 와서 주저앉았을 때 빨리 쏘라는 재촉으로 중대장의 옆구리를 건드렸다. 그러자 중대장은 손을 뒤로 내밀어 정진수의 손등을 지그시 눌렀다. 가만있으라는 뜻이였다.

정진수는 어이없이 제손을 잡아뵈었다. 이러다가는 필경 범을 못잡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생겼다. 아니나다를까 범은 뛰어오르기를 계속하다가 날이 푸름히 밝아오자 산등성이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다 잡은 범을 그냥 돌려보내다니...)

정진수는 장밤 나무우에서 댄것이 분했다. 그는 중대장과 함께 덕에서 내려와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도록 말 한마디 안했다. 그때 중대장이 불길쪽에 잔등을 돌리며 말을 꺼냈다.

《그놈 크긴 크더군. 허리랑 늘씬한게...》

《그런데 왜 쏘지 않았습니까?》

정진수는 시뻘뻘해서 물었다.

《물론 쓸수도 있었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범가죽을 어떻게 총알로 맞구멍을 내서 흠집을 만들어놓겠나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난 그놈을 터럭한대 다치지 않고 산채로 잡아보자는거네.》

...최현은 떡심줄게 말했지만 정진수는 지금 자기들에게 흠집없는 범가죽이 어디에 소용되랴 생각되면서 중대장의 시도가 탄탁히 여겨지지 않아물었다.

《그렇지만 무슨수로 그놈을 사로잡습니까?》

《글쎄 나도 아직은 이렇다 할 방도가 없네. 하지만 어떻게 하나 묘수를 찾아내서 꼭 사로잡아야 하겠네. 동무도 방법을 좀 생각해보라구.》

정진수는 부탁은 받았으나 도무지 시답지 않게 여겨져 머리를 쓸 공리조차 안했다. 그러나 최현은 그것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범을 사로잡는 묘수를 찾아내느라고 담배를 피워물고 모닥불앞을 왔다갔다하다가 몇차례나 재촉을 받고서야 다가와서 아침밥술을 들었다. 그러나 밥술을 뜨다말고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가 하면 식사후에는 또다시 담배를 피워물고 숲속의 나무밑을 거닐기도 하고 짐승들을 달아 맨밀에 가서 땅우에 찍혀진 범발자국을 찬찬히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는 홀연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환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찾았네. 찾았네. 꼭 되네!》

그는 흥분하여 벙글거리면서 자기가 찾은 묘수를 정진수에게 설명했다.

《어떻소. 될수 있겠는지?! ...》

그는 동의를 바라듯 이렇게 물으며 정진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정진수는 중대장이 찾아냈다는 범을 사로잡는 묘수가 어린애들이나 들으면 좋아할수 있는 동화처럼 들리어 신통히 여겨지지 않았다. 그래서 허거픈 웃음을 보이며 미적지근한 대답을 하였다.

《글쎄요, 그게 되겠는지...》

그러자 그의 웃음이 중대장의 기분을 거슬리게 한 모양이었다.

최현은 불끈해서 성을 냈다.

《동문 뭘 못믿는거요. 이 최현이 하자고 결심해서 못해낸 일이 있는줄 아오? 발톱까지 무장한 왜놈의 새끼들도 발밑에 꿰어엮드리게 하는 판에 아무 무장도 없는 범새끼 한마리가 뭐요. 그놈이 아무리 영악해도 난 기어코 사로잡아야 하겠단말이요.》

정진수는 잠자코있었다. 중대장의 말을 미루어보아 그가 범을 사로잡는 일을 지상의 임무로 여기며 기어코 해낼 잡도리라느것이 명백해졌다.

《동문 내가 시키는대로만 하오.》

최현은 웃지도 않고 말하였다.

정진수는 이날 중대장이 시키는대로 곧 바닥에 내려가서 개암나무나 가독나무같은 넓은잎나무 잎사귀들을 뜯어서 한집 골박아지고 올라왔다. 그는 그것을 사냥한 짐승들을 달아맨 나무밑에 두리를 넓게 잡고 여러겹으로 퍼놓았다.

최현은 가마술에 노루가죽을 썰어넣고 그것을 끓이느라고 불길과 연기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갔다. 노루가죽으로 갓풀을 만들고있는중이었다. 저녁무렵이 되어 갓풀이 다 만들어지자 그들은 퍼놓은 나무잎사귀들을 들쳐가며 매 잎사귀에 반숯갈정도씩갓풀을 떠놓았다. 갓풀은 어찌나 겹진겹진한지 그들이 그 일을 끝냈을 때 신발과

바지가랭이, 소매자락에 나무잎이 겹겹으로 달라붙어 한참이나 뜯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차비를 해놓은 그들은 밤이 되자 전날 밤처럼 덕우에 올라가 망을 보았다. 덕대우는 추웠다. 나무가지를 건들건들 흔들며 바람이 불어와 뼈속까지 얼거놓는듯했다. 그런데다 그믐달이 높이 떠오르도록 범이 나타나지 않았다.

(잡거나 할걸 이러는지...)

정진수는 몸이 떨려나자 시쁜 생각이 들어 중얼거렸다. 그러나 최현은 추위도 타지 않는 사람처럼 끔찍않고 누워있었다. 날이 셀 때까지도 그렇게 누워있을듯한 잡도리였다.

어느덧 달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자 정진수는 이젠 안오는가싶어 실망했다. 그런데 그때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어제밤에 왔던 바로 그 범이었다.

두사람은 온몸이 눈이 되어 주시했다.

범은 어제밤 본새대로 땀자리에 와서 난딱 주저앉아 먹이를 노려보다가 썩-하고 울리뛰었다. 그러나 고기를 얼마 씹어내지 못하고 떨어졌다. 범은 그것이 성차지 않았던지 몇번이고 뛰어오르기를 거듭했다. 그러는 사이에 네발의 발톱짹과 다리언저리에 나무잎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흡사 큼직한 설피를 신은것 같았다.

범은 그것이 몹시도 거치장스러운지 처음에는 다리 하나씩을 쳐들고 거기에 붙어있는 나무잎을 주둥이로 뜯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발톱짹에 끼운 나무잎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다 주둥이를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나무잎은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주둥이와 코, 귀, 눈, 온 대가리에 덕지덕지 달라붙기만 했다. 범은 사무러운 성미에 그것을 참을수 없었던지 이번에는 땅에 동을 대고 누워서 발로 대가리에 붙은 나무잎을 뜯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몸뚱이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무잎은 다리나 대가리뿐만아니라 온몸을 두세겹으로 싸버렸다. 범은 자루속에 든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갑갑해서 견딜수 없는지 얄치락뒤치락 몸부림을 쳤다. 허나 매삼을 치면 칠수록 바닥의 나무잎을 모조리 제몸뚱이에 달라붙게 하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었다.

중대장은 벌써 일을 다 성사시킨것으로 생각하고있는듯싶었다. 참아오던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덕에서 내려가자고 하였다.

정진수는 난생처음보는 놀라운 정경에 정신을 흠뻑 팔고있다가 중대장의 말을 듣고서야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눈에 보이는것은 범의 형체가 아니라 제 부아에 악을 쓰며 버둥질치다가 기진하여 배를 풀쩍거리며 누워있는 동덩산만한 나무잎뭉치였다.

《자, 어쩐가!》

최현은 흐뭇해서 중얼거리고는 호박물부리에

담배를 피워물고 득의양양해서 범주위를 돌아갔다. 가슴을 쪽 찢고 의젓해서 걷고있는 그의 걸음새— 그것은 범잡은 포수라는 한마디 말로서는 도저히 그 의미를 다 포괄시킬수 없는 무상의 희열과 긍지가 함뿍 배여있는 그런 모습이며 거동이었다.

정진수는 중대장이 그자신의 기지와 담력으로 범을 사로잡았기때문에 그렇듯 기뻐하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가 범을 사로잡는 묘수를 찾아내고 자기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시답잖게 대답한것을 후회했다.

해가 잣나무가지우에 올라앉았을 때에는 벌써 그들의 앞에 갓 벗겨낸 널직한 범가죽이 놓여있었다. 쇠덩굴같은 줄무늬가 한결 품위를 돋구어주는 흠집하나없는 갈범가죽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들고 골짜기에 내려갔다.

돌서덜이 깔린 개울에 맑은 물이 남실남실 고여드는 물웅덩이가 있었다.

두사람은 거기서 범가죽을 찢었다.

최현은 범가죽에 연신 물을 끼얹어가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나무잎도 뜯어내고 갓풀도 씻어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정히 털가죽을 쓰다듬어 내렸다.

중대장이 이처럼 범가죽에 정성을 쏟아붓고있는것을 보자 정진수는 생각에 잠기었다. 지금 자기들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는것만으로도 다른데 마음을 쓸 여유가 없다. 현대 중대장이 흠집없는 범가죽을 얻기 위해 이처럼 애써온것은 무엇때문인가? 사냥의 취미로만 설명하기에는 거기에 기울인 정성이 너무나 극진하기에 정진수는 묻지 않을수 없었다.

《중대장동지, 이렇게 범가죽을 마련해서 어디에 쓰라고 그러니까?》

최현은 범가죽을 매만지며 말이 없었다. 물위에 떨어진 해빛의 반사광이 마음속에 간직한 사색의 갈피갈피를 헤쳐보이듯 그의 얼굴에서 아롱아롱 춤을 춘다. 그는 이렇게 훌륭한 범가죽을 얻고보니 간절한 심정에 젖어들었다.

(버려어오던것은 이렇게 마련했건만 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탄우속에서 버려여진 탄탄한 가슴은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여 걸잡을수 없이 설레었다. 락엽을 휘몰아오며 서북풍이 불어올 때, 북녘하늘에서 기러기떼가 날아오는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북만땅으로 달려갔던가!

《그걸 한두마디로 다 말할순 없네.》

최현의 목소리는 그윽한 감회에 잠겨 울려나왔다. 그것은 소양청 마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그마한 초가집이었다.

그 밤도 여느날과 다름없는 보통밤이었다.

그러나 최현은 그 초가집에서 보낸 그 밤을 영원히 잊을수 없었다.

신문들과 소책자들이 놓여있는 낮은 책상옆에 등잔불이 켜져있었다. 그 불빛을 온몸에 받으신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젊음과 건강과 열정이 넘치시는 환하신 모습으로 최현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낮에 그가 도착했을 때 동무들을 동녕현성전투에 참가시키자고 불렀는데 그만 연락이 늦어져서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못내 유감스러워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온밤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문제며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 그리고 조선혁명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었다.

최현은 몸소 자기들을 동녕현성전투에 불러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감격하여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그리하여 경건한 심정으로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다가 마침내는 장군님의 넓은 안목과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인품에 현혹되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말았다.

어느덧 자정이 훨씬 지나자 장군님께서서는 오느라고 피곤하셨는데 그만 눈을 붙이자고 하시었다.

최현은 그이의 방에 그냥 눌러있기가 무엄한것 같아 대원들이 있는 품막에 가겠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만류하시었다.

《이제 가서 자는 동무들을 깨우겠습니까. 그럴것 없이 나하고 이 방에서 같이 잡시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고보니 어쩐지 떨어지고싶지 않구만요.》

최현은 장군님의 인간적인 정에 끌리어 그이의 방에서 자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거 덮개가 변변치 못합니다. 이거라도 덮고 누우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모포와 베개를 내놓으시었다. 퍼그나 낚아서 털이 거의 빠진 알박한 모포였다.

최현은 공손히 받아들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최현에게 어서 누우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도 낮은 책상을 구석쪽에 치우고 누우시었다. 그런데 이때 그이를 돌아본 최현은 자신의 실책이 깨달아져 몸둘바를 몰라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그마한 노루가죽을 덮으시고 누워계셨던것이다.

최현은 송구한 심정을 누르지 못하며 모포를 장군님께 올리었다.

《장군님! 이럴수 있습니까. 불빈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일없습니다. 어서 이걸...》

최현의 목소리에서는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과 자신을 타매하는 죄송스러운 심정이 함께 울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었다.

《아, 왜 이러십니까. 여기는 연길과 달라 벌써 선기가 돌아서 밤이면 추운데 덮개없이 어떻게

주무신다고 그럼니까. 나는 여기 날씨에 버릇되어서 일없습니다. 어서 덮고 누우십시오.》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스스럼없이 최현의 상반신을 안아서 자리에 눕히시었다. 그러시고는 모포를 쪽 펴서 가슴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우도록 덮어주시고나서 굽도리를 꼭꼭 여미어주시었다. 그러신 다음 최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의 옆에 지켜앉아계시면서 말씀하시었다.

《판고장에 갔을 때에는 그 고장의 기온에 습관되지 못해서 덮개없이 자자면 감기에 걸릴수 있습니다.

내가 푸르허마울에 처음 나갔을 때 외투가 없어서 맨 교복바람으로 나갔는데 첫날밤을 늙은 랑주가 사는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찌나 구차한지 랑주가 노루가죽 등걸이를 걸쳤을뿐 나한테 덮어줄 포대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복바람으로 누웠는데 그날밤 어찌나 추운지 온밤 떨면서 잠 한잠 자지 못하고 날이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날밤 혼나던 일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후에 어머님께 말씀드려 큼직한 솜뎃저고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걸 입고다니면서 밤에는 덮고도 잤습니다. 그 뎃저고리가 지금은 없지만 그걸 덮고자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어머님사랑이 몸을 감싸주는것 같아 몸이 훈훈해집니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주무십시오.》

장군님께서 최현의 모포자락을 다시금 여미여 주시고 나서야 옆에서 물려나시더니 등불을 끄시고 자리에 누우시었다. 어둑시근한 속에서도 노루 가죽을 덮고 누우신 장군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었다.

방안은 고요했다. 이따금 벽가에서 귀뚜라미우는 소리가 들려올뿐이었다...

《나는 잠을 들수가 없었네. 내 몸이 훈훈하다고 어찌 잠을 청할수 있었겠나. 연길감옥의 얼음장같은 감방속에서 새우잠을 자던 내가 **김일성** 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를 만나뵈옵게 된데다 그이의 은정이 깃든 모포까지 덮고 누웠다고 생각할 때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웠네. 그런데다 조선혁명을 위해 굶은시절부터 온갖 로고를 다하고 계시는 그이께서 덮개도 없이 누우신 모습을 보고는 그이의 전사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덮을것 하나 제대로 마련해드리지 못했다는 송구한 심정으로 더욱 잠을 이룰수가 없었네. 그런데 떠나오는 날 장군님께서 또다시 다태갈보총과 호박물 부리까지 안겨주시니 내 마음이 어떠했겠나.》

최현은 솟구치는 걱정을 건잡을수가 없어 살땀을 몇번이나 꿀꺽거리었다. 그는 감회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일생을

그이의 전사로 살며 싸우리라 굳게 마음다졌네. 그리구 어떻게하나 호피 한장을 마련해서 그이께 올리자고 마음먹었네.

그러다가 이번이야 이렇게 마련하게 된거네.》

최현은 자신도 자기 말에서 뜨거운 충동을 받아 눈곱에 물기가 어려있었다. 그는 호피를 비다듬어 내리던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정진수도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그는 총알구멍이 없는 호피를 구하러고한 중대장의 의도속에 것처럼 뜨거운 심정이 깃들어있을줄은 미처 몰랐었다. 이제금 그것을 깨닫고보니 중대장이 이번에 사냥을 떠나온것은 다른것도 있었지만 장군님께 올릴 이범가죽을 마련하는것이 기본목적이었다는것이 뚜렷해졌다. 그러자 지금과 같은 역경속에서도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그이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중대장의 귀중한 마음—숭고한 의리감에 머리가 수그러졌다.

얼마후 그들은 깨끗이 씻겨진 범가죽을 가지고 골짜기에서 올라왔다.

나무가 성긴곳에 너럭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범가죽을 말리우기 위해 그 너럭바위우에 퍼놓았다.

5

최현은 잣나무뒤에 몸을 붙이고 건너편 산등성이에 보이는 사슴을 조성파 조문우에 올려놓았다. 먼눈에도 흰점들이박힌 밤빛털과 가지가 돋친 호함진 뿔이 분명히 안겨왔다.

최현은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마음이 다급해지는대로 인차 방아쇠를 당길수 없었다. 사슴이 나무열매를 찾고있는지 땅우에 주둥이를 대고 움직이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이것아, 뿔하고있느냐. 내 아무리 네 뿔이 탐난다고 멈춰서있는 너를 쏘 쪼쪼한 사냥군이 아니다. 빨리 좀 뛰려무나.)

최현은 사슴이 움직이기를 바래서 우레를 불었다. 그런데 어때 아래쪽에서 정진수가 정신없이 뛰어오더니 숨이 턱에 닿아 말하였다.

《중대장동지, 조이빈이 그놈들이 끝내 류하춘 <자위단>을 치구...》

《뭘, 류하춘 <자위단>을 쳤다구?》

《네, 그런데 뜻대로 안됐는지 우리한테 뽕풀이를 하자구 여기까지 찾아와서 지금 저 아래서 노루고기랑 범가죽이랑...》

《뭘, 범가죽을?...》

최현은 격분으로 심장이 터지는것 같았다. 그는 정진수의 말을 마저 들을 경황이 없었다. 총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귀바퀴에 바람을 일구며 한달음에 너럭바위 있는데로 달려가보니

《앗!》

범가죽을 한켠에 포개놓고 그결에 둘러앉아 술을 처먹고있는 그 모양.

주독이 올라 벌개진 얼굴들.
자리에 너저분하게 널린 술병과 술잔, 고기 뼈
다귀들.

모닥불우에서 풍겨오는 노루고기 굽는 냄새...
최현은 정신이 왈각 끊어올라 견딜수 없었다.
《이놈들아, 그게 어떤 범가족인데 그걸 깔고 앉
으려는거냐?》

벽력같이 소리치며 들이닥치자 이쪽을 돌아보
는 놀란 눈길들 가운데서 조이빈이 위엄있게 호통
을 뽑았다.

《이건 뭐야?》

그리고는 여봐란듯이 범가족에 손을 뻗었다.
당장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최현이 보는앞에서 뼈젓이 깔고앉으려는 배심이
였다.

《이놈이 아직 정신이 덜 들었구나.

이건 **김일성** 장군님께 올리자구 마련한 범가족
이다. 그런데 네놈이 감히 이걸 어지럽히려구?
이 오만무도한놈!》

《탕!》

《탕!》

《탕!》

런달아 일어나는 총소리와 추상같은 호령소리
에 조이빈은 눈알이 뒤집힐듯이 기겁해서 뒤적거
리더니 손을 움츠리며 물러섰다.

최현은 화살이 쏘어나오는듯한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다가 범가족에 눈길을 떨구었다. 술잔과
술병들이 널려져있기는 하였으나 한켠에 포개놓
은 범가족은 조금도 흠간데없이 본래의 그대로였
다. 그러나 최현에게는 그 범가족에 이미 가지가
없어 보이었다. 장군님께 훌륭한 호피를 마련해
올리자고 했던 그의 마음은 호피에 너절한자들의
손끝이 닿았던것을 보고는 도저히 깨끗한것으로
여길수 없으리만큼 깨끗하고 지극했던것이다. 그
리하여 그는 범가족을 그렇게 만든 사실을 규탄
하듯 서리발이는 눈으로 조이빈을 쏘아보았다.

《그래 류하춘 <자위단>을 쳤다는게 정말이요?》

《사실이요. 왜 기분이 언짢소?... 하긴 그럴테
지. 치라고 지시해도 치지 않은걸 우리가 쳤으니
까...》

조이빈은 제법 혼연한 티를 보이며 이죽거리었
다. 그러나 손가락은 가볍게 떨리면서 헤쳐놓은
앞자락 단추들을 다른 구멍에 채우고있었다.

《하지만 종시 그놈들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쥐
지 못해서 총소리만 요란하게 울리고 허탕치고
돌아왔소.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저지른 그 모든
죄파를 계산하자구 찾아왔소.》

《주제님은 소린 걸어치워라. 언제부터 네놈의
해독행위를 발가놓자고 했던건 바로 나였다.》

《뭐, 해독행위?》

《그렇다. 해독행위다.》

《이거 말본새가 교약하다.》

《교약한게 아니라 정확히 말한거다. 우리는 이
곳에 와서 여러 산림부대들과 통일전선을 맺자고
했다. 그래서 우사령부대와 공작해서 반은 성사
시켜놓았다. 그러는판에 류하춘 <자위단>을 치라
구 강박하다 못해 오늘은 제손으로 가서 치기까
지 했으니 그렇게 해서 얻어질것이 무엇이냐? <
자위단>에 움트기 시작했던 반일의 싹을 무절려
버린건 둘째치고라도 그들과 친한 사이로 지내는
우사령부대에 우리에게 대한 불감을 던져주었을건
뻔한 일이구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와의
통일전선을 거부해나설뿐만아니라 그것이 다른
산림부대에도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통일전선사
업에 지장을 주는것밖에 더 있느냐. 네놈이 꾀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 내가 그걸 꿰뚫어보지 못해서 네놈의 지
시를 그대로 받아물줄 알았더냐?》

《이제와서 어디다 둘러대자는거야?》

조이빈이 불끈해서 어성을 높였다.

《둘러대는게 아니라 정통을 맞힌거다.》

최현은 단마디로 일축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작년 9월에 친히 우리 중
대를 동녕현성전투에 불러주셨을뿐만아니라 나한
테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해주시었다. 장군님의 믿음과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내가 장군님의 반일통일전
선로선을 지켜 싸우는것은 그이의 전사된 첫째가
는 본분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본분을 지켜 네
놈이 뭐라고 지시하든 관계없이 류하춘 <자위단>
을 치지 않았다.》

그걸 퍽잡고 네놈이 우리에게 <민생단>혐의를
뒤집어씌웠지만 우린 장군님의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벼랑끝에 내세운다 해도 무서울것도 없고
두려울것도 없다.

한데 네놈이 우리에게 시키다 못해 제손으로
자위단을 쳐서 통일전선사업을 해치려고까지 했
으니 이 분별없는놈아! 내 오늘 너에게 푹푹히
말해주마.

지구가 산산조각이 나도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로선만은 끄떡하지 않아. 그건 가장 정당한 진리
이기때문이야. 한데 네가 감히 그분의 통일전선
로선을 헐뜯어보겠대구?

이 쥐새끼같은놈아! <민생단>혐의가 아니라 천
하없는 별길 뒤집어씌운다 해두 장군님을 받드는
우리 마음을 혼들어놓지는 못해. 주눅이 들게 하
지는 못해. 알겠느냐. 이놈!》

정진수는 중대장의 마음에 공감되어 후더운 눈
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이빈과 그의 대원들이 풍지가 뻗뻗해서 도망
쳤다. 몸에서 덜컹거리는 무기며 장구류들이 그
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에익, 무서운 사람! 지독한 사람!》

하고 웨쳐대는것만 같았다.

이윽고 주위는 조용해졌다. 그러나 치솟는 의문을 녹찾힐수 없는지 최현의 안면근육이 오래동안 푸들푸들 떨리었다.

정진수는 아직도 방금 있는 일의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이 시각에 와서야 비로소 중대장이 가지고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중대장의 일체를 안것같이 느껴졌다. 그것은 중대장이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있기때문에 그렇듯 힘있고 굳센 존재로 될수 있었다는 그것이였다.

양자툰벌판에서 본 백년목은 느티나무는 땅속깊이 뿌리를 내렸기때문에 모진 광풍속에서도 꺾이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거연히 서있었다.

정진수는 중대장의 모습에서 그 느티나무를 상기했다. 일편단심 장군님만을 믿고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한생을 다 바쳐 싸우리라는 철석같은 신념—바로 그 신념이 마음속에 튼튼히 뿌리박혔기때문에 중대장은 장군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것처럼 견결히 싸웠을뿐아니라 《민생단》 혐의를 받은 때에조차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장군님께 올릴 범가죽을 마련할 궁리까지 할수 있는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리고 의리로 하여 더욱 튼튼해진 혁명적 신념이 있기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담력과 투지, 열정, 기백과 같은 훌륭한 가지들이 자라올라 중대장의 생활을 의의있고 보람찬 세부들로 충만시키는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정진수는 중대장의 그 모든것을 통하여 혁명가의 진실한 갖춤새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깨

달은듯싶었다. 그리하여 지난날의 자신을 부끄럽게 돌이켜보는 동시에 앞날의 속다짐을 새로이 하였다.

×

눈이 내린다. 시야에 희뿌연 눈의 장막을 드리우며 철기 이른 함박눈이 평평 쏟아진다.

숲속에는 삽시간에 눈을 수북이 들썩 나무가지들로서 이루어진 설경이 펼쳐졌다.

최현과 정진수는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구레골등판을 내리고있었다. 조이빈이 《자위단》을 친것으로 하여 그들과 련계를 맺고있는 우사령부대가 유격대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을수 있으므로 그들을 설복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는 길이었다.

두사람은 이미 쌓은 다 떨어졌고 총알은 세알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다 우사령부대에 가서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할 위험한 정황에 부닥칠지도 모른다. 것처럼 준엄하고 간고한 길을 누가 가라고 시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곳을 향하여 걷고 또 걸었다.

우사령부대의 감정이 나빠졌다는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둠으로써 광범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에 지장을 주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승고한 자각—혁명적 량심이 그들의 몸을 다 함없는 힘으로 떠밀었다.

두사람의 앞길을 축복해주듯 티없이 흰 눈송이가 그들의 머리에, 어깨에 하염없이 내려서 덮이였다.

가사

병사들의 어머니

리명근

들끓는 룡라도 건설장으로
어머니 한분이 찾아왔다네
건설자 병사들 반겨맞으니
아들이 보고파 달려왔대요
아, 아들이 그 누구일가

아들이 누군가 물어봤더니
웃으며 식당을 찾아가겠지
어머니 울리는 칼도마소리

고향집 정성을 실어왔다네
아, 누구의 어머니일가

푸짐한 식탁에 불러앉히고
병사들 모두가 아들이래요
인민의 그 사랑 곁에 있기에
병사들 위훈을 떨쳐간다네
아, 어머니 우리 어머니

고마운 우리 법

방정강

항용 사람들은 우리 세상이 상으뜸으로 좋고 이 세월이 하중다고들 말하는데 그 으뜸가는 세상, 그 좋은 세월이라는 말마디에는 우리 법이 좋다는 뜻이 다분히 담겨있다. 머리 들면 물결레로 맑끔히 닦은듯한 파아란 가을하늘

바라보면 불어오는 금풍에 알찬 이삭을 찰싹이는 풍요한 황금의 대지.

저 하늘 이 대지를 그 아무런 구속도 받음이 없이 자유로이 명상에 잠겨 행복히 바라볼수 있는 권리도 바로 고마운 우리 법이 있어 누릴수 있는 기쁨이기때문이 아닌가.

내 걷는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온갖 혜택을 빗살처럼 뿌려주는것이 우리 나라 법이다.

원래 법이라는 말을 옛세월들에는 내려누르고 다스린다는 뜻으로 또 <통치>라는 어마어마하게 공포에 사로잡히는 말로 들어왔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이라는 말은 받들고 지킨다는 뜻으로 그 의미가 사랑스럽게 바뀌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은 로동계급의 국가인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태어난 새형의 법입니다.》

새형의 법.

근로인민의 사랑받는 고마운 우리 법!

얼마전 나는 《모범준법군》인 고향에 찾아가서 우리 법에 대한 고마움을 사뭇 느끼었다.

렬차에서 내려서니 한줄로 렬을 지어 개찰구를 나서는 렬객들의 정연한 모습이며 교통질서를 스스로들 지키며 거리를 확보하는 고향사람들의 밝고 명랑한 얼굴들에서 《모범준법군》이 된 고향에 대한 자랑과 긍지감으로 못내 가슴부풀었다.

아담하게 꾸린 군의 읍거리와 농촌마을을 돌아보며 나는 우리 법을 잘 지키며 향토를 꽃피우는 고향사람들이 자랑스러웠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마을의 관리위원장 김동무는 나에게 날로 꽃피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허참, 나도 이젠 정신이 들었네. 법을 어겼다가 하마트면 그 덕범령감한테 혼날뻔했거든.》

이렇게 말폭지를 때는 김동무의 얼굴엔 느슨한 미소가 어리었다.

지난 이른봄 어느날이었다.

자전거를 타고가는 김동무의 바쁜 걸음을 무작정 막아나서는 칠순로인이 있었다. 로인은 다짜고짜로 김동무의 손을 잡고 길 한켠 나무밑으로 끌고갔다.

《임자, 그래 무슨 처사를 그렇게 하나?》

《아니, 무슨 일인데요?》

청서리벌에서 한뼉 땀을 가꾸며 살아오다 이젠 나이들어 농장일에서 손을 놓았으나 덕범로인은 황소처럼 모두숨을 쉬며 관리위원장을 걸고들었다.

《...그 안골에 있는 농경지를 조림작업반에 넘기면 어떻게 되나? 아 어린나무모발이야 새땅을 찾아서 해야지. 이걸 <토지법>에 어긋나는 일이네...》

덕삼로인의 사리에 맞는 비판에 관리위원장은 얼굴을 붉히며 눈길을 떨구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을 쉽게 하고 자기의 낫을 내려했던 옳지 못한 행동이 뼈저리게 가책되었던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뒤 관리위원장은 팔소매를 걷고 앞장서서 어린나무발을 새로 일쿠었고 산비탈밭들은 비물에 패이지 않게 돌담도 그쯘하게 둘러쳤다.

나라법을 잘 지키는것이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논밭을 꽃밭처럼 알뜰히 다루며 농장재산도 제집 물건처럼 귀하게 들 여졌다.

법은 내 고향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다.

삶의 기쁨을 주었다.

나는 관리위원장 김동무와 함께 농장벌을 돌아보며 법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굴러봤다.

인민의 진정한 주권이 없던 지난 세월 사람들은 《법》이라는 말을 그 얼마나 무서운 말로 여겼던가.

수천수만년세월 《법》은 인간의 운명을 룡락하였다. 자산계급이 만든 그 《법》은 모두 인간을 노예로 얹매기 위한 울가미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리해되는 살뜰한 존재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법이 자기들의 머리우에 하늘처럼 얹혀져 보호의 빛발을 뿌려주고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인민이 사는 거리와 마을엔 언제나 맑은 공기가 차넘쳐야 하고 인민이 걷는 길가엔 꽃이라든가 제일 아름다운 꽃이, 향기라면 제일 진한 향기가 풍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 법의 리념, 우리 법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같이 공정한것이 우리의 법이다.

우리 인민은 생활에서 참되고 옳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법이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고 존경담아 부르고있다.

이 말은 법을 그 어느 심산속에 홀로 있어도 자각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참으로 근로하는 사람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주는것이 우리 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은 무르지 않다.

우리의 법은 계급적 원수들,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가차없이 내린다. 원수들에겐 《인민의 이름으로》라는 불같은 말로 드센 철추가 내려진다.

우리 법은 조국을 받드는 억척같은 기둥이다.

나라를 그지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피

여남이다.

끝없는 행복의 뿌리이다.

이 고마운 법을 제정하여주신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조국을 위한다고 말하는 그 참의미를 깨달았다. 조국을 진실로 사랑하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의 고마운 법, 새형의 제일 좋은 법을 시각마다 걸음마다 잘 지켜야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며 준칙인 새형의 제일 좋은 우리 나라 법!

이 위대한 법으로 하여 우리 세상은 상으뜸으로 좋고 우리 세월은 사람마다 노래하는 제일 좋은 세월이다.

주체의 법, 우리 법을 믿고 지키며 한생을 깨닫기 조선공민의 영예를 떨치며 살아가련다.

곤장덕의 이깔숲 외 1편

리동후

찌는듯 한낮의 고요가 깃들여

실바람 한점 불지 않아도

곤장덕의 푸르른 이깔숲은

하순간도 진정 할줄 모른다오

싱그러운 숲속길 오르면서

다시 보아도

노을비낀 등판길 내리면서

다시 보아도

끝없이 끝없이 설레인다오

보천보 밤하늘에 타오른

그 거세찬 불길의 화광

장군님 우러러 목메여 터치던

겨레의 만세소리

영원한 소생의 환희로 안았다오

아, 그 환희, 그 감격

가지마다 잎새마다 실려

그날부터 사시장철 설레인다오

푸른숲은 의연히 력사의 증견자로

곤장덕의 새 전설을 전하며 설레인다오

총탄자리

아마도 그 몇세기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어도

여기에 남아 지울수 없으리

《경찰관주재소》 벽체를 꿰뚫은

보복의 총탄자리

민족의 원한을 재워

일제의 소굴을 불바다로 휩쓸던

투사들의 숨결 이 가슴에 격랑으로

솟구치나니

오, 보복의 총탄자리 너는 오늘도

지울수 없는 당부를

날카로이 새겨주누나

찾아오는 천만사람들을 불러세우며

평화로운 나날에

한생의 총화를 생각지 말리고

원수없는 이 땅 하나의 조국 위한

그 성스러운 사명 다하기전에는

참된 인간의 모습

주유훈

인간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한생에서만 아니라 생활의 하루하루가 주는 질문과 대답이기도 하다는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것이다.

내가 사는 인민반에 신여덱에 난 기계공장 노동자가 있다. 경충한 키에 뒤통거리느것 같은 걸음새에 어깨에는 수수한 멜가방을 메고 다니는 그를 나는 별로 주의해 보지 않았다.

어느 휴식날. 나는 그와 낚시터에서 만나 하루를 같이 지내게 되었다. 이날에야 비로소 나는 그가 전쟁때 최전선에서 싸웠다는것, 체대후 30여년 줄곧 한 기계공장에서 열관리공으로 일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전투담을 정했다. 중상당한 전우를 업고 사선을 뚫으며 적후습격에서 돌아오던 때의 일... 가렬치절한 고지방어전투... 까칠봉, 칼롱선 등 유명한 지명들... 평범하게만 보아온 이 사람의 비상한 체험을 듣게 된것이다. 작가적인 호기심은 둘째치고 인간적인 깊은 존경심을 품고 그의 얘기를 들었다. 항상 직업적인 타성으로 인간의 성격을 탐구한답시고 그런 리상형의 인간들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때로는 기차를 타고 멀리로 다니면서 찾으려 했던 작가로서의 자신을 돌이켜본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10년동안 한현관에 살면서도 별다른 사람으로 보고 단 한번의 따뜻한 상종조차 하지 않은 나로서는 이 사람앞에서 깊은 자책에 빠지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그한테 물었다.

《그때 부상당했던 자리가 그후 도지진 않았습니까?》

《필요. 별루 크게 다치지도 않은걸...》

그는 웬일인지 말꼬리를 사렸다.

내가 그더러 영예군인공장에서 근무하는것이 좋지 않는가고 했더니 그는

《정을 들인 일터가 제일이지요. 난 보이라 돌리는 기술을 놓기 아쉬워서...》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의 어느날 저녁인데 그가 나를 자기 집에 초청했다. 알고보니 전쟁때 헤어졌던 옛 전우가 찾아온것이다. 35년만에 있는 감격적인 상봉... 나도 덩달아 흥분되고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찾아온 전우가 바로 우리 이웃사람이 목숨을

걸고 적후습격전투때 업어내온 그 사람이었던것이다. 이야기는 그칠새없이 두사람 사이에 오고 갔고 나는 감격하여 그저 중간에서 듣기만 했다.

한데 나는 여기서 뜻밖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우리 이웃인 열관리공아바이는 당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년동안 영예군인수속도 하지 않고 대우도 안받는다느것이였다. 이웃으로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있을 나는 그만 손님앞에서 얼굴이 뜨거웠다.

손님은 가슴에 단 자기의 영예군인메달을 손으로 두드리며 부르짖었다.

《내가 영예군인이라는 이 메달엔 자네의 피가 스며네. 나를 구원해주다가 다리에 부상까지 당한 자네가 영예군인대우를 받지 않고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넨 나를 뭘루 만들어 놓는가말이야.》

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나의 이웃은 말했다.

《나는 자네보다 달라. 자네 부상은 심했지. 나한테 아직 그게 필요없네. 로동능력이 상실될 때면 어쩔는지 몰라도...》

나는 크나큰 충격을 안고 현관밖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그것은 마치 인간생활의 온갖 사연을 끝없이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권리와 공명은 밀어버리고 오직 의무와 량심으로 성실히 살아온 사람... 그와 한 인민반에 사는 내자신이 행복하게도 느껴졌고 그런 인간을 알게 된것이 무척 흐뭇하기도 했다.

권리가 생기면 그것부터 찾으려들고 직위가 올라가면 특세를 부리려는 현상이 아직도 영 없어지지 않았다고 할때 나와 한현관에 사는 영예군인-숨은 애국자의 고결한 도덕적 성품은 인간의 참된 가치로서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것이라고 생각했다.

흔히 우리는 권리를 찾기전에 의무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진리를 온 일생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사람을 나의 가장 가까운곳에서 보게 된것이다. 비록 출근길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조차 그저 스쳐볼수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평범한 50대, 60대인간들을 무심히 대하지 말자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따라 우리 혁명의 준엄하고도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오며 인간의 참된 가치를 빛내이는 그들 매 개인에게는 비상한 이야기들이 있음을 잊지 말자...

인간의 도덕 외 1편

오영재

사람이 사람으로 살며
지켜야 할 그 모든것
법에 자기의 조항으로 못다 밝히고
못미친 생활의 구석을
도덕이 환히 불을 켜고있다

그 불빛은
자기의 량심과 사람들의 눈
그것이 때로 법보다 더 무서운것이거니
사업에서 실패는 만회할수 있어도
한번 저지른 도덕의 실패는
일생을 두고 회복하기 어렵더라

안전한 대피호를 제 먼저 차지해
함께 간 전우가 희생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 사연 알길 없고
자서전의 글줄에도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어도
두고두고 량심의 회초리가 그의 가슴을 때려
그의 한생은 아픔속에 흘러가더라

불뽕는 화구를 몸으로 막지 않았다고
그 전사 군법에 위반되었을것인가
물에 빠진 아이들을 건지려
남먼저 얼음구멍에 뛰어들지 않았다고
한 젊은이 법의 판결을 받게 될것인가

사람이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것
직위냐 권세냐
아니여라 그의 마음에서 도덕이 빛날 때
인간이 인간으로 존경을 받을수 있고
직위 높은 일군이 멀리 당할수도 있어라

사람이 자기를 단장한
량심의 옷— 그것이 도덕
그 옷을 벗어던진다면
사람에게 무엇이 남는것인가

동지를 위해 도덕을 지키라
인민을 위해 도덕을 지키라
조국앞에 후대앞에 지닌 도덕을 지키라
이 도덕이 기초로 되지 않을 때
어려운 날에 당도 조국도 배반하지 않으리라
그 무엇으로 담보할수 있을것인가

아름답게 살자
빛나게 살자
젊은날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늙은날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한생을 보람높이 살고싶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있으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는 보았다
지나가던 승용차 한대 몇어서더니
한 일군 차에서 내려
지나가던 한 낚시군로인에게
모자 벗고 정중히 인사 드리는것을

—선생님
저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성남인민학교 축구선수 9번
최문철입니다

그 시절의 교장
오늘의 년로보장자인 낚시군로인은
반가워 손을 잡고
주름 많은 눈엔 눈물까지 글썽했네
-장하네 장해
나라의 큰 일을 맡아보고있다니

기쁘네 정말 기쁘네

무슨 말이 더 오고 갔는지
내 지나쳐 들을길 없었어도
가다가 되돌아보니
일군은 옛 스승앞에서
그날의 학생처럼 서있었네

그것은 마치
꽃이 땅을 향해
뿌리에게 인사를 드리고있는것 같았네
화려한 건물이
자기를 고여준 주춧돌에게
감사를 드리고있는것 같았네

생각노니, 생활이여
그래서 너는 균형형을 이루고
높낮은 사람없이 그 모두에게
기쁨과 자라는 고르로이 차폐지거니

사람들 그것을 잇는다면
그 누가 래일에 필 꽃의 뿌리가 되어주라

그 누가 래일에
세워질 건물의 주춧돌이 되어주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 요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 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뜻깊게 기념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강령적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전투를 벌리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기 위하여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는 1988년 9월 9일을 앞두고 전국 방송극작품 현상모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한다.

1. 현상모집작품의 종류

방송극, 방송소설, 방송시극, 경방송극, 풍자극, 아동방송극, 연속방송극 《유쾌한 길동무》, 연속 아동방송극 《억남이와 재동이》, 짧은극, 재담.

2. 현상모집작품의 주제

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조국을 《주체의 조선》으로 빛내여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주제로 한 작품.

②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

③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혁명전통과 그를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 대중적 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을 일으킨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④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당의 따

뜻한 품속에 사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려는 충성심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작품.

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에서 발휘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로력적 위훈, 숨은 영웅들과 애국자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

⑥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를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3. 응모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면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4. 응모작품을 보낼곳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문예국 앞으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지고 올수 있다.

절봉에는 《현상응모작품》이라고 밝히고 원고에는 응모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직장, 직위, 집주소를 써야 한다.

투고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응모작품현상모집기간

1987년 8월부터 1988년 7월까지

6. 응모작품 심사결과 발표

1988년 9월 9일을 전후하여 방송과 신문, 잡지들을 통해 발표하며 응모작품 가운데서 당선 수준에 이른 작품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방송하도록 한다.

당선자들에게는 해당하는 시상을 한다.

위훈의 날개

리기창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빛나는 위훈이 창조되고 평범한 인간들이 영웅으로 자라나는 것이 새로운 탄생의 송가로 증만된 우리 시대의 벽찬 현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무들은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뜨거운 신임과 믿음! 그것을 자양분으로 하여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웅적 위훈!

참으로 믿음과 위훈은 서로 뗄수 없는 련관속에서 《80년대속도》창조의 불바람 휘몰아치는 장엄한 진군길우에 수놓아지는 우리 시대 영웅서사시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나는 의미심장한 이 생활의 진리를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주강직장 주형1작업반장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인 조종길동무에 대한 취재과정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후리후리한 키에 보통정도의 보기 좋은 체구, 따뜻한 인정미가 조용히 넘쳐흐르고 이따금씩 예리한 지혜의 불꽃이 튀기듯살은 눈매며 부드럽고 나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저력이 느껴지는 은근한 목소리, 귀밑머리에 알릴듯말듯 흰서리가 내려기 시작한 50대의 평범한 사람...

그런 그가 어찌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으로까지 될수 있었는가.

이미부터 그를 뜻났이나 알고있는 정도의 나로서는 각별한 호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을수 없었다.

하기에 얼마전 그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자 흥분을 견잡지 못한채 서둘러 룡성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계절은 겨울이라 하지만 레년에 없이 푸근한 날씨였다. 하늘은 끝간데 없이 높고 푸르렀다. 성천강변을 지나 룡성땅에 들어서자부터 그 어떤 후더운 열풍이 겨울의 랭기를 가뭇없이 밀어버리는듯 화끈 단 쇠내가 온몸을 휩싸았다. 집채같은 대형 기계들과 3천톤프레스를 비롯한 크고작은 프레스며 공기함마들의 각이한 동음들이 장중한 화음을 이루며 대진군의 북소리를 열정적으로 탄주하는듯 싶었다.

내가 찾아가 1주강직장의 주형작업장 역시 다를바가 없었다. 지난날 1만톤프레스의 육중한 주강품들을 《협동주조》의 방법으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부어냄으로써 수없이 영웅적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 온 주형작업장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맡겨주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온 나라 공장과 기업소들에 보내줄 대상설비의 주강품을 더욱 앞당겨 부어내기 위하여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있었다.

다.

땡-땡-땡- 신호종을 울리며 천정기중기가 쇠물남비를물고 날아와 주형틀에 빨긴 쇠물을 연방 쏟아붓는가 하면 한쪽 주형장에서는 얼굴에 땀기가 번들거리는 주형공들이 다짐봉질을 세관게 해대는중이었다.

내가 도료를 혼합하고있는 낮익은 김도함동무에게 반장동무가 어데 있느냐고 묻자 그는 주형공들과 함께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주형틀을 손질하고있는 사람을 가리키는것이였다. 그제야 눈여겨보니 키가 흰칠한 반장동무가 분명했다.

얼마전에 로력영웅의 고귀한 영예를 지닌데다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된 그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반원들과 어울려 충성의 더운 땀을 뿌려가고있는 모습을 대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금 우리 반장동무는 아직까지 대형주강품에는 받아들일수 없었던 새로운 주형법을 저처럼 웅장한 판압연기본체주형에 대담히 도입하고있는 중이웨다.》

감동어린 눈을 습벽이며 서있는 나에게 김도함동무가 귀뜸해주는 말이였다. 알고보니 소형주강품생산에만 도입하던 새로운 방법을 대형주강품에 받아들이면 주형시간을 2배로 앞당길수 있고 제일 품이 많이 드는 사락공정을 간단히 할수 있게 되는것이였다.

나는 전혀 새로운 혁신안을 대담하게 실행하고있는 조종길반장동무의 긴장한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것으로 하여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주형다짐과 매질을 마친 반장동무는 자기가 새로 혼합하여 만들어낸 특수도료를 주형표면에 알심들여 발랐다. 그렇게 하면 종전처럼 주형표면에 대한 건조공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였다.

나는 그의 드바쁜 일손을 중지하고싶지 않아 입을 봉한채 원료를 섬겨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얼마나 일에만 전심하였던지 나를 거들떠보지도 차 않았다. 아마 자기네 반원으로 알았던 모양이다. 그의 일손은 마치 요술사의 손길을 련상시킴 주형틀을 껌싸게 어루무며 미끄러져가군하였다.

그가 일손을 털고 일어설 때에야 나는 인사를 건넸다.

《반장동무, 수고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를 알아본 그는 반가운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여보이더니 휴계실쪽으로 스틱스적 걸어가는것이였다. 파묵하고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라는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곧 그를 따라 휴계실로 들어갔다. 그는 내가 내미는 담배를 말없이 받아물었다. 그러자

나는 제빨리 취재수첩을 펴들고 그 어떤 영웅적 위훈을 세웠기에 그런 영광을 지니게 되었는데에 대하여 이야기해줄것을 청하였다. 했으나 그는 담배만 푹썩썩 피울뿐 아무런 대책도 없다. 내가 몇번 졸라서야 마지 못해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당에서 나를 믿구 시키니 해놓은거지요. 정말 자기 자랑할건 한가지두 없수다.》

너무나 소박하고 겸손한 대답에 나는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숫제 자기에 대한 말은 하지 않을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탄산수를 물잔에 따라 권하더니 수첩에 무엇인가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지혜의 불꽃이 튀기는것만싶었다. 머리에 섬광같은 착상이 번뜩 떠오른 모양이였다. 나는 그의 사색을 깨뜨릴것 같아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바라보고있었다. 얼마나 도면그리기에 몰두했든지 담배불이 다 타들어가 손가락을 뜨겁게 했을 때에야 재떨이에 비벼졌다. 내가 《저…》하고 말버리를 떼려는데 문이 열리더니 설계원이 들어섰다.

《반장동무, 잠깐만 시간을 내서 도와주십시오.》

귀밀머리가 희석희석한 나이든 설계원은 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더니 도면초안을 펴보였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 보내줄 대상설비에 대한 목형설계초안이었다.

조종길반장은 그 도면을 훑어보고나서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건 두토막으로 할것이 아니라 통채로 하우. 그래야 기일두 앞당기구 질두 보장할수 있수다.》

《주형에서 걸리지 않을가요?》

설계원이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건 우리가 할테니 녀려할것 없수다.》

설계원은 몹시 기뻐하며 뛰어나갔다. 그러는데 이어 주장로의 로장이 들어섰다.

《반장동무, 이번 주형틀을 좀 토론하려고 왔소.》

《그러치 않아도 지금 찾아가려던 참이요.》 하고 반장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동실한 처녀가 나타나더니 지배인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일렀다. 나는 반장동무를 따라갈수가 없었다.

(반장동무는 잠시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비록 취재는 아직 하지 못했으나 방금 그를 대하는 순간 무엇인가 나를 흥분시키는것이 있었다. 결보기에는 무뚝뚝한것 같으나 그의 심장속에 순간도 멈춤없이 열정의 파도가 세차게 뒤끓는것이리라. 하기에 나는 그에 대해 좀더 깊이 알고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간접취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김도함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다른 사람들을 만났었다. 그 과정에 반장동무에 대하여 여러모를 알게 되었다.

…그는 량포바다가의 가난한 고용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겨우 생을 부지해왔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엔 미

제공중 비적들의 폭격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였다. 하지만 어머니당은 의지가 없는 그를 자애로운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공부까지 시켜주었다. 벅찬 노동생활의 나날 대상설비생산의 앞장에 그를 세워주었고 작업반장으로, 당원으로 키워주었다.

당의 믿음과 사랑에 가슴뜨거워 그는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왔다. 그러던 몇해전 몸소 룡성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별로 크게 한일도 없는 그를 몸가까이에 부르시여 기념사진을 함께 찍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에 내 모든것을 다 바쳐가리라.)

그는 뜨거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이렇게 되뇌이며 일손을 더욱 다그쳐나갔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성차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갑절 일을 해제끼면서도 작업반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일들을 완강하게 밀고나갈뿐아니라 새로운 기술 혁신안을 무르익히기에 여념이 없는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새달계획을 받게 되었는데 전달에 비하여 월계획이 훨씬 낮았다.

그의 낮빛은 심각해졌다.

《이달엔 좀 쉬엄쉬엄 일해도 넉넉하겠군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맞갖잖은 눈길을 던지더니 계획서를 움켜쥐고 곧장 사무실로 뛰어갔다. 직장장에게 직관 들이대었다.

《작업반계획을 왜 낮추었습니까?》

《허허…그건 이달에 로의 대보수도 있구… 좀 조절하라는거요. 이 기회에 반장동문 휴양을 가보오.》 하고 직장장은 그앞에 휴양권을 내놓았다..

《뭐라구요? 그건 절 생각하는게 아니라 매질하는거요.》

그는 두말없이 주형장으로 달려나가 다짐봉을 역세계 틀어잡고 더운 땀을 흠뻑 흘렸었다.

바로 그무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일터에 찾아오시여 1만톤프레스를 만들데 대한 크나큰 믿음과 신임을 안겨주시었던것이다.

반장동무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걱정과 파도로 뒤설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를 굳게 믿으시고 이처럼 큰 과업을 맡겨주시었구나!)

그는 흥분으로 뜨거워오르는 가슴을 걸잡지 못한채 그길로 지배인을 찾아가 자기의 의견을 기탄없이 말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룡성사람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었는데 다른데 손을 내밀지 않고도 아무리 어렵고 큰 주형품이라도 우리가 기어이 맡겠다고 했다. 그는 일체 주형품을 자체의 힘으로 부어내기로 결심한것이였다.

도면과 목형틀을 받아안은 그는 담이 대번 커

지는것 같았다. 그것도 그럴것이 주형장이 생긴 이래 것처럼 커다란 주강품을 부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것이다. 설계대로 하자면 1만톤프레스의 어마어마하게 큰 소재를 세운 상태에서 부어내야만 하였는데 높이가 하도 높아서 천정기중기로 쇠물납비를 가지고 도저히 부어넣을수 없게 되었다. 주형장밑바닥을 굉장히 넓혀야 하는데 그러자면 막대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기일을 보장할수 없다.

반장동무는 이 문제를 두고 여러날동안 거듭 모색하고 방도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럴 때마다 한일도 없는 자기를 몸가짜이 세워주시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과 일터에 오시여 1만톤프레스를 만들어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렁이 떠오르곤 하는것이였다.

(그 믿음과 사랑에 보답 못한다면 내가 무슨 당원이라.)

그는 심혈을 기울여 고심한 끝에 드디어 새로운 방법을 착상하는데 성공했다. 아직까지 주형방법 해서 있어보지 못한 대담하고 새로운 방안이였다. 그 대담한 착상은 실로 주형에서 놀라운 기적을 낳게 하였고 1만톤프레스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완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아직도 무엇인가 해놓은 일이 적은것 같기만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만톤프레스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마쳤을 때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였고 그의 혁신안에 발명권까지 안겨주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였다. 참으로 자기의 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가슴벅차게 차려진 뜨거운 사랑이였다.

《우리의 계획수행률은 어제와 오늘의 프로수가 같아서는 안되오. 날을 따라 더 높아져야 하오.》

작업반에서 그가 세운 목표는 그의 말대로 나날이 높아갔다. 그 과업을 어김없이 실천해나가면서 또다시 새로운 혁신안을 완성해놓았다.

(친부모의 사랑조차 모르던 내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로력영웅으로까지 되다니... 내 몸과 마음 다바쳐 이 은정에 기어이 보답하리라.)

이러한 굳은 결심을 지닌 그였기에 놀라운 위훈을 창조해도, 일에서 남다른 능률을 내도 만족할줄 몰랐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김도함동무는 나에게 말하는것이였다.

《많은 기자들이 우리 반장동무를 찾아와 그의 영웅적 위훈에 대하여 취재하려 하였지만 반장동무는 줄곧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 말을 듣고보니 반장동무를 만나 물었을 때 마치 못해 한마디하던 모습이 불현듯 상기되었

다.

(반장동무가 창조하는 위훈의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굴리는데 갑자기 작업장쪽에서 야무진 호각소리가 울렸다.

《반장동무가 주형작업을 시작하는가봅니다.》

김도함동무가 이렇게 말하며 일어나 작업장으로 나가자 나도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작업장에 들어선나는 신호기와 호각을 들고 작업대우에서 작업지휘를 하고있는 조종길동무를 보았다. 50대 나이치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왕성한 패기와 젊음이 넘쳐흐르는것 같았다.

그의 날과람있는 신호와 지휘에 따라 천정기중기가 물고온 쇠물납비에서는 붉은 쇠물줄기가 주형입구로 쏟아져내렸다. 이윽고 불보라마냥 무수히 튀겨나는 불꽃의 후광속에서 조종길반장의 적동색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손목시계를 주시하며 보다 앞당겨질 주형속도를 가늠하고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80년대속도》의 불바람속에서 끊임없이 탄생되는 로동당시대의 영웅적 위훈 창조자의 가장 전형적 주인공을 보고있는것이다. 아닌가 아니라 얼마후 주형틀속에서는 그들의 충성심의 결정체가 빛을 뿌리듯 우람한 판압연기본체가 불끈 솟아난것이다.

그들에 의해 주형속도가 또다시 2배로 앞당겨진 놀라운 혁신이 창조되였다.

기동선동대원들이 환영곡을 울리며 꽃다발을 안겨주었으나 반장동무는 그것을 반원들에게 밀어놓더니 손때묻은 수첩을 펴들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채 작업장쪽으로 걸어가는것이였다. 아마도 이제보다 더 큰 주형품을 앞당겨 부어낼 새롭고 대담한 착상을 머릿속하고 있으리라.

나는 수긋하고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그가 세워온 빛나는 위훈의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한 확답이 명백해졌다.

그렇다. 나날이 더 높은 봉우리에도 줄달음 치는 그의 위훈이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창조되고있는것이 아닌가!

크나큰 믿음, 그것이 그대로 그의 역센 뿌리가 되여 위훈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있는것이라.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빈터우에서 8메터 타닝반으로부터 3천톤, 6천톤프레스, 1만톤프레스를 비롯한 대형기계들과 대상설비들이 숲처럼 솟아오르며 빛나는 위훈이 창조되고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나는 통성땅! 오늘도 이곳에서는 조종길반장동무만이 아닌 모든 통성사람들이 당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안고 대상설비생산에서 끊임없는 위훈을 창조하며 영웅으로, 혁신자로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오늘에 이어 래일에도

차명문

인민들이 우리의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지원하는것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의 사회적 미풍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인민들이 인민군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들을 자기의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광복거리를 비롯한 기타 대상건설에 수많은 군인건설자들이 참가하고있다. 그들은 만경대 안골체육촌내 여러 대상건설을 비롯하여 광복거리 기본도로, 양각도국제영화관, 동평양대극장과 청년극장 그리고 순안지구건설 등 수많은 건설장소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그들의 힘찬 로력투쟁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당의 위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바라는 길에 한마음 바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의 발현인것으로 하여 어제날에 이어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있다.

나는 이런 아름다운 현실을 얼마전 건설현장에 서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

내가 군인건설자들이 맡아수행하고있는 청년극장건설현장에 나갔을 때 일이다.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마침 거기에는 십여명의 녀성들이 보약단물이라고 하면서 100리터를 나누어넣은 여러개의 용기들을 돌씩 마주들고 2층 경사발판을 따라 힘겹게 올라가고있었다.

2층 3층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기둥콩크리트혼 합물치기와 벽체를 쌓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기들을 찾아오는 그들을 발견한 여러명의 군인들은 서둘러 달려내려와 마중하였다.

알아보니 보약단물 임자들은 평양산원 제약과 조제사들이였다.

이윽고 작업장에 도착한 그들은 군인건설자들을 청하여 달고도 시원한 보약단물을 고뿌마다에 가득가득 채워 권하는것이였다.

참으로 사랑의 정 넘치는 그들의 모습은 동생을 사랑하는 누나의 마음, 아들의 단 몸을 시원히 식혀주는 다심한 어머니의 참모습 그대로였다.

100리터의 이 보약단물에는 이런 이야기가 깃

들어있다.

평양산원 조제과 성원들중에는 다섯명의 처녀들이 있다.

그들은 낮에 하루 일을 마치고는 밤마다 스스로 여기 공사장에 나와 군인건설자들의 일손을 돕는 영예로운 이곳 야간지원대성원들이다.

어느날 그들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도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평양산원 조제과 집단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을 도와나설것을 결의해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군인건설자들에게 보약단물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하였던것이다.

군인건설자들을 위한 보약단물! 그러면 그의 조성을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조제과 김향란동무와 함께 여러명의 조제사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건설자들의 피로회복에 좋아야 한다면서 몸안에 산소도 공급하고 여러가지 비타민제를 많이 넣어 영양보충도 시켜주며 그것이 강장제로도 되게 하여야 한단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삼, 솔잎, 굴껍질, 찹쌀이, 사탕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보약단물을 만들기로 하였다.

매일 산원내에서 소비하는 각종 주사약과 약제, 각종 효소제를 생산보장하는 기본분야와는 다른 보약단물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원료를 채취해다가 식용색소축출과 용매종합작업을 진행하여 드디어 효능높은 보약단물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밖에도 이 기간에 그들이 자체로 첨가제원료 구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바친 뜨거운 마음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그들은 오직 군인건설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마음에서 자신들의 열정과 정성을 바치는데만 몰두하였다.

나는 수백명의 군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보약단물을 부어주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하였다.

순안지구대상 군인건설자들의 식생활보장을 위하여 그곳 원하리협동농장원들이 지금도 매일 신선한 남새와 고기를 아낌없이 보내오고 사동애국권직공장 로동자들이 식료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물자들을 지원해왔고 전국에서 수천마리의 돼지를 보내오는 등 이 모두의 뜨거운 마음들과 건설장을 찾아 로력적으로 밤마다 나와 일해주는 부부지원대, 부자지원대, 모녀지원대, 4~5명씩의 한가족지원대, 수십명씩의 한직장의 지원대, 수만명의 평양시민들의 그 마음도 지금 저들처럼

군인건설자들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의 마음에서
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인민군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아낌없는
정성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이런 깊은 생각에 잠겨있을 때 김향란동무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사실 우리는 큰 마음을 먹고 하느라고 하였는데
실지 오늘 건설현장에 나와보니 군인건설자들이
수고하는데 비하여 우리의 성의가 너무도 빈약하다
는것을 느끼고 쑥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방금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더
잘할것을 의논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곳 군인건설자들에게 이런 보

약단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군의소가 상급조직으로부터 체계
적으로 공급받는 치료약외에 필요한 약재가 무엇
인가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산공급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참으로 오늘의 소행만으로도 그지없이 아름다
운데 래일에도 계속하여 더 잘 더 많이 지원하겠
다니 이아니 아름다운 꽃중의 아름다운 꽃이 아
니겠는가.

오늘 우리 당의 수도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꽃
피워나가는 우리의 인민군대를 진심으로 사랑하
고 도와주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의 꽃은 오
늘에 이어 래일에도 계속 찬란히 피어날것이라고
확신하는 나는 그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숭엄
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잘 있으라 나의 학교여

-졸업식날에 부른 노래-

송명근

잘 있으라
빨리도 흘러간 나의 학창시절이여
웃고 떠들며
한결음에 두셋씩 뛰어오르던
정다운 충계여

현관 거울앞에 자주 다가서며
소년기를 넘어
어느덧 청춘기가 시작된곳
리수복의 수기를 소리높이 읊으며
영웅이 될 꿈을 키운곳

숨겨선 무엇하랴
숙제를 못해 가슴 조이며
선생님의 눈길 피하던 일
책상밑에 소설책을 감추어 읽던 일...
우리는 왜 조국이 배운
사랑의 45분을 때로 물쓰듯 흘려버렸던가

잊지 않으리라
장난도 심했던 우리를 타이르느라
늘 목이 쉬여있던
담임선생님이시여

잊지 않으리라
지구가 둥글다는 단순한 진리도
조국이란 큰 뜻도
말없이 배워준
교과서의 페이지와 페이지들이여

친부모의 손길보다 먼저
자라는 키며 신발문수까지 헤아려
차려준 새 교복을 떨치고
차례차례 한 학년씩
나란히 올라선 학교 충계여

오래오래 나를 멈추어달라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은정이
충충 고여진 사랑의 충계...
마지막 한끝을 내려서면
이제부터 우리앞엔 보답의 충계...

이제 우리는 떠나리라 공장으로
농장벌과 대학으로
허나 생활은
우리모두를 영웅으로
나란히 올려세우지는 않으려니
조국에 바치는 탐구와 노력없이
우리 그 생의 높이에 오르지 못하리

잘 있으라, 잘 있으라 나의 학교여
졸업증을 안은 이 가슴엔
온 조국의 무게가 얹혀진듯
웃으며 뛰어오르던 사랑의 충계
오늘은 말없이
새이며
새기며
내리노라!

리정표

엄성영

먼길을 달려온 기차는 협곡의 자그마한 간이역에서 숨을 돌려선후 곧 떠나버렸다.

림형우는 길손이 적은 역구내에 서서 러로에 지친 눈길로 열차가 마지막으로 꼬리를 감춘 봉수령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머리속에는 출장지에 가까이 왔다는 안도감보다도 가닿아야 할 림산 사업소를 지적에 두고 맥이 빠져버린듯한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50대의 년륜이런듯 흰칠한 이마 위에 새겨진 주름이며 때이르게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한 귀밑머리... 그 외형과는 달리 지금까지 마음은 늘 젊어있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자기를 믿어온 형우였다.

그런데 이마적에 와서 그 믿음에 실금이 없힐 줄이야 뉘 알았겠는가?

활시위처럼 팽팽했던 살림집건설 1단계과제를 국적으로 딱소리나게 마무리해놓고 분기총화모임을 끝낸 엿저녁이었다.

《처장동무, 잠간 왔다갈수 없겠소?》

전화를 받고난 형우는 곧 부총국장의 방으로 갔다. 글을 쓰고있던 최부총국장이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권하더니 자신도 앞책상에 나앉았다. 말수더구가 적고 몸가짐이 신중한 부총국장이 이렇게 길둥그런 얼굴에 미소를 짓고 흔연히 마주앉을 때는 꼭 무슨 반가운 소식이라고 있을것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1단계총화결과를 놓고 국가표창사업들이 진행된다는것을 알고있는 형우는 은근히 기대어린 눈길로 최부총국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실말이지 노숙을 부려봐 엄살을 피워봐 나중엔 목청까지 돈귀가면서 저저마다 손을 내밀고 보채는 건설장들에 그 술한 건구재를 도맡아 맡 물려주고 대주면서 직접 하나의 중요대상건설을 맡아해내기란 좀 벅찼던가!

《내가 처장동무를 찾은건 2단계건설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요. 혹시 새 건설대상을 앞당길 무슨 방도라도 생각해본게 없소?》

《예?!》

《이렇게면 좋은 묘안같은것말이요.》

《뭐 별루...》

음, 건설에 필요한 기본자재는 다 확보됐겠지?》

《아직 일부는...》

《계약은 맞물렸소?》

《어떤것들은 미처...》

형우는 뜻밖의 물음들에 말끝을 여물쿠지 못했다. 초점잃은 눈길이 책상우에서 허둥거렸다.

부총국장의 목소리가 의외에도 날카로와졌다.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이요? 일을 좀 했다고 벌써 손맥이 풀린게 아니요. 그렇게 맥을 놓다간 사람이 제 가치두 잃구 영 쇠여버리구말겠소!》

《그건 너무합니다.》

《너무한게 아니요. 우린 다같이 한생을 가치있게 마무리해야 할 나이가 되었소. 난 처장동무가 사람들속에서 지레 쇠다는 소리를 들을가봐 걱정스럽소.》

형우는 가슴이 섬찝했다. 30년가까이 자재사업을 해오느라니 무슨 뒤소린들 안들었으랴만 지금껏 귀먹쟁이솔뿌리 캐듯 수긋하니 말을 일을 해왔었다. 때론 눈먼 욕을 먹기도 하고 본의아니게 지청구도 들었지만 그때마다 약파로 생각하고 대범하게 받아들인 그였다. 그런 자신의 심증을 누구보다도 헤아려주고 이해하리라고 믿었던 부총국장한테서 글썽 이런 험구가 쏟아질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뽕!-》

목갈린 기적소리가 그 누구를 부르는듯 봉수령 너머에서 가늘게 들려왔다.

형우는 옆구리에서 미끄러져내린 손가방을 추슬러 올렸다. 그가 첫걸음을 옮겨놓으려고 할 때였다.

《저, 차에서 내리신 손님이에요?》

등뒤에서 썩 애되고 상냥한 목소리가 울렸다.

형우는 방울같은 목소리의 임자를 향해 반쯤 몸을 돌렸다. 얼굴이 둥글납작하고 해사하게 생긴 처녀가 손에 여행용가방을 들고 고개를 갸웃한채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스물을 갓 넘겼을가, 보통키의 균형잡힌 몸매에서는 탄력이 넘치고 생기가 흘렀다.

《그렇소.》

형우는 대답해놓고보니 너무 푸점없이 입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처녀는 그썸한건 조금도 개의치 않는 표정이였다.

《혹시 이고장을 잘 몰라서 그냥 서계시는것 같길래... 어디까지 가시는길이에요?》

《허, 고맙소! 봉수림산사업소를 찾아가는길이에요.》

형우는 그제야 처녀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친절히 대답해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처녀가 가벼

운 환성을 올리는 것이었다.

《송산마을예요? 아이, 마침 잘됐어요. 제가 그리로 가요. 저와 함께 가시면 돼요.》

처녀는 자기의 생각이 빗맞지 않았다는 듯 얼굴에 함박꽃을 피웠다.

형우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사실 형우에게는 초행길이 아니었다. 처녀가 말하는 송산마을도 자기의 소꿉시절 발자국이 무수히 찍힌 곳이었다. 아버지를 따라서 소나무가 많아 송산이라고 불리우던 그고장에 와 어지간히 썸이 들었던 그에게는 소꿉시절의 딱친구들도 있었고 옴니암니하며 매일의 꿈을 키우던 소중한 추억도 간직되어 있었다. 송산마을을 뜬 후에 비록 한두번밖에 다녀가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잊지 못하는 고장이었다.

한해전에는 소꿉친구들중 한사람이 직장장으로 부터 지배인사업의 중책을 지니게 된다는 소식을 얻어 들었다. 희소식이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그쪽에다 계약을 맞물려야 할 일이 생긴 것이다. 가 능하면 계약분외에 더 많은 목재를 얻어올지도 모른다. 자재때문에 늘 꼭지가 뻗뻗해서 돌아치는 형우이고 보면 지배인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게 친구라 지 않는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출장길에 오른 형우임을 처녀는 알 수 없었다.

《그것 참 다행이로군.》

형우는 짐짓 시치미를 떼고 처녀를 따라나섰다. 그의 친절한 호의를 물리치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가야 할 목적지이고 또 이런 오되고 당돌한 처녀와 길동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그래 동무 무슨 일로 송산마을까지 가요?》

형우는 처녀의 화려한 꽃무늬 달린 옷이며 목직 한 여행용 가방을 눈으로 더듬었다.

《호호, 무슨 일로 가는 거구요? 거기엔 우리 집도 있고 제가 일하는 가구작업반도 있어요.》

처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더니 아직 의문이 채 풀리지 않은 형우를 띄여보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통신등교수업을 갔다와요. 산림과예요. 래후년이면 졸업하거든요.》

《그럼 당당한 림업기술자가 되겠구만!》

《웬걸요. 겨우 준기사가 될텐데요 뭐. 이제야 첫 걸음을 뗏을 뿐이에요. 우리 작업반만 해도 기사들이 여러명 있는데 그들의 탐구심은 정말 이만 저만이 아니예요!》

《그래?》

《예, 우리 반장동지만 놓고봐도 그렇지요. 산림의 종합적 리용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얼마나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음, 박사라도 되려는 모양이군.》

《박사요?》

처녀는 오통 걸음을 멈추었다. 자신이 말해놓고도 미처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 못한 듯 형우를 향해 크고 까만 눈을 재게 깜박거렸다. 그러더니 살래살래 머리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떼었다.

《글쎄 언제 그런 생각을 해왔는지는 몰라도 난 우리 반장동지의 탐구심앞에선 절로 머리가 숙어지군해요. 처음 사회에 나와서 하루하루를 흥평흥평 보내던 제가 부랴부랴 통신공부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문이니깐요.》

《허허허...》

그들은 역사앞을 벗어났다. 얼마쯤 걸노라니 세갈래의 갈림길이 나졌다. 길목에는 사람들이 첫눈에 알아볼 수 있게 리정표가 세워져 있었다. 원형의 콩크리트기둥 끝에 철관을 널다랗게 오려 붙이고 정갈한 흰색바탕에다 표지체로 행선지와 거리를 밝힌 리정표였다.

《우리고장은 원체 산이 많아서 길을 헛갈리기가 쉬워요. 한번 헛갈리기만 하면 반나절은 허공하늘로 날려보내거든요. 참, 이쪽 길로 가야 해요.》

처녀는 리정표앞에서 손을 들어 오른쪽을 가리켰다. 길은 경사가 급한 산기슭을 주름잡으며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 발밑에는 산천어의 꼬리치는 모습까지 다 들여다보이는 강물이 메바위를 씻어내리고 있고 강안으로는 휘우듬히 뻗은 림철길이 놓여 있었다.

달래강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멀리 봉수령을 주봉으로 하고 그 좌우로 련줄련줄 뻗어내린 높고낮은 산봉우리들, 골짜기들은 지금 단풍이 한껏 어우러져 황홀경을 이루고 있다. 우듬지가 노랗게 물든 이깔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뻗뻗하게 늘어서서 골짜기들을 메웠는가 하면 하늘을 향해 쪽쪽 키를 솟군 잣나무들이 암록색의 엄숙한 표정을 띠고 끝모르게 펼쳐졌다. 참나무, 소나무들로 이뤄진 혼성림이며 산기슭 저지의 황철나무림에 이르기까지 단풍나무, 생강나무, 봇나무들이 점점이 군을 이루고 있어 눈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라없이 울긋불긋했다.

갑자기 이깔나무림쪽에서 《우-》 하는 소리가 났다. 바람이 인 것이다. 그러자 이산저산에서 나무우듬지들이 일시에 뒤채이며 화답하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대기는 음향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숲이 연주하는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이었다.

음향에 실려온 들크무례한 숲향기와 송진내가 형우의 폐부를 찔렀다.

《어때요? 우리고장 경치가 마음에 들어요?》

처녀가 은근히 자랑섞인 어조로 물었다.

《꼭 마음에 드요.》

《그렇게 말씀하실줄 알았어요. 지금은 단풍계절이어서 그렇다쳐도 서리꽃이 핀 겨울철은 또 얼마나 아름답다구요. 골계수가 고드름을 드리우고 방금 솟아오른 등근해가 온 세계에 금빛을 수놓을 때 벌목공들의 기계톱소리, 웃음소리 넘쳐나는 산판의 아침은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처녀는 목직한 려행용가방을 다른손에 바꿔들며 다시 입을 열었다.

《봄, 여름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겨우내 백곰처럼 산기슭에 웅크리고있던 얼음버께가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강가에는 보들보들한 버들개지가 웃고 언덕들엔 진달래꽃, 철쭉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군해요. 운무속에 줄던 황철나무, 물푸레나무들이 소리없이 움을 띄워 야들야들한 애일을 펼쳐들고 손저어반길 때 숨죽은듯 까딱않던 늦잠꾸러기 참나무가 푸수수 눈썹지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언제 게으름뱅이였더니 싫게 서둘러 제 몸을 단장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둘러보노라면 온 숲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색조화를 부리는지 몰라요. 흰 면사포의 운무가 걷히면 숲가는 처음에 노르끼레한 빛을 띠여요. 그것이 어느새 연록색으로 바뀌고 연록색이 다시 진록색으로, 암청색으로 뒤바뀌어요. 게다가 비온듯 칠색무지개가 드리워진 수림은 또 얼마나 아름답다구요!》

형우는 처녀의 이야기를 듣는대기보다 그의 달뜬 얼굴에서 계절에 따라 무성해지는 숲의 색변화를 시시각각으로 보고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아름답고 정열적인 처녀가 그 칠색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선녀처럼 날아오르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버지 낄께 이 숲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라고 제 이름을 수옥이라고 지었다지 않나요. 꽤나 욕심쟁이지요. 호호호...》

《허허허...》

아닌게아니라 호심처럼 맑고 그윽한 두눈은 이 산촌의 푸른 정기를 타고난듯 류달리 영채를 뽐내고있었다.

《수옥동문 어느새 숲주인이 다 됐구만!》

《제가요? 호호, 저야 아직 햇내긴걸요워. 적어도 우리 반장동지쯤 돼야 그렇게 말할수 있겠지요. 우리 반장동진 숲과 이야기도 나눌줄도 알고 나무의 숨결도 가려들을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이참, 웃지 마세요. 바람을 안은 숲의 설레임소리만 듣고서도 나무의 영양상태며 수분조건을 알아맞힌다니까요. 립산사업소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형우는 수옥의 말을 듣노라니까 소꿉친구들의 소식이 더욱 궁금해지고 혹시 이 처녀가 지배인

의 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수옥동무의 아버지도 립산에서 일하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일해요.》

《그래? 음, 지배인동무랑 잘 있겠지?》

《예, 우리 지배인동지야 원래 건강체가 아니나요. 사업을 맡아본지는 얼마 안돼도 내밀성이 무척 강해요. 참, 손님은 우리 지배인동지를 아시나요?》

《알구말구, 지난해부터 지배인사업을 시작했지?》

《예, 꼭 한해전부터예요.》

형우는 느닷없이 걸음이 빨라졌다. 한시바삐 사업소에 가닿고싶은 그의 마음을 부채질하듯 소연하던 물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얼마앞에 거품이 부그그 이는 합수목이 나진것이다.

《아이참, 천천히 걷자요. 미처 따라 못가겠어요.》

처녀가 간청했다. 돌아보니 딸기빛으로 익은 그의 얼굴에 송알송알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아구리가 벌어지도록 팽팽한 려행용가방이 꽤나 무거운 모양이었다.

형우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좀 들어다줄까?》

《아니, 괜찮아요.》

처녀는 가볍게 머리를 젖더니 제 먼저 합수목에 이르러 려행용가방을 내려놓았다.

《잠간 쉬었다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형우도 시원한 물소리가 좋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런데 물넋에 나앉아 조용히 땀을 들일줄로만 생각했던 처녀가 가방을 헤치기 시작했다. 웬일인가싶어 고개를 기웃하던 형우는 그만 자기 눈을 의심했다. 아구리가 벌어진 가방안에 바늘같은 잎사귀의 나무모가 한가득 들어있는것이 아닌가.

《아니 등교수업을 갖다온다고 하더니?...》

형우는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처녀는 가방안에서 나무모의 뿌리 하나 상할새라 잎사귀 하나 떨어질새라 조심조심 꺼내놓으며 그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등교수업은 원래 오늘까지라는것, 아침에 마치막시힘이 있었는데 답안지를 선참으로 내고 그길로 돌파서서 조림지에 갔다온다는것이다. 지금 자기네 작업반에서는 작업반장이 주동이 돼가지고 속성나무모기르기방법을 연구하고있는데 조림지를 돌아보니 그 나무모살이가 괜찮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조림지에도 자그마한 나무모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캐낸 이 나무모는 생육조건이 서로 다른 송산리에 옮겨심으려고 한다는것,

그래야 이번 시험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잣나무모예요.》

처녀는 뿌리를 감싼 이끼에 두손바닥을 오그려 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방으로나 날라셔야 언제 빛을 보겠소?》

《호호, 아직 시험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시기별로 제단식으로 심어보는걸요 뭐.》

처녀는 뭔가 미덥지 못해하는 형우에게 동을 달았다.

《등교수업을 받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반장동지가 세운 시험일정계획에서 래일이 바로 송산리에 잣나무모를 떠옮기는 날이 아니겠어요. 애초에 몰랐던 건 아니지만 사정에 의하여 등교수업이 사흘이나 늦어질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한테야 가방밖에 더 있어야죠. 하지만 조림지래야 봉수역에서 한 역전이니까 별일은 없어요. 이제 새 나무모기르기방법만 성공해보라죠. 조국의 모든 산림이 더욱 울울창창해질 거예요.》

형우는 저으기 감동된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땀에 익은 수옥의 얼굴에 줄곧 신심과 희열이 넘쳐흐른다. 지금 수옥이가 느끼는 저 보람, 저 기쁨이 곧 그의 삶의 가치로 될 것이다.

형우는 처녀의 소박한 이야기속에서, 숙진 마음에서, 거울같이 맑은 눈동자에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이 기뻐다. 그러다가 문득 이 아름다운 처녀가 그토록 숭상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묻혀버렸다.

《뻗쭙 쭈르르...》

강가의 짙광이나마가지에 앉아 꼬리를 초췌이던 메새가 포르릉 날아올라 고운 목청을 뿜으며 수림속으로 찾아들었다.

《인젠 떠나지 않겠어요?》

어느새 일을 마감한 처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늘은 높이 들렸다. 걸음발이 가벼웠다. 형우는 처녀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가방의 한쪽끈을 잡았다.

《우리 송산마을도 인제는 이름을 바꿀 때가 됐어요. 소나무대신 잣나무가 가득 들어찼거든요. 먼저 심어놓은 것들은 벌써 주먹같은 잣송이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시면 우리고장 특식인 잣죽도 잡숴볼 수 있을 거예요.》

《허허, 그런데 수옥동문 가구작업반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소?》

《호호,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요.》

(무슨 상관이라니?)

형우의 의문은 채 풀리지 않았다. 아무리 숲을 안고사는 처녀이기로서니 제 직분이야 어디 갈

텐가. 혹 사업소지배인이라면 몰라도 이 어린 처녀에게야 아름이 번 사업대상이 아닌가.

《우리 반장동진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일이라면 네일 내일을 가리지 말겠어요. 더구나 인적이 드문 림산에서 일하는 우리가 저저마다 나무를 찍어내고 목재를 가공하는데만 정신을 쏟는다면 장차 나라의 산림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건 숲에 태를 묻고 이 숲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숲사람들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반장동지 마음은 이래요. 그래서 지배인동지도 일하시다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 우리 작업반부터 찾아오군해요.》

《지배인이?》

형우는 가볍게 놀랐다. 처녀는 그러는 형우를 의아스럽게 쳐다보았다.

《예, 우리 반장동지한테서 배워가군해요.》

《머리가 허애가지고 짧은 것들의 귀동냥이나 한 단말이요?》

《예?!》

이번에는 처녀가 깜짝 놀랐다. 형우가 실언을 했구나 할 사이도 없이 처녀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우리 지배인동지한테 이제 겨우 첫돌지난 어린애가 있을 뿐이예요.》

《아니 그럼 목작판직장장을 하던 그 사람이 지배인이 아니란 말이요?》

《목작판직장장이요? 호호, 뭔가 혼돈하고있어요. 우리 반장동지가 바로 목작판직장장을 하던 조성국아바이예요. 새해에 환갑고개를 바라보는...》

형우는 목이 꺾 막혔다. 틀림이 없었다. 이름도 나이도 지금 자기가 믿고 찾아가는 그 소꿉친구가 틀림없다. 헌데 이럴 수가 있는가? 작업반장으로 조동되다니! 소꿉시절엔 그래도 송산마을에서 제노라고 우쭐대던 발개돌이 조성국이 이렇게 퇴색하고만단 말인가. 세월의 흐름이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처녀의 한마디 말은 그렇지 않아도 서리가 허영게 내불린 귀밑머리를 거울앞에서 마주할 때면 느닷없이 갈마들군하던 그의 어지러운 상념들을 사정없이 덧긋혀놓았다.

생의 보람이라고 할지, 기쁨이라고 할지? 한생의 가치문제를 두고 형우는 지금껏 제나름의 견해를 확고히 세워왔다. 인생행로를 따라 적지 않게 걸어온 오늘에 와서 자신에게 차례진 사업상 위치나 생활형편은 별로 흠할 데가 없는 것이다. 그만하면 만족했다. 인생의 링마루에 서있다고 할가.

다만 이제부터 걸음마다 숙고하여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총국산하 건설기업소들에서 설계

원으로, 지도원으로 일하고있는 자식들에게 그들만 던져주지 않는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은 물론, 남부끄럽지 않게 한생을 마무리할수 있다고 믿어왔다.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의 생활률조로 습벽화되었다. 그 생활률조가 흔들리는것이 두려웠다. 그런 와중에 조성국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결코 남의 일같지 않은게 별로 마음속이 싱숭생숭해지는것이였다.

《아이, 저길 좀 보세요!》

갑자기 처녀가 소리치며 손을 들어 달래강을 가리켰다. 그제야 형우도 상념에서 벗어나며 처녀가 가리킨곳으로 눈길을 가져갔다. 커다란 밤색노루 한마리가 강대안에서부터 이쪽으로 헤엄쳐 건너오는 모습이 보였다. 가지가 뻗은 뿔이 중한지, 숨통으로 물이 들어가는게 두려운지 목을 하늘로 빼들고 불살을 헤가르는 모양이란 정말 가관이였다.

《방금 우리가 휴식했던 자리가 노루목이예요. 글썽 어떻게 된일인지 노루가 사람을 보구도 통피할줄을 몰라요.》

《음-》

《뿔달린걸 보니 숫놈이예요. 그 육중한 몸에 헤엄을 다 치구, 용치요? 호호호...》

처녀는 허리를 꼬부려가며 간드러지게 웃었다. 그러나 형우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더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동무네 작업반장이 목삭판직장장을 할 때 무슨 실수를 저지르게 아니요?》

형우는 아무래도 의아쩍은 생각이 들어 처녀에게 은근히 물었다.

《실수라니요? 우리 반장동진 실수를 몰라요! 직장에서도 그래 사업소에서도 그래 얼마나 평이 좋았대구요. 모두들 지배인처럼 떠받들었어요.》

《그런데?》

형우의 조급한 물음에 처녀는 시무룩한 얼굴표정으로 대답했다. 순간 형우는 밝고 명랑하던 처녀의 얼굴에 그렇듯 짙은 그늘이 비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게 다 저때문이예요.》

처녀는 한참만에야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난해 이맘때였어요. 직장에서는 분기계획을 마무리하느라고 단기생산경기를 조직했어요. 건구작업반, 일용작업반, 가구작업반 어디라없이 모두 응속했어요. 승벽들이 어찌나 썰던지 전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녔어요. 애쓴 보람이 있어 우리 가구작업반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영예의 혁신자로 사진을 찍게 됐어요. 직장장동지는 사진은 웃어야 잘된다고 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이불장, 찬장을 배경으로 큼직하게 찍히도록 사진사를 도왔어요. 밝게 웃는 저의 사

진이 사업소영예게시판에 나붙은 날 직장장동지는 다시한번 저를 축하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슬쩍 귀띔해주는것이였어요.》

《뭘라구?》

《사회적 분공도 잊지 말라구요.》

《허, 기쁜날에 잔소리를 들은 셈이군. 그 사람이 갑자기 로망했던 모양이지.》

뜻밖에도 처녀가 정색했다.

《로망이라니요? 그런게 안예요! 글썽, 로망들면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하지만 난 오히려 걸뭇이 들어 필요없이 점잔을 빼면서 쓸만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로망들런게 아닌가 생각해요.》

처녀의 목소리는 야무지고 맵쌌다. 그 어조에는 자기 직장장에 대한 열렬한 옹호와 긍정, 존경의 감정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었다. 가슴속 깊이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그 감정의 불길은 처녀의 새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정색해진 얼굴에서, 탄력있는 온몸에서 막 뿜어나오는 듯싶었다. 형우는 까닭없이 얼굴이 훗훗해났다.

《직장장동지의 귀뜸을 듣고보니 제가 글썽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생산경기에만 눈이 어두워 사회적으로 분공받은 새나무모관리를 그동안 통까먹고있었거든요. 난 정신이 편쩍 들어 나무모밭으로 달려갔어요. 범이 새끼치게 되었으면 어찌나 근심을 놓지 못하고 달려가보니 글썽 꽃밭처럼 알뜰히 가꿔져있는게 아니겠어요. 본의는 아니였지만 명예에 정신이 팔린 자신을 저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붉어진 얼굴로 나무모밭에서 돌아오며 보느라니까 직장장동지가 영예게시판에다 유리문틀을 새로 해끼우고있었어요. 사진들에 먼지가 낄세라말이예요. 직장장동진 말없이 자기의 곁에 와 선 저의 어깨에 투박한 손을 얹으시고는 《수옥이, 명예의 높이가 곧 삶의 가치라고 생각해선 안돼. 그건 보다 조국을 받드는 성실성의 높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야!》 하고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것이였어요.》

형우는 울먹울먹하며 떠듬거리는 처녀앞에서 자신도 가슴이 찢르르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지금 처녀와 함께 들고가는 나무모가 바로 그런 나무모라고 생각하니 더욱 의미가 심장해졌다.

《사실 영예게시판에 사진을 소개하려면 저보다도 직장장동지의 사진을 내붙여야 했어요. 그건 직장장동지가 우리 직장에서 많이 쓰는 목삭판생산의 프레스화를 완전자동화하는데 성공했기때문이에요. 그바람에 직장로력이 거의 절반이나 줄게 되었거든요. 직장장사업도 한결 형그러워지구요. 그무렵 사람들은 사업상 필요로 외국에 소환

되어간 지배인자리에 우리 직장장동지를 점찍고 있었어요.》

처녀는 갑자기 여기에서 이야기를 툭 그치더니 그자리에 멈춰섰다.

형우는 웬 영문인가 싶어 그를 바라보며 서둘러 입을 열려고 했다. 처녀는 잠깐 기다려달라는 듯 가볍게 손을 내젓더니 선자리에서 걸어온쪽을 향하여 귀를 강구기 시작했다. 그러던 처녀의 얼굴에 소리없이 웃음발이 피어났다.

《뻥이차가 와요. 타고 가자요. 본선역에서 통나무를 부리우고 들어올 땐 빈화차거든요. 저게 보이는것이 도중역이에요.》

처녀가 몇채의 집이 보이고 그앞으로 통나무들이 더미로 쌓여있는곳을 가리켰다.

형우는 처녀의 의견을 좇기로 했다. 나무모들이 들어있는 려행용가방을 맞들고 몸에 땀이 나도록 반달음으로 도중역에 닿았을 때는 벌써 《뻥! -》 소리와 함께 림철차도 뒤따라 들어섰다.

처녀가 운전사청년에게 달려가 뭐라뭐라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곧 되돌아왔다.

《빨리 타세요. 이제 가시면 우리 작업반장동지도 만날수 있어요. 사업소에서 5시부터 혁신자축 하모임이 있대요. 이제 그 혁신자들중에서 국가수훈도 내신한다나봐요.》

《국가수훈을?》

《예, 순위로 보면 아마 우리 작업반장동지가 엄지손가락에 꼽힐거예요!》

림철차는 꽤나 들추며 달렸다.

형우는 확신에 넘친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조성국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직장장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소?》

《글쎄 사람들은 모두 지배인자리에 점찍고있었지만 도당에 불리워간 우리 직장장동지의 생각은 아마 달랐던가봐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주는건 고맙지만 패기 있고 전망성있는 젊은 사람을 지배인으로 내세우는게 어떤가구 말했대요. 사업소엔 맘이 바로 백히구 생각하는 굵도 트이구 일잡도리가 만만찮은 그런 젊은이가 많다면서 지금의 지배인동지를 자기대신 추천했대요. 그리고나서 자기는 가구작업반으로 갈걸 희망했대요. 거기에는 지금 고급기능을 요하는 몇가지 일감이 있는데 그건 당장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거라면서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요?》

《예.》

형우의 가슴속에서는 두터운 얼음장이 꺼져내리듯 쿵 소리가 났다.

(조성국이 실수한게 아니라 결국 사양했던말인

가! 그리고 이 처녀는 전 지배인의 딸이란말이지!)

형우의 가슴속에서는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런 직장장동지한테 제가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직장장동지가 도당에서 내려온 그날 오후였어요. 우리 가구작업반에서는 밥상생산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있었어요. 그것은 그중 좋은 나무를 쓰면서도 랑비가 많은것이 밥상생산이었기 때문이에요. 토론끝에 초보적으로 합의본것이 목삭건구판에 의한 밥상생산이었어요. 목삭건구판을 써도 랑비는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쯤해도 대단한 혁신안이였어요.》

형우는 처녀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귀중한 목재대신 목삭판을 쓰게 되는 경제적 이익성을 속셈해본것이다.

《아무렴, 밥먹을 때 밥알도 흘리기마련인데.》

《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뜻밖에도 처녀가 반문했다. 순간 형우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는 엷은 그늘이 스쳐지나고있었다.

형우는 별로 깊이 생각지 않고 한 말이지만 거기에 자기의 마음속이 거울처럼 비쳐진것 같아 당황해졌다. 다행히도 처녀가 얼굴을 돌리는바람에 숨이 홀 나갔다.

《그렇지만 직장장동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조그마한 랑비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제가 보다못해 결에서 응석처럼 한마디 했어요.

<아이참, 직장장동지두! 밥먹을 때 밥알도 흘리기 마련인데 그까짓 톱밥과 대패밥으로 만든 목삭건구판조박이 뭐라고 그렇게 마음을 써요?> 라고말이에요.

그런데 직장장동진 저의 응석을 받아줄대신 대뜸 무섭게 노했어요. <뭐라구? 밥상에 밥알을 흘리는거야 철없는 애들이지 그게 어른들이냐? 톱밥, 대패밥은 나무에서 나오지 않구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다더냐?> 하고말이에요. 그러시고는 네가 다행히도 가구작업반 도장공이였게 망정이지 나라의 큰 재산을 맡아보는 자재일군이였다면 어쩔번했느냐고 노성을 터뜨렸어요.》

형우는 왜그런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성국이가 지금 눈앞에서 수욕이를 탓하는게 아니라 자기를 책망하는것 같고 자기의 응졸한 생각을 꾸짖는것 같았다. 하지만 왜서인지 그가 돈우어 보였다.

하나의 가구제품을 놓고도, 하나의 건구판조박을 놓고도 그렇듯 생각이 깊은 성국일진대 어찌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것을 숲사람의 마땅한 의리로, 본분으로 여기지 않을수 있으랴! 알고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응당하고 례사롭고 평범한

진리가 아닌가!

형우는 시야에서 흘러가는 산림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띠고 새로운 모양과 크기로 자신의 공허하던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것을 느끼었다.

《한참후에 직장장동지는 울적해진 저에게 타이르듯 말했어요. 나무는 애써 키워도 혹 결바르지 못할수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대발라야 한다는거예요. 조국을 받드는 량심에 티가 끼면 그 사람은 구새먹은 나무 한가지랬어요. 량심의 높이가 곧 그 사람의 가치라면서말이에요.》

처녀는 정말 그렇느냐는듯 형우의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형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었다.

《그후 직장장동지는 우리 작업반으로 옮겨앉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미덥지 못했던게죠. 전 직장장동지한테 찾아가 울면서 빌었어요. 다시는 노엽히지 않을테니 우리 작업반으로 오지 말라구요.

직장장동진 대답대신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한참만에야 자기는 수옥이와 같은 젊은 사람들속에서 일하고싶고 또 가구작업반에 자기가 할일이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장동지의 생각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고 들이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직장장동지를 노엽힐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처녀는 그때의 실수를 돌이켜보는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형우도 처녀가 무엇을 노엽혔는지 궁금했으나 다음말을 기다릴수밖에 없었다.

《직장장동지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다가 천천히 엄하게 타일렀어요. <그건 공연한 소리야. 량심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을 땐 남의 비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사람의 가치는 직위나 명예의 높이에 있는게 아니라 조국을 받드는 량심과 성실성의 높이에 있는거야! 내남없이 이걸 명심해야 해.》

그후 직장장동지는 우리 가구작업반장으로 소환되었어요. 그리고는 끝내 목삭판을 형타로 찍는 방법으로 훌륭한 밥상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요. 직장장동지의 말은 다 옳지만 왜그런지 내가 제구실을 못해서 우리 작업반으로 옮겨앉은것 같은게 마음이 별래요.》

《허허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오.》

형우는 가슴속에 송구스러움을 간직하고 사는 처녀의 마음을 가볍게 능쳐주었다.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처녀보다 몇갑절 송구스러움을 간직하게 되는것은 형우자신이였다. 성국의 조동이 꼭 그때문이 아니겠지만 처녀로서야 이런 마음을 안고 산다는게 얼마나 귀중하게 살 일인가!

형우는 지금 처녀와 함께 갖고가는 나무모가방이 자못 의미깊게 생각되고 이런 처녀를 길동무

로 만난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림철차는 미구하여 사업소 가까운 도중역에서 멎었다. 차에서 내린 형우는 처녀와 함께 운전수 청년에게 손을 흔들어 바래운 다음 자동차길에 나섰다.

《이젠 거의 왔어요. 저 산굽이만 돌면 고대 마을이야요.》

그들은 걸음을 다그쳤다. 마을의 수호자인양 동구길에 길길이 자라오른 락락장송이 손저어 반긴다.

형우는 눈에 띄게 변모된 림산마을풍경에 이끌려들었다.

오붓하게 둘러앉은 회벽의 아담한 살림집들, 우뚝 솟은 학교와 탁아소, 유치원... 합각지붕의 2층 로동자문화회관앞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사업소에 들리시겠어요?》

형우는 처녀의 물음에 손목시계부터 내려다보았다. 5시가 거의 되었다. 사업소에 들러야 책임일군들이 다 모임에 참가했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조성국이를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혹시 지금쯤 책임일군들과 함께 주석단에 앉기 위해 귀빈실에서 대기하고있을지 어이 알랴.

《사업소회관으로 갑시다. 동무네 작업반장을 좀 찾아주요.》

《예.》

어느덧 회관앞에 이른 처녀는 형우에게 려행용가방을 맡긴채 붐비는 사람들속으로 사라졌다. 성국이를 찾으러 간 처녀는 시간이 이윽해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회관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회관에서 마지막벨이 울렸을 때에야 처녀가 나타났다.

《아니 왜 혼자 오오?》

《우리 작업반장동지가 없어요.》

《귀빈실에 가봤소?》

《사업소간부들도 우리 반장동지를 찾고있어요.》

《이사람이 어디 갔을가?》

형우는 뜻깊은 모임에 조성국이가 빠지는것이 못내 아쉬웠다. 처녀도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 한동안 머리만 가웃거렸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려행용가방을 들고서 형우더러 뒤따라오라고 했다. 처녀는 곧바로 마을뒤산으로 올라갔다.

《어디로 가오?》

《나무모밭으로요.》

골짜기를 따라 얼마간 올라가느라니 실개천을 옆에 낀 자그마한 나무모밭이 나졌다. 바둑무늬처럼 구획을 이룬 나무모밭복판에서 허리를 구부린채 나무모를 손질하고있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우리 반장동지요요!》

처녀가 자기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다는듯 가볍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형우는 처녀에게 이끌리다싶이 그리로 다가갔다. 성국은 어린 나무모의 줄기를 잡은채 무슨 생각에 그리도 움찔했는지 까딱 움직일줄 모른다. 형우가 곁에까지 바싹 접근했을 때 성국이가 번쩍 머리를 들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떡보가 아닌가!》

형우를 알아본 성국이가 아명을 부르며 덩석 두어깨를 그러쥐었다.

《반갑네. 바우!》

형우도 그의 팔을 억세게 잡아흔들었다. 그리고는 성국이의 모습을 다시한번 더듬어보았다. 별에 끈 불빛한 얼굴, 어글어글한 두눈, 넓적한 어깨, 양바라진 가슴, 박달나무같이 단단한 몸가짐은 예나 다름없고 생각보다 썩 젊어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임자가 목삭판생산을 자동화했다길래 구경을 왔네. 그런데 왜 여기에 있나? 사업소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 회관에서 지배인동지랑 사업소 간부들이 반장동지를 찾고있어요.》

결에서 두사람의 상봉을 호기심어린 눈길로 지켜보던 수옥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끼여들었다. 조성국의 눈길이 급히 팔목으로 옮겨갔다.

《허,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군!》

《면후날 추억에 남을 모임인데 늦지 말고 참가할걸 그랬네. 자네한테야말로 꽃목걸이를 걸어줄 만하지.》

《허허, 객적은 소릴랑 말게. 글썄 내 나이에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나? 실은 별목공들이 큰일을 했네. 그래서 늦지 말고 모임에 참가하여 수골한 그들을 축하해준다는게 그만...》

형우는 왜그런지 가슴이 뜨끔했다.

수옥이가 조용히 나무모를 갖고 나무모밭아래 쪽으로 내려갔다. 습한 땅을 골라 가식할 생각인 모양이다. 멀어져가는 그를 성국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보았다.

《그래 작업반장이 힘들지 않나?》

《힘들다니? 젊은것들하구 지내니 맘도 젊어지구 궁냥두 젊어지네... 말년에 갱소년하는것 같단니까. 허허...》

《!》

형우는 가슴이 몽클했다. 순간 성국의 그 어글어글한 눈, 그 결결한 목소리, 그 호방한 모습속에서 소꿉시절의 그를 보았으며 자기의 한창시절을 돌려세우려는 그 어떤 강한 충동을 받아안았다.

(이런 성국이를 그 누가 퇴색했다고 말할수 있단말인가! 퇴색했다면 결국 누가 한것인가. 그런데도 자신은 오늘날 인생의 령마루에 서있다고

일종의 자부를 느끼지 않았던가?)

문득 형우의 눈앞에는 갈림길목에 세워져있던 리정표가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수옥이며 성국이의 모습으로 뒤바뀌어지며 지금껏 자신이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 할 인생의 리정표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었다.

《자네 정말 이 무성한 숲의 영원한 산림지기일세!》

《진정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고맙네. 이거야말로 나한테는 더없는 표창이네!》

《표창이라니?》

《산림이야 나라의 자물쇠없는 창고가 아닌가?》

《!!...》

형우는 말문이 막힌채 성국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얼마나 웅심깊고 의미심장한 대답인가! 레사로운 그 한마디에 한생을 더듬어보게 하는, 인생의 가치를 규정지을수 있는 척도가 비껴있는것이 다.

형우는 마음속에 불덩이를 안은듯했다. 한생을 다 살면서도 범상한 생활속에 묻혀 그 생활의 진가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다더니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형우는 새삼스럽게 이번 출장길을 돌이켜봤다. 자기를 두고 최부총국장이 왜 그리도 노염을 탔는지, 조성국이를 두고 수옥이가 왜 그리도 숭상했는지 비로소 모든것이 석연해진다. 지금껏 자기 눈으로 봐온 자연의 리정표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진정 인생의 리정표, 삶의 높이에야말로 그 한계가 없는것이 아닌가! 형우는 가슴이 후터워졌다.

《갑자기 뭘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의 소꿉시절을 생각하네. 어려울 때 돕는게 친구라더니 정말 친구가 좋구만!》

《허, 사람두...》

형우는 말없이 나무모밭부근에 곳곳이 솟아오른, 이미 동구길에서 보았던 로송에 눈길을 보냈다. 락락장송이 푸르싱싱 하늘을 찌르며 솟아있는것은 대지에 깊숙이 박은 뿌리가 있기때문이라. 봉수령이 저토록 무성한것은 그 억센 뿌리와 같은 성국이네들이 있기때문일것이다. 또 새롭고 억센 뿌리를 내리는 수옥이네들로 하여 조국의 숲은 장차 얼마나 더 무성하고 수려해질것인가!

불현듯 형우의 가슴속에서는 지금껏 살아온 로상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싶은 욕망이 끓어번지기 시작했다.

《여보게 바우, 이렇게 섰고만 있겠나? 우리 저 수옥이를 도와주세!》

《그렇게 하지.》

두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저녁노을이 불타올랐다. 그것은 미구에 온 산관을 붉게 물들이리라.

누리에 빛날 광복거리여 외 1 편

리광

낮에도
밤에도
창조의 우뢰 울고
번개치는곳

바라보는 사이에도
웅근 한채의 건물을 들어올리고
애젊은 병사 하늘가에서
거인처럼 웃음발로 구름을 날리는곳

잠시 생각하는 사이에도
나의 발걸음은 그날에로 걷는다
완공된 넓은 거리
아름다운 록지
덩지 큰 살림집들의 숲으로
마중오는 행복, 그 환희로운 현실에
설레이는 마음이어

돌이켜보면
창광거리와 문수거리
평양산원과 서해갑문...
이리도 빠른 세월
황홀한 현실앞에
서보는 궁지여

폴재장으로
부재장으로
강철공장으로
또 철도역으로

하루에도
그 몇번
내 달려가는곳은 달라도
내 달려오는곳은 같아

떠나면서도
마음은 여기 있나니
돌아오면서도
생각은 여기 생각뿐

혹시
내 떠난 다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건설장에 오시지나 않을가
혹시

쫓아오른다
광복거리도
전경도앞에서 가슴 설레던 일
미처 가라앉힐새도 없이...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충충 고이고
인민에 대한
은정으로 넓게 거리도 째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가 펼쳐지는곳

그때문에
여기 오면 누구나의 가슴속에
그이를 모시고 미래에로 미래에로
세기를 앞당기며 나가는
신심과 궁지로 가슴 부푸는것 아니냐

쫓아오른다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함께
이 땅우에 영원할 사랑의 거리가
누리에 찬란히 빛날
행복의 대기념비가!

오직 그 하나의 마음

-한 자동차운전사가 부른 노래-

내 돌아오는 시각
친애하는 그이께서
건설장에 와계시지나 않는지

순간마다 태어나는
위훈의 소식도
순간마다 일떠세운
새집도 보여드리고싶건만

떠나면서도
돌아오면서도
나의 생각은
그이를 뵈고싶은 나의 생각은
빨리 더 빨리
일떠세운 새거리
기쁘시여 기쁘시여
그이 보내시는 환한 웃음에
온 나라가 행복에 설레일 여기
완공된 광복거리에 있어라

다시 찍은 사진앞에서

최경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높은 혁명적열의를 안고 매일, 매시각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으며 이 위대한 전진속에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이 수많이 자라나고있다.》

밋밋한 야산봉우리에 솔숲이 한껏 봄물을 빨아 올려 더더욱 푸르려가던 지난 5월초였다.

우리는 광복거리 안골채육촌 건설에서 날마다 새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혁신자들을 찾아 송구경기관 건설장을 찾아가었다.

기중기소리, 혼합기소리... 건설장은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우리는 이름난 혁신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취재수첩에 열심히 적기도 했다. 그리고는 건설장을 배경으로 그들의 장한 모습을 사진기렌즈에 담아 련속 사타를 눌러가고있었다.

촬영이 거의 끝나갈무렵이었다. 방금 사진을 찍은 한 처녀가 찾아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였다.

《기자동무, 저의 사진을 한창만 더 현상해줄수 있겠어요? 고향에 건설장의 소식을 보내고싶어서...》

그의 수집어하는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 우리에게 정치부의 한 일군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우후죽순처럼 기둥과 벽체가 솟아오르던 송구경기관 건설이 뜻하지 않던 난관에 봉착했다. 강철트라스조립이 걸렸기때문이었다. 강철트라스를 제때에 조립해내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 송구경기관 건설을 계속 빠른 속도로 다그치는 중요 고리였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어린 이 처녀가 연공들과 합심하여 묶음식확대조립방법을 찾아냈던것이다. 하여 공사전반속도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것이다.

우리는 처녀의 요구를 기꺼이 수락하였다.

며칠후 우리는 건설장을 다시 찾았다. 이 기회에 물론 처녀와 약속한 사진도 그의 손에 쥐여줄

것이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이처럼 유묘하게 긴팔을 휘저으며 못사람들의 시선을 끌던 기중기가 종적을 감추었다. 물론 처녀의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는 현장의 한 일군의 안내를 받아서야 내부관람석축조에 여념이 없는 사진의 주인공을 만날수 있었다. 사진을 받아들고 함뿔 미소를 그리던 처녀가 웬일인지 아수해하는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왜 그럴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군. 그래도 우린 성의를 다 했는데...)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읽었는지 그 처녀는 눈웃음을 지으며 사실이야기를 했다.

《기자동무! 용서하세요. 며칠전까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것이 못돼서 그래요. 보시다싶이 이 송구경기관은 건물조립을 완전히 끝내고 내부작업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처녀의 서운함이 그것이였구나! 딸의 모습과 함께 날마다 새로와지는 건설장의 전경을 고향어머니에게 보내주고싶어하는 처녀의 소박한 심정,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여 단 며칠사이엔 사진의 배경이 낡아버린 광복거리의 현실,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변모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어떻게 한장의 사진에 담을수 있겠는가...

봄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지붕에서 완성작업을 다그쳐가는 처녀들의 빨간 머리수건이 기폭처럼 바람에 나뭇긴다. 볼수록 놀랍고 미덥기만 하다.

송구뿔을 투사하는 선수들의 룰동적인 동작을 형상한 경사식의 현관부분, 날새들의 환희로운 날음처럼 깃을 활짝 펼친듯한 처마우에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는 부각상들...

우리는 그것을 배경으로 처녀를 세우고 사진기의 렌즈를 맞추었다. 그러나 결코 처녀에게 만족을 안겨주는 사진이 못되리라것을 절감했다. 제아무리 속성사진을 만들어도 고향의 어머니에게 가닿느라면 또 그것이 낡은 사진이 되어버릴것은 뻔했기때문이었다.

아들의 어깨

서진명

어머니는 처음 한순간
알아보지 못했네
중학교 책상물림으로
집을 떠난지 어제만같은 그 막내를

그저 응석둥이로만 생각되는 마음
집을 한번 다녀가라고
다심한 정을 담아 편지를 보내면
완공의 기쁨 안고 돌아오겠노라
답장도 의젓하던 아들

신문과 방송이
공사장소식을 전해줄 때면
아들의 소식을 듣는듯
눈빛을 빚내던 어머니
오늘은 건설장에 찾아왔거니

키도 흠썩 자라고
어깨가 짙 버그러진 아들
당의 뜻을 받드는 마음도 차돌처럼 여문
그 아들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어머니의 음성은 기쁨에 함뿍 젖었네
《네가 정말 몰라보게 컸구나!》

그러자 싱긋 눈가에 웃음을 피운 아들

등뒤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크렁카구음로들을 가리키며 말했네
《저게 다 우리가 세운거야요.》

아들은 긴말을 하지 않았네
허나 장한 아들의 땀도 깃들어있는
우람찬 구음로들을 둘러보며
어머니는 알게 되었네

아들의 어깨와 함께 자란
건설장의 높이를
건설장의 높이를 받들고 자라난
아들의 그 듬직한 어깨를

말로는 다할수 없는 자량과 기쁨이
가슴 가득히 차올라서
어머니는 그저 아들의 그 어깨를
쳐다보다가는 다시 쓸어보고
쓸어보다가는 다시 쳐다보았네

아들의 그 미더운 어깨가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솟은
크렁카구음로들의 높이
먼 미래에도 나래쳐오르는
조국의 높이라도 되는듯이...

영원한 건설의 근위병으로

오대석

눈보라치는 남대천기슭
진펄을 덮은 얼음을 까고
확장공사의 첫 기둥을 세울 때
우리 바란것 무엇이었던가

조업의 날
안전띠 풀어헤친 이 어깨우에
꽃보라 수북히 받고싶었던가
들먹이는 가슴에
위훈의 훈패를 번쩍이고싶었던가

아, 그것만이였다면
우리 오르지 못했으리

구름발을 휘감는
저 아슬한 굴뚝우에
감히 엄두도 못냈으리
단번치기 조립방법
통이 큰 우리 식의 발기도

뜨거운 입김으로
언손을 녹이며
한치한치 디디고 오른 이 높이
쏟아지는 폭우속에서도
물탈혼합물을 안아 굳히며
용접의 불보라를 날리던
그 돌격전의 낮과 밤들이여

준엄한 싸움의 불구름은 없어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의 구상속에
작전구역으로 점찍힌 이 땅은
오늘의 최전선

타고왔은 승리의 고지처럼
저 하늘높이
크링카구음로탑은 련줄련줄 솟았다

우리의 가슴은 벌써
늘어나는 강철의 소용돌이를 안았다

아, 언제나 이렇게
빛나는 조국땅우에
위훈의 큰자욱 새겨가리라
위대한 당을
목숨으로 옹위하는
영원한 건설의 근위병으로!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

최창근

별빛타고 오는가
달빛타고 오는가
은은하게 울리는
제야의 종소리

탁상등아래서
불밝은 창가에서
새로운 열정을 호흡하며
누구나 손목시계를 맞춘다

내 귀전에도
종소리는 범상치 않다
내 만약 인생의 하루하루
손에서 책을 놓는 날 있다면
그날은 저 종소리
뇌리를 후려치는 퇴성이 되리
온 밤 잠못이루며 뒤척이리

그러나 저 종소리
때식처럼 학습을 번지지 않는다면
그 나날에는 저 종소리
어머니 불러주는 자장가되리
아기처럼 평온한 잠을 청하고
고운 꿈도 깃들리

아, 종소리 종소리
흐르는 세월 다시 못오는 시간을
배움으로 이어주는
은혜로운 당의 끝없는 사랑이여

내 머리에
반백을 엮었어도
그 어디에 간들
저 종소리 들으며 살리
배우며...
학습하며...

고운 무지개

최광조

감빛노을에 물든
가을날의 시내가
일마친 처녀들의 맑은 웃음도
날알처럼 영글어 아롱지는데
머리수건 벗어들고 이쁜이 하는 말
-어마나, 무지개빛이 다 날았네

무지개빛 저 수건

처음엔 유난히도 곱던 꽃수건
봄내 여름내 별에 살더니
이 가을엔 그 색도 어지간히 바랬구나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라고
당의 뜻 받들어
흙 한줌도 제 살결처럼 보듬으면서

말 못하는 애기모와도 속삭이던 너

삼복의 더위에도

지름길 두고

개구리 놀라뛰는 논두렁길 멀리 에돌며

비료물 썰세라 돌도리구멍 막아줄 때

머리위에 따갑던 그 피약벌이

꽃수건의 고운 색을 날려간걸가

비바람 몰아치던 한밤중

사과나무가지 꺾일가봐

자리차고 달려나와 벌침목 고여줄 때

머리위에 쏟아지던 그 비줄기

꽃수건의 그 아름다움 씻어간걸가

아쉬워말아라 이쁜아

머리위에 무지개는 날아났어도

네 무르익힌 저 황금나락에

새빨간 과일동산

푸르싱싱 남새밭에

네 꽃수건의 무지개빛이 물들지 않았느냐

아름답다

네 펼쳐놓은 땅우의 무지개

꿈많은 네 가슴에 뿌리를 두고

천만년 꽃피워갈 사랑하는 고향땅에

만풍년의 향기로 찬란히 비겼으니

바람분다 그 빛이 날며

비가 온다 지워지랴

저기 보아라

하늘의 백학도 훨훨 내려앉누나

네 피운

땅우의 무지개 고향

그 무지개를 피운

네 마음이 더 고향-

이 트랙에 있어도

리금녀

저녁노을 교사의 창문을

꼭게 물들이는 이 저녁

그립던 제자라도 찾아온듯

가슴 자꾸 후터워져

학교뜨락 거니는 스승의 마음

며칠전엔 북부철길 건설장에서

어제는 판평언제에서

련이어 편지가 날아들더니

오늘은 분기계획 끝내고 꽃다발 받았다는

기계공장 제자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또 날아왔거니

아, 이 트랙에서 근 서른해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 내리기 시작하건만

이렇듯 기쁜 사연 받을 때면

가슴 부풀어 제자들에게로

하냥 달려가는 마음이어

얼마나 귀염둥이들이었던가

꿈이 많아 때로 엉뚱한 질문을 하던 그 꼬마

나의 아픈 심정 곧잘 알아주던

교수머리 그 학급반장

출석부에 올랐던 이름 순서대로 부르면

금시 달려와 모두 내앞에서 병실거릴듯

저 담너머 올해 첫열매맺은 살구나무는

지금 백리파원에서 원예기사로 이름 떨치는

그 제자가 심은것이 아니던가

저기 철봉대는

광복거리에서 연공으로 소문내는

그 제자가 세운것이 아니던가

두고 떠난 이 모교를 못잊어

모교의 이 옛선생을 못잊어

제자들 저마다 편지 보내올 때면

오늘도 그들앞에 교원으로

자신을 세워보는 마음이어

그렇적마다 지난날을 되새기며

어깨 또한 무거워져

온 나라 제자들의 일터가

모두 내 일터인듯 행복한 궁지여

아, 하기에 룽십고개를 바라보도록

청봉산기슭 아담한 이층교사

이 트랙에 있어도

온 조국땅의 숨결소리 나에게 닿아

내 평생 조국과 더불어 순간마다 젊어지노라

내가 찾는 사람

안선옥

부우-웅, 섹스폰의 중간음을 가볍게 울리는 듯한 기적소리! 길손들을 서두르게 하는 맵싸고 여문 호각소리, 달음박질하듯 역구내로 뛰어드는 긴 렐차의 요란스런 쇠바퀴소리.

소리와 소리들이 온통 허공에서 맞부딪치고 엇갈려 브라운운동이라도 하는 듯한 그속에 나도 한 줄기의 작은 소리가 되어 어깨에 멘 취재용 사진기 끈을 조이며 곁에 선 직맹위원장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되려 제가 잘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이동작업을 간통에... 허어...》

나는 조용히 그를 따라 웃었다. 아무려면 어떠랴. 모든것이 이바퀴폴리듯 착착 잘되었는데...

ㄷ강물을 산으로 끌어올려 호수를 만들다가 터지려는 관을 몸으로 막아 마을과 사람들과 귀중한 설비를 구원해낸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허구와 요란찬란한 미사여구도 필요치 않았다. 원고는 있는 그대로라도 감동과 눈물을 자아냈다. 다만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이 있다면 내 기사의 주인공들을 다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이다. 만나서 밤길도록 이야기라도 나눌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러나 훌륭한 소재를 취재한데서 오는 흥분, 그 흥분뒤를 따라오는 집필을 위한 조바심, 괜치 않은 기사를 편집부에 제출하게 됐다는 기쁨은 나로 하여금 더 지체할수 없게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후날 그렇게두 오래동안 검질기게 나를 괴롭힐줄은 아직 몰랐다.

...러행을 마친 사람들이 줄쳐서 승강대를 내렸다. 나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타산으로 혼잡을 헤치며 승강대가까이로 다가갔다. 이때였다.

《아, 아바이. 마침 오셨수다. 호랑이도 제소릴 하면 온다더니...》

바로 등뒤에서 직맹위원장이 청중은 목소리에 웃음까지 곁들였다. 어느새 담벽같은 어깨로 내 앞을 막은 직맹위원장이 조심스레 발판을 딛고 내리는 한 늙은이의 손가방을 받아쥐었다. 반백의 머리가 류달리 눈에 띄었다.

《아니? 직맹위원장이 어떻게?》

직맹위원장은 로인의 물음에는 아랑곳없고 나의 팔소매를 슬쩍 끌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나는 꼭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그를 따라서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이 아바이가 그 작업반 휘틀공입니다.

소문은 없지만 일에선 청년들도 기를 못퍼지요.》

나는 순간 그리웠던 사람들을 마주한 야릇한 패감을 느꼈다. 취재내용과 집필로 이미 마음속에 가까운 그들이다.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나는 기자다운 직업적 습관으로 찰박한 인사를 했다. 그때까지도 무슨 일인지 몰라 나와 직맹위원장사이에 눈길금을 긋던 아바이는 《그렇게 까!》하며 건성 대답하는품이 도대체 기사를 나한테 소개해서 뭘하느냐는 표정이 험했다.

《아바이, 이 기자동무가 아바이네 작업반을 취재했어요.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로 날리겠는데 원 이렇게두...》

직맹위원장은 쫓쫓 가볍게 허를 찼다.

《신문은 갑자기 무슨 신문?》

아바이는 마치 귀먹은 사람앞에서처럼 그렇게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나는 좋았다. 나는 꼭 무엇인가 유익한 말을 나누고싶었다. 그런데 시간은 촉박했다. 나는 작은 시계가 걸린 손목과 출발을 재촉하여 씩씩거리는 기차의 큰 몸통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진심으로 아쉬워했다.

《시간때문에... 다음번에 오면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뒤걸음을 놓아 승강대로 다가갔다. 기차는 다부진 몸매의 운전지휘원이 높이 든 풀색기발에 따라 공순하게 단조로운 선물을 허공에 휘뿌리며 배웅나온 사람들의 물결을 시원스레 털어버리고 레루를 따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인은 그제야 빙그레 미소를 그리며 아직도 승강대발판끝에 서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사람의 정이란 야릇한것이어서 헤어질 때에 두터워지는 법인가부다. 나는 전투처럼 가슴을 찌릿하게 만드는 알지 못할 충동으로 로인이 내맡긴 손을 꼭 잡았다. 차돌같은 못이 군데군데 박힌 그 손은 적지 않은 세월을 물과 세멘물탈에 적셔온 사람에게서만 느낄수 있는 특유한 촉감을 주었다.

굵은 웅이들이 매 마디마다 가락지처럼 불거진 그 손은 찢찢하고 더실더실한것 같다가도 어찌보면 파스하고 부드럽게도 느껴졌다.

얇은 주름발들이 거미줄처럼 엉킨 그의 거긋한 얼굴과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빛을 뿜는 서글서글한 눈을 바라보면서 아바이의 손을 잡던 나는 흠칫 하고 놀랐다. 몇번째 손가락인지는 알수 없으나 뭉청 잘리운듯한 느낌을 받았던것이다.

아니, 그것은 분명 엄지쪽 바로 곁의 둘째손가락이었다. 반이 넘게 뭉청 잘리운 손가락의 촉감,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오름을 느꼈다.

(아니?!)

하마트면 나의 입에서는 비명같은것이 튀어나올번했다. 나는 그 무엇을 자신에게 확인시키려는데 성급히 그의 얼굴을 놓칠세라 바라보았다. 수북한 눈썹밑의 커다란 눈, 류벌스레 턱을 온통 덮어버린 구레나룻... 그 얼굴은 분명 서론해가 넘도록 내 가슴속에 즙묻은 도장처럼 진하게 새겨진 잊을수 없는 얼굴이었다.

아! 나는 기쁨과 환희와 두려움 비슷한것이 온몸을 옥죄는바람에 입을 벌린채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열차는 야속하게도 서서히 역구를 떠나고있었다.

《손님, 들어가십시다!》

쨍쨍한 목소리가 귀전을 때리는바람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작달막한 처녀가 끊지 않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처녀는 자기의 당당한 권리를 증명하듯 흘러내리지도 않은 《열차원》 완장을 오동오동한 손끝으로 추켜올렸다.

그제야 나는 아직도 승강대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올라설 때까지 인내성있게 기다린 처녀는 발판을 내리고 문을 소리나게 꽂 닫고는 《문을 열지 마세요!》 하고 가버렸다. 처녀의 말을 어겨서는 안된다는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리창을 가로막은 살창짚에서 《열차가 달릴 때는 문을 열지 마십시오.》 하는 글자가 자그마한 합판 조각에 매달려 시계추처럼 흔들렸다. 처녀의 눈길보다는 퍼그나 아량있는 권고였다. 문을 열수만 있다면 한번 더 역사쪽을 바라보고싶었다.

나는 좀처럼 진정할수 없었다. 야릇한 그 무엇이 가슴을 누볐다. 아직도 그 손을 잡고선것만 같았다.

아, 그 손, 분명 그 손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다 못해 방망이질을 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얼마나 오랜 세월 가슴에 새겨안고 만나고싶던 사람인가? 언뜻 지나는 길에 잠깐 스쳐볼수만 있어도 가슴속에 영겨붙은 그리움을 순간에 녹여줄듯싶은 사람, 그렇다. 그는 아무리 꽃피고 눈오는 계절이 열백번 바뀔대도 결코 잊을수 없는, 잊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그는 나의 연인도 혈육도 아니다. 세일수 없이 많은 날들을 잔잔한 파도와 속삭이며 달빛이 흐르는 백사장을 거닐었거나 우짖는 밤새 소리를 들으며 이빨나무숲속에 오래도록 발목을 묻고서서 세상에 더없이 뜨겁고 다정한 이야기들만을 속삭이던 그런 연인이래도 이렇듯 그림지는 않을것이다. 그에 대한 추억의 무대우에는 아름답고 투명한 달빛대신 한치앞도 분간키 어려운 먹장빛 포연타래가 있고 이빨나무숲속의 하얀 북나무줄기대신 시뻘건 불줄기가 촘촘히 들어찬 총탄의 숲이 있다.

나는 그때 열여섯살. (물론 나를 증명할수 있는 일체 군사문건에는 두살이나 불균 나이가 적혀있었지만) 조국은 단발머리처녀의 어깨에 책가방이 아니라 무전기를 메워주었다. 매 사람이 스스로 조국앞에 개인의 운명을 통채로 맡기고 무한히 성실해야 하는 시기였다.

포연과 파편, 비오듯하는 총탄의 세례속에서 세월은 흘렀다. 나의 단발머리도 량갈래머리로 변해 잔등에 드레박줄처럼 늘어졌다.

이젠 결집 장난꾸러기들의 딱총도 무서워하던 내가 아니었다. 포탄이 바로 발부리에 날아와 터져도 나는 덤비지 않고 몸을 날려 자기를 구원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법을 배웠다. 준엄한 전쟁은 조국을 위해 한몸바칠 결심을 안은 녀전사에게 싸우는 법, 굴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어느날, 그날은 매우 음산한 날씨였다.

무겁게 드리운 하늘에서는 결례쪽같은 구름덩이들이 밀려다니며 아무데고 눈가루를 쥐여뿌리였고 바람은 구름과 승벽내기라도 할듯 보이지 않는 주적으로 심술궂게 숲을 온통 휘저어놓았다.

게다가 사정없이 밀려드는 추위는 뼈속까지 저미는듯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모든 자연의 변덕을 미처 느낄 계체가 못되었다. 적후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우리 조가 뜻밖에도 적과 조우하게 되었던것이다. 치열한 접전이 시작되었다. 부대에 마지막 보고를 무전으로 날린 나는 그만 복부에 심한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다. 조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황전사마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적들은 먹이를 본 이리떼마냥 날뛰며 덤벼들었다. 나는 최후순간을 각오하며 수류탄을 랑손에 갈라들었다. 하나는 적들의 뒀, 다른 하나는 나의 뒀, 이제 이발로 안전고리를 뿜으면 그만이다.

내가 막 일어서려는 때였다. 갑자기 귀에 익은 따발총소리가 울리는것과 동시에 경마장의 말처럼 날뛰던놈들이 태질을 하며 무리로 너부러지는것이 보였다. 이것은 순간에 있는 일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릴새 없이 인민군대복장의 두 전사가 달려왔다. 생사를 판가르는 결전장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순간의 기쁨과 상봉의 눈물이 얼마나 짜거운가를 결코 알수 없을것이다. 우리 셋은 서로 부여잡고 초면에 구면이 되어 어쩔줄 몰라했다. 내 상처의 응급처치를 해주던 그들은 나에게 무전기가 있음을 알고 몹시 기뻐했다. 귀중한 보고가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나의 무전기는 숨을 죽인채 까딱도 안했다. 적들과 조우시에 잘못된 모양이었다. 하는수없이 우리는 그대로 행군을 시작했다. 일행은 모두 셋, 그 셋중의 한사람이 김아바이였다. (다른 한사람 원산포마라는 전사도 나처럼 김아바이에 의해 구원됐다고 했다.)

아, 왜 그때 아바이의 이름을 알아 기억해두지

못했는지. 만약 인간이 한치 앞을 내다볼줄 안다면 이런 후회는 없었을것이다. 나는 지금도 때때로 무엇이나 꼼꼼히 새겨둘줄 아는 녀성의 섬세성이 부족한 자신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모른다. 하긴 불과 하루낮, 하루밤을 함께 지냈으니 어떻게 이름까지 다 알아 기억하랴. 거둬되는 적의 추격, 포위를 뚫고나가는 어려운 길, 심한 부상, 더구나 나는 수집음의 대명사와도 같은 녀성이 아닌가.

나는 그저 꼬마전사가 그렇게 부르는대로 《김아바이》라는것만을 알고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의 확실여부도 잘 모르겠지만. 혹 꼬마전사가 체나름으로 그랬을수도 있을테니까.) 하지만 그는 《아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이른 30대의 전사였다. 술진 눈썹과 큰눈 그리고 그의 특징적인 바리톤역양과 얼굴을 까맣게 덮어버린 구레나룻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전쟁의 엄혹한 시련이 사람을 나이보다 늙게 만드는지... 어쨌든 나는 순간에 그 《아바이》라는 명칭이 입과 귀에 익었다.

나는 그들과 정들었다. 그들은 건빵도 내뚫으로는 언제나 듬뿍 넘겨주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스스럼없이 반군하였다.

갈길은 매우 어려웠다. 성한 사람은 아바이뿐이었다. 나의 복부상처가 독을 쓰기 시작했다. 날은 벌써 어둡고 추위도 혹심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아바이는 부러진 통나무우에 앉아 말없이 잎담배를 태웠다. 나는 술가지우에 누워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했다.

《아바이, 절... 여기에 두고 가세요. 네?》

《쓸데없는 소릴 또 할가?》

《흑...흑...》

나는 끝내 흐느끼고야말았다. 꼬마전사는 《순진동무!》 하고 사죄하듯 은근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러더니 한쪽 눈을 찔끔하고 히죽 웃었다. 어린애처럼 뭘 그러냐는 속대사이다. 처녀처럼 빨갛고 오동통한 두볼을 가진 꼬마는 그 인상 깊은 불우물을 살짝 지었다. 그도 틀림없이 나처럼 거짓나이로 입대했을것이다. 그런데도 어른스레 굽어보는것에 나는 약이 올랐다. 만약 그때 누워있는 몸이 아니었다면 나는 상등병이라는 건장의 도움을 받아 《전사 일어섯!》 하고 소리쳤을것이다. 나는 그때 확실히 신경이 바늘끝처럼 곤두섰던것 같다.

어느덧 나의 머리꼭과 발아래에는 싸리나무가지로 고깔불이 피워졌다. 잠시후 그들은 나를 동굴속으로 옮겼다. 다시 내걸에 불을 피워놓고 눈속을 헤쳐 가져온 가독일들로 폭신한 자리를 만들어준 아바이는 원산꼬마와 함께 식량도 구하고 적정도 살필겸 마을엘 다녀오겠다고 했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을뿐 다른 말을 못했다. 그저 그들이 무사히 돌아와주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그

날밤이 가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으나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나를 버리고 떠났을가?)

그때야 나는 두고가라고 울던것이 자신에 대한 무서운 기만이라는것을 가슴아프게 느꼈다. 그들을 떠나서 나는 살수 없는 몸이었다. 말할수 없는 공허가 가슴그득 밀려들었다. 갑자기 무서워졌다. 불길도 마지막 연기를 올리고있었다. 동굴속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거대한 폭음처럼 귀아프게 마쳐왔다. 놀란 박쥐들이 어느 구석에선가 푸득거렸다. 머리칼이 쭈뼛이 일어난다는 말의 참뜻을 이때처럼 느껴본적이 없다. 혼자서 별의별 난가리를 다 쌓고있을 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는 허리춤에서 수류탄을 찾아들었다. 만약의 경우 피값이라도 해야 했다. 동굴속으로 들어서는 두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아바이와 꼬마였다.

아! 나는 저도모르게 목멘 소리를 내며 어깨를 떨었다. 웬일인지 그들은 별로 반기는 기색없이 잠간 마실을 다녀온듯 태연스레 고깔불을 다시 세웠다. 해방전 머슴을 살 때 작두날에 잘리워 한마디 기장이 없다는 아바이의 몽롱한 둘째손가락이 삭정이들을 해집을 때마다 류별나게 드러났다. 말없이 그를 바라보던 나는 놀랐다. 하루밤새 그는 정말 《아바이》로 변했던것이다. 희미한 불빛에 움푹 꺼져들어간 두눈과 홀쭉 빠진 볼이 보였다.

(?!)

나를 피하듯 머리를 돌리고 동굴속 어딘가를 더듬고있는 원산꼬마의 초점없는 눈길, 불을 해집는 아바이의 떨리는 손...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의 말을 못들은듯 불결에서 마라초 한대를 다 태운 아바이는 꼬마와 함께 혼연히 일어섰다.

《자, 이젠 떠나자!》

동굴밖에 나서니 전쟁이라는 엄혹한 현실과는 달리 수림은 평화로웠다. 용케 숲속으로 기여든 해빛이 나무가지에 솜꽃처럼 흰 눈송이들을 녹였다. 그 서슬에 술가지끝에 수은알처럼 맺힌 물방울들이 신기하게도 반짝하고는 떨어져버렸다. 나는 눈이 시여 머리를 돌리다가 다시한번 놀랐다. 바로 앞에 밤빛 말을 메운 발구가 서있었다. 말없는 그들의 진정에 가슴이 몽클했다. 나는 발구우에 실렸다. 아바이는 굳이 사양하는 원산꼬마도 발구의 한쪽귀에 강다짐으로 들어앉히었다.

우리는 길아닌 길을 헤치며 갔다. 다래덩굴을 겨우 빠져나오면 가시를 잔뜩 돌히고 선 두릅나무발이 펼쳐졌다. 그곳을 지나니 아름드리나무들이 앞을 막아서 한걸음도 빠질수가 없었다. 겨우 산 하나를 극복했다. 앞에서는 말고삐를 잡은 아바이가 휘적휘적 걷고있었다. 그런데 어제만 하여도 즐거운 이야기쯤 한두마디 할줄 알았던

아바이는 마치 말 못하는 자동기계처럼 움직일뿐이었다. 원산꼬마와 이야기를 나눌 심산으로 그를 눈길로 찾던 나는 그만 아연해졌다. 그의 뺨간 뺨우로 번쩍이며 흐르는것이 있었다. 눈물이란 슬픔의 상징이 아닌가. 어쩐지 불안해지며 온몸이 오싹했다. 그제야 나는 동굴속에 들어서던 그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음미해보았다. 무엇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것이 분명했다.

《왜 그러나요? 무슨 일로? 네?》

나는 꼬마의 군복자락을 슬며시 당겼다.

《뭘시 아파요?》 꼬마는 슬쩍 눈물을 닦으며 땀을 썼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고 했던지 입술이 어색하게 일그러졌다.

《네? 어서요!》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졸랐다. 꼬마는 무엇인가 망설이며 아바이와 나를 엿바퀴 바라보았다. 눈속을 헤치며 묵묵히 걸어가는 아바이의 처진 어깨는 잔등에 가득 실린 근심에 짓눌려있었다. 꼬마는 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들이 내려간 마을은 바로 김아바이의 고향인 남강원도 어느 야산밑이었다. 꼬마는 아바이를 따라 나무 한그루를 방패삼아 지은 외딴 돌막집으로 손기척도 없이 들어섰다. 귀를 잡아도 모를 어둠속에서 토방이며 문손잡이를 대낮처럼 가려내는 아바이를 보고 꼬마는 이것이 누구의 집인가를 어렵지 않게 알아맞추었다.

《아니? 영남이 아버지세요?》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기다린 산증거인양 어둠속에서 반기는 목소리였다. 이어 술깡불이 켜졌다. 동복인지 겹옷인지 알수 없는 검스레한 옷을 걸친 녀인이 여윈 어깨를 숙구며 의심반 기쁨반이 실린 표정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기운 자리가 어지러운 옷에 큰눈과 웃음이 고인 입술이 펴 인상깊었다. 그 시절에 이 나라 모든 녀인들이 그러했듯이 정지막에는 감자알이 박힌 보리밥이 따끈한채로 있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지칠줄 모르는 안해들의 그 살뜰한 마음이 말없이 뒤를 받쳐주기에 남편들은 육박전의 마당에서 숨을 거두면서도 편안히 잠들수 있었으리라. 그들이 보리밥을 나누는 사이에 영남이 어머니가 쌀과 의복이며 약가지들을 배낭안에 쟁겨넣었다.

《곧 돌아오시겠지요?》

집을 나서는 그들의 등을 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루만졌다. 헤여지기 어려운데 발길을 돌린 아바이는 썩근거리는 어린것의 얼굴을 오래도록 조심조심 어루쓸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한 안해의 눈물이 어린것의 불우에 점점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애무가 될줄이야.

그들이 돌막집을 벗어나 막 산기슭에 붙었을 때였다. 갑자기 마을이 불바다가 되더니 돌막집 근처에서도 벽을 잘리우는 돼지의 악청같은것이 들렸다. 놈들의 어지러운 고향소리, 고막을 찢어

발기는 총소리, 사람들의 아우성소리… 실로 아비규환의 절정이었다. 이어 그중 한갈래 아우성이 코밑으로 가까와왔다. 충천하는 화광에 한 녀인이 어린것을 안은채 앞에서 걸어오는것이 보였다. 피물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는것이 녀인의 얼굴에 즐편하다. 이때 달려나가는 전사를 끄잡아 눈속에 꿰어앉히는 사람이 있었다. 김아바이였다. 녀인뒤에 헤아릴수 없이 많은 적들이 앞뒤좌우로 철벽의 진을 치고 흘러갔다.

《아바이…아바이…!》

꼬마는 가슴을 치며 몸을 떨었다.

《저 원썩놈들을… 저 원썩놈들을…》

《조용 못할가?》

《…?!》

《자, 가세. 우리에겐 모험할 권리가 없어…》

뜻밖에도 아바이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잠시후 끌려간쪽에서 사람들의 증오에 찬 부르짖음과 함께 요란한 총성이 물방으로 터졌다. 뒤로 참기 어려운 정적…

꼬마전사는 아바이가 짝 거머쥔 왼손이 아프게 조여오는줄도 모르고 눈속에 쓰러졌다.

…

나는 흐느껴울었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가까이에서 아바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순진인 꼭 어린애지… 썩하면 눈물이 구… 출지. 아프구. 조금만 참자. 저 령만 넘어서면 된다.》

모포깃을 여며주던 아바이의 손이 나의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주었다. 뭉청 잘리운 그 손가락이 추위에 얼어 얼음썩각같이 뻘뻘하고 차가웠다.

발구가 한번 흠칫하더니 떡 버티고섰다. 길을 내지 못한 말이 걸음을 멈추었다. 헉헉 단김을 내뿜으며 주둥이를 허공대고 휘돌렸다.

《썩-》 모진 아픔을 박살내듯 빈 공간을 향한 아바이의 채찍이 휘파람소리를 냈다. 그의 눈은 불을 뿜고있었다.

말은 다시 길을 내기 시작했다. 눈은 정쟁이를 넘었다. 우리가 령중턱에 올라섰을 때였다.

《조금만 더 가자!》

말한테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에게 하는 소리인지 아바이는 말잔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바로 이때 우리 일행을 놀래우며 따-쿵, 따쿵- 여무진 총소리가 지척에서 들렸다.

《아바이, 놈들입니다.》

원산꼬마의 급한 목소리였다. 발구는 령길을 발뼉발뼉 툭아올랐다. 원산꼬마가 발구우에서 놈들을 향해 대응사격을 시작했다. 어느덧 발구는 령우에 올라섰다. 아바이는 가쁜숨을 몰아쉬며 발구걸로 달려왔다. 이마며 얼굴에 가득 돌아난 땀방울들이 줄기를 이루어 흐르다가는 턱수염 끝에 물방울처럼 맺혔다. 두눈은 이글거리는 장

작불과 흡사했다. 아바이는 황급히 가슴앞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다. 그 손은 떨렸다. 단추가 단단히 채워져있었음에도 아바이는 무작정 주머니안에서 무엇인가 잡아뽑으려고 애썼다. 그 서슬에 간신히 매여달렸던 단추가 떨어져달아났다. 아바이는 주머니안에서 손바닥보다 작은것을 꺼냈다. 비물이 들지 않게 유지로 단단히 싸졌이었다.

《여보게, 이걸 부탁하네. 어떡하나 꼭 전해야 하네. 여기서 월봉산으로 곧추 가던 우리 사람들이 있을거네.》

그 무슨 소중한 작전문건인듯 아바이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아바이는 마지막으로 그 넓은 가슴에 전사를 그려안았다. 그 뜨겁고 열렬한 포옹은 피를 나눈 살붙이에게만 있을수 있는것이였다. 전사는 몸부림쳤다.

《아바이, 뒤일은 제게 맡기고 어서 떠나십시오. 나는 못가겠습니다.》

원산쪼마는 아바이의 팔을 풀고 획 돌아서더니 적들을 향해 내달렸다.

《전사 셋!》

평소에 것처럼 조용한 아바이에 게 그런 벼락같은 소리가 숨겨져있을줄 누가 알았으랴. 아바이는 말없이 그 유지에 싸졌을 전사의 앞가슴에 깊숙이 찔렸다. 최후를 결심하고 동빛으로 굳어진 아바이의 얼굴은 금방 퇴색을 더치며 폭발할듯 싶었다. 쪼마전사와 내가 어쩔새 없이 아바이는 《썰-어!》하고 말에 힘찬 채찍을 주었다. 말은 내리받이길을 따라 사정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삼시에 눈사태가 일며 사람도 말도 뽀얀 눈안개속에 묻혀버렸다. 뒤에서 아바이의 추상같은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이놈들이, 여기 있다아-!》

그다음 콩북뚝하는 총소리... 총소리...

나는 발구우에서 의식을 잃고말았다.

그날밤. 따뜻한 방안에서 나는 정신을 차렸다. 처음엔 부연 장막이 눈앞에 꼭 차더니 차츰 그것이 걷히워지며 쪼마전사의 너부죽한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꿈인가싶어 나는 애써 정신을 가다듬었다.

《처녀가 정신을 차렸수다!》

석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아바이!》

나는 반가움에 소리나는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목소리의 임자는 김아바이가 아니었다. 수수한 바지저고리에 무명조끼를 받쳐입은 낯선 로인이었다.한뼘이나 될 허연 수염이 먼저 보였다.

아래마를 놓가였다.

《아바이는?》

《...》

《네? 어떻게 됐어요? 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예요. 그럴수 없어요...》

나는 그 말이 제발 거짓이기를 바랐다.

쪼마전사는 머리를 외로 돌렸다. 불편으로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금방 드르륵 소리를 내며 굴러내릴듯 싶었다.

《흐-억...》

목메인 소리가 나더니 그의 어깨가 세차게 흔들렸다. 나는 모든것을 예감했다. 삼시에 눈안가득 샘처럼 솟아 고인 눈물이 량귀를 향해 주르르 쏟아졌다.

《아바이... 아바이... 김아바이...》

베개잇을 흠뻑 적시며 나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문을 열자요!》

누군가가 나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바람에 나는 추억의 심연에서 헤여났다.

렬차는 벌써 다음역구내에 들어선것이다. 금방 문을 열자던 렬차원처녀가 울퉁한 눈으로 나를 빠르게 올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미안해요.》하고 량해를 구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제야 나는 두 볼이 선들선들한 느낌에 손을 대보았다. 눈물이 즐편했다. 내리고 오르던 손님들이 조용해지자 렬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문을 열지 말라는 그 판자조각이 흔들렸다.

...

그후 나는 쪼마전사와 헤여지게 되었다. 그는 나를 가까이 있는 야전병원에 입원시키고 부대로 돌아가게 된것이다. 헤여지던 그날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나는 혹시 아바이의 이름이라도 찾을가싶어 쪼마전사가 부대에 전하려고 가져가는 아바이가 남기고 간 유물을 조용히 펼쳤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 유지에 싸졌은 글자들을 깨알처럼 박아쓴 뚜껑도 없는 수첩이었다. 거기에는 ㄷ시를 지켜 마지막까지 싸운 ㄷ시지하조직원들의 영웅적투쟁이야기와 공로가 한자한자 정성들여 적혀있었다. 아! 아바이가 정령 이것을 위해 목숨을 바쳤단말인가! 그는 이렇듯 귀중한 동지들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귀중한 목숨을 바쳤던것이다. 이름없는 산중에 묘비도 없이 자신의 한몸을 바치면서도 그들을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고 조국에 말없는 부탁을 남기고 간것이다. 그러나 아바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후 나는 야전병원의 침대우에서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그 지하조직원들의 투쟁이야기가 엄숙히 소개되고 그들의 이름이 영웅이라는 금별메달과 나란히 빛났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위훈을 세상에 천하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느고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친 한 인간은 이름 한자조차 남기지 못하였다. 나는 문득 잠결에

도 가슴이 쓰리고 뜨거운것이 눈안에서 땀돌 때면 자리를 차고 일어나군했다. 그때마다 혼자서 실컷 울면 마음이 좀 가라앉군하였으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혹시나 하여 나는 부상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김아바이의 얼굴을 찾곤하였다. 그것이 부질없는짓인줄 알면서도...

치료가 거의 끝나가던 어느날 나는 뜻밖에도 꼬마전사에게서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는 그후 어느 군의소로 쫓겨온 모양이었다.

《기뻐하십시오. 순진동무!》

이렇게 허두를 땀 편지에는 김아바이도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살아있다는것이었고 함께 병실에 있다는것이였다. 그후 나는 지루하고 안타까운 입원생활을 마치고 그 병원으로 찾아가는 날까지 거의 매일밤 두세번씩 깨어나군했다. 잠결에 나를 부르는 아바이의 목소리가 들리군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만나고싶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환각이였다. 일부터 병원까지 찾아갔었지만 환각속의 기쁨만도 못한 현실이 나를 기다렸다. 그 병원은 이미 전선을 따라 자리를 옮긴 뒤였다. 천리길이라도 찾아가보고 싶었지만 나는 그때 받은 부상으로 군대에 더 복무할수 없게 되었다. 후방으로 돌아온 나는 대학을 마치고 기자가 되었던것이다.

솔직히 말하건대 나는 아바이를 잊은적이 없다.

실로 추억이란 세월의 물결에 싸여 흘러가버린 다고들 하지만 나의 추억은 그것을 거슬러 자꾸만 올라오는듯싶다.

기자라는 신분의 혜택으로 나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김아바이를 찾고 또 찾았다. 저 북변 해발고가 몇천을 헤아린다는 백무고원으로부터 철의 기지 김책과 공업도시 함흥, 검은금 폭포치는 안주와 개천, 만경창파우에 몸을 싣고 먼바다 어장인들 안가본데가 있으랴. 그때마다 수많은 김아바이들을 만났지만 내가 찾는 김아바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인간에게 고유한 인내성은 그 한계점을 넘어 이젠 그만 단념하라고 나를 불들어 세우기도 하였다. 그럴수록 이름할수 없는 무엇인가가 어떤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미지의 그곳으로 나를 조용히 떠밀어주군했다. 단념하자고 마음다질수록 더욱 만나고싶어지는 아바이였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내가 찾는 김아바이와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니 내 심정이 어떠하였으랴.

...나는 달리는 차창에 어제날의 《김아바이》를 그려보았다. 세월도 세월이니 늙었을것이다. 아무리 늙었다 한들 그 잊을수 없는 손이야 어찌 달라지랴.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난담!

정작 생각이 여기까지 똥어오르자 초조해나기 시작했다. 되돌아가고싶었다. 확인하고싶었다.그

려나 렬차는 나의 안타까운 심정도 아랑곳없이 쏜살같이 달리고만 있었다.

×

그로부터 보름후, 나는 우연히 사농장으로 취재를 떠나게 되었다. 나는 기뻐다.왜냐 하면 그 농장으로 가는 길에 김아바이를 찾아볼수 있기때문이다. 사언제건설을 마친 김아바이네들이 사지방으로 일터를 옮겼다는 소문을 나는 이미 인편에 들었던것이다. 가는길에 건설사업소 사무실을 이리저리 물어 찾아 들렸을 때는 텅빈 방안에 단발머리 통계원처녀만 오토기처럼 앉아있었다.

《아이, 기사선생님. 또 오셨네요!》

이미 구면인 처녀는 달짝 일어나더니 내 손에 든 가방을 냉큼 받아 책상우에 놓았다.

《아이, 선생님. 기사를 읽고 우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떠들어댔던지 글썄 휘틀공아바인 성까지 났어요. <무슨 큰일을 했다고 신문에까지 내가지고 법석이나? 조용들 못할가... 어쩸!>》

처녀는 제법 늙은이의 기침소리를 그럴듯하게 앞세우더니 뒤집을 책 쥔고서 손끝으로 책상우에 곰방대 터는 시늉을 했다. 전쟁때 생각이 났다. 아바이는 길쭉하게 만 마라초를 대통처럼 털군했다.머슴을 살 때 생당썩물부리를 쓰던 버릇이라고 했다.

(틀림없을게다.)

나는 어째선지 설레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는 마음을 녹잡하며 물었다.

《그 아바이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나는 그의 입에서 《박》이나 《최》라는 말이 먼지 튀어나올가봐 겁이 났다.

순간 나는 몰랭두같이 빨강게 부풀어오른 그의 귀여운 입술에 그 어떤 운명적인것이라도 담겨있듯 긴장해졌다.

《네? 이름요? 김아바이라 해요.》

《김아바이?》 온몸이 짜릿했다.

《원래 이름은 김돌쇠인데 다들 그렇게 불러요.》

《아니. 그게 정말... 정말이지?》

나는 처녀의 손을 꼭 거머쥐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야야! 아니, 왜 이러세요?》

처녀는 얼른 손을 뚝으며 밍지 않게 응석을 부렸다.

《그럼 거짓말할가?》

장난기어린 눈이 천진스레 웃었다.

《김아바이가 전쟁에 참가했더랬지?》

나는 강요하듯 불었다.

《예, 용감한 경찰병이였대요. 영화에서랑 보셨지요? 사슴털같은 점박이옷을 입고 전선을 바람처럼 넘나들었대요.》

처녀는 설새없이 종알거렸다. 나는 뜨거운것이

온몸에 퍼지는것을 느꼈다.
 《아바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날까?》
 《왜요? 또 취재하시려구요? 벌써 새 소식을 다 알고 오셨나요?》
 즐겁게 떠들던 그는 금시 울상을 했다.
 《어쩌나, 모두들 달래산에 갔는데...》
 《김아바이두?》
 《예, 선생님. 우린 산을 깎아내리고 저수지를 만드답니다.》
 《산을 깎다니?》
 《글쎄 산을 깎아내리려면...》
 처녀는 무슨 통계양식우에 손톱금을 그어가며 귀엽게 말했다.
 《산을 깎아내리자면 불도젤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해요. 그러자면 60리길을 에돌아가야지요 뭐. 그런걸 김아바이가 막 반대해나섰어요. 언제 60리길을 에돌겠느냐구 하시면서... 아바이의 주장은...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불도젤을 거꾸로 운전한단말예요. 몇미터 올라가단 삽날을 이렇게 척 떨어지면 불도젤이 밟고 다시 또 올라가다 삽날을 떨어주고... 이런 방법이면 순간에 산마루로 오르내요. 비슷하지요?》
 《응... 그런데 될가!》
 《더러는 안된다구들 해요. 헌데 안될것 같지는 않아요. 김아바이가 하시는거니까.》
 처녀는 그 이름을 확신과 존경에 넘쳐 불렀다. 나의 마음 한끝은 벌써 김아바이에게 달아있었다. 끝모르게 즐거워졌다.
 처녀를 끌고 밖으로 나온 나는 길을 물었다.
 《저어-기이... 저기...》
 처녀의 손끝 멀리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움직이는 산이 바라보였다. 경기장처럼 분주스러웠다.
 《그래, 됐어...》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피약벌에 익은 사람이 물을 마시고싶은 심정이랄까. 마침 그 산은 내가 찾아가는 농장쪽에 있었다. 먼눈에 지척이여도 십리가 삼십리 맞잡이라는 산골길이니 조금 있다가 떠나는 차를 타고 가라는 처녀의 말을 귀등으로 흘리며 나는 숨돌릴 사이 없이 곧바로 산을 향해 걸었다. 아닌게아니라 길은 험하고 멀었다. 나는 산을 휘여감고 흘러간 강을 건너 곧추 올라갔다. 돌이 구르고 노래가 흐르고 웃음이 터지고... 산관은 명절처럼 붉었다. 불도젤 두대가 뒤걸음치며 산을 오르고있었다. 처녀의 말처럼 오르다가는 삽날을 덜컥 떨어주고 그리고는 또다시 오르군했다. 철갑을 쓴 거대한 괴물앞에 산은 무릎을 꿇고있었다.
 내가 황홀경에 빠져 막 산중턱에 들어서려는 때였다.
 《불도젤이 미끄러진다!》
 《사고다! - 사-아고-오!》
 나는 와플 놀랐다. 새된 소리들때문에 귀가 멍

멍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부르며 뛰쳐가며 뛰어가는곳으로 달려갔다.
 《아니? 왜 그러세요? 네?》
 누구도 내가 자기들과 나란히 달리고있다는것을 잊은듯했다. 대답이 없다. 나는 달리면서 귀동냥소리로 불도젤이 땅밑에 바위가 숨어있는것을 몰랐다는것과 그래서 삽날을 박지 못한채 미끄러진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어마나! 어쩌나!)
 나는 등골에 얼음버께가 내배는듯했다.
 《저걸... 저걸... 잡아라! 세워라!》
 사람들이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불도젤은 급경사를 따라 사정없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비켜라! 비-켜!》
 차창으로 젊은 운전수의 질린 얼굴이 보였다. 저대로 내려가다가는 불도젤과 사람이 한꺼번에 물에 떨어지게 된다.
 《내려라! 뛰어내려!》
 조급한 웨침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다. 이때였다.
 누군가 통나무를 메고 구울듯 달려내리는 불도젤을 향해 다가가는것이 보였다.
 《아! 김아바이!》
 나는 저도 모르게 웨쳤다. 역에서 만났던 그 아바이가 틀림없었다. 구뭇한 등어리, 반백을 넘긴 머리칼, 통나무가 실리워 더욱 구부정해보이는 잔등우로 목에 건 수건이 기폭처럼 날렸다.
 《아!》 나의 말이 선창이기라도 한듯 경란인지 놀라움인지 가늠키 어려운 군중의 합창이 일었다.
 《아이구머니나!》
 빨간수건을 쓴 처녀가 얼굴을 싸쥐었다. 나도 그만 몸서리를 쳤다. 통나무를 멘 아바이는 무작정 미끄러져내려오는 불도젤밑으로 달려들었던것이다.
 《어마나!》
 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어쩌나... 어쩌나... 이 일을 어쩌나...》
 나는 떨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도 알수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려었다. 내 몸뚱이마저 통채로 통나무와 함께 불도젤밑에서 짓이겨지는 환각으로 나는 전율했다. 다음순간 또다시 《아!》하는 군중의 외마디 탄성이 울렸다. 마치 대합창단이 금방 떨어던 후렴구를 지휘자가 멈춰세웠을 때처럼 사위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듯싶었다. 나는 두려워한 그것이 끝내 온듯싶어 더는 참지 못하고 눈을 떴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불도젤은 땅에 뿌리내린듯 밟고 그 육중하고 거만한 쇠몸뚱이를 버티고 선 사람이 있지 않는가? 불도젤의 우악스

런 삽날은 금방 짓썬어삼킬듯 입을 딱 벌리었는데 그 삽날밑에 통나무를 고이고 어깨로 치받으며 안간힘을 쓰고있는 그는 바로 방금전 내가 것처럼 끔찍한 순간을 보지 않으려고 몸을 떨던 그 김아바이였다. 땀에 젖어 몸의 룬박을 그대로 그리고있는 작업복밑에서 거센 숨을 툇을 때마다 근육들이 불끈불끈 일어섰다.

《야!》 활줄처럼 팽팽하게 행기웠던 군중의 긴장이 삽시에 풀리었다. 사람들이 불도젤을 향해 달려갔다. 저마다 어깨를 삽날밑에 들이밀었다. 나도 끌리듯 봄비는 불도젤을 향해 다가갔다. 어느새 발동을 건 불도젤결에서 하나 둘 사람들이 물러났다. 나는 눈더듬으로 아바이를 찾았다. 그러나 그 구불한 등과 흰머리칼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없었다.

《누가 불도젤을 멈췄어? 누가?》

사람들은 서로서로 눈길을 맞췄으며 물었다. 나는 자신만이 알고있는 그 비밀을 누가 건드릴까봐, 왜서인지 그것이 더없이 소중해보여 말없이 몸을 돌렸다. 문득 저 아래 산밑으로 스택스적 걸어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분명 김아바이였다. 웬일일까? 나도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바이가 걸음을 멈춘 큰 바위아래 그득 쌓여있는 통나무무지가 보였다. 그것은 이런 순간을 예견한 아바이의 숨은 노력의 증표였다. 아바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 다시 통나무 한대를 메고 내리던 때처럼 스택스적 산을 거슬러올라갔다. 나는 벌써 숨이 차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야 만났구나. 드디어 인제야...)

나는 완전히 자신을 잃었다. 오랜 세월 그려온 모든것이 순간에 현실로 될것이다. 나는 가슴을 조이며 아바이를 향해 갔다. 얼굴을 더 가까이 보고싶었다. 다시 불도젤은 산을 툇아오르기 시작했다. 아바이는 힘에 겨운지 통나무를 내려놓고 땀을 씻으며 서늘한 강바람이 물려오는 산아래쪽으로 돌아섰다. 아바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순간 나는 하마트면 비칠할번했다. ...

그는 나의 김아바이가 아니었다. 그 얼굴에는 내가 상상해보던 술진 눈섭두, 큰눈도, 구레나룻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 렬차가 떠날 땐 왜 그렇게 보이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때문이였는지...

나는 뒤통수를 번바로 얻어맞은듯 머리가 뻥했다. 수염 한대 보이지 않는 휘틀공아바이의 기름한 얼굴에서 가는 실눈이 조용히 웃고있었다. 나의 이마우로는 진한 땀발이 뻘룩이 내돌렸다.

(?!)

방금전까지 이처럼 온 가슴을 가득 메우며 널뛰듯하던 심장이 싸늘히 식어가는듯하더니 온몸에 이룰할수 없는 허탈감이 휩쓸어들었다. 몸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곁에 선 어린 나무가지를 짊 쥐었다. 캄캄한 눈앞에서 불씨가 튀었다.

아! 내가 찾은 김아바이는 정녕 없단말인가? 혹시... 어찌 다 알수 있으랴. 꼬마전사의 그 편지를 받은후 나의 김아바이가 또 어느 전투에서 희생되었을지. 아니면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전후에 세상을 떠났을지... 아니야. 용감한 사람에게는 총탄도 피한다는데... 그런 아바이는 희생될 수 없어.

아바이, 김아바이...

나는 무엇인가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것을 영영 찾을수 없게 잃어버린듯한 아수함을 안고 내가 무엇때문에 여기로 왔는지조차 의식 못чан히 휘청휘청 걸음을 옮겼다.

어데선가 이상한 소리로 울어대는 물새의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랭정하게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이 부질없는 미련을 단념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나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그곳을 떠나 취재목적지인 농장으로 갔다.

×

농장의 가울은 아름다웠다. 은빛해넘은 하늘에서 땅우로 내리비치고 로적가리는 땅우에서 하늘로 솟아올랐다. 눈부신 해빛은 가울걸이를 끝낸 무연한 벌과 웃음소리 높은 창문들과 분배장의 출판까지 끌고루 찾아다니며 어루만져주었다. 한해농사 끝나면 만나자던 청춘들의 푸른 꿈이 흐르는 시내가에도 해빛이 맑았다. 어데서 날아왔는지 알수 없는 까치들이 풍년분배장의 술대문에 벌써 《새집》을 마련했다. 영원히 살려고 작정한 《주력》인지 아니면 분배기간만 관광을 위해 마련한 《별장》인지 누구도 알수 없었다. 분배장의 경쾌한 농악소리에 까닭없이 즐거워진 까치들이 흰 앞가슴을 보기 좋게 드러내놓고 무엇인가 즐거운 소식을 까악까악 전하고있었다.

그날은 모든것이 즐겁고 환희로웠다. 농장의 풍년분배경사에 이어 방송야회가 시작되었다. 마침 《만풍년소식》 취재차로 나갔던 나도 도방송위원회에서 조직한 방송야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야회는 농장예술소조원들이 부르는 합창으로 막을 올렸다.

다음은 누가 첫 마이크를 차지하겠는가고 말하는 도방송기자의 목소리가 울리자 여기저기서 《청년분조장!》 하는 소리가 제창을 이루었다. 이어 탄탄한 몸매에 구리빛 얼굴이 유표한 한 청년이 마이크앞에 나섰다.

《저... 저는 이 경사스런 날에 꼭 먼저 자랑하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웅성이던 군중은 곧 잠잠해졌다.

《저희 분조가 이처럼 높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는 우리 분조의 모든 일을 뒤에서 반들어주신 김아바이의 숨은 노력을 첫자리에 꼽지 않고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

(김아바이?)

나는 반사적으로 귀가 솔깃해졌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것이 인제는 하나의 습관처럼 몸에 배었다.

청년분조장은 영양단지를 갖 옮긴 강낭밭에 된서리가 내리던 그밤 밤새껏 불을 피우고 그 알미운 땀을 쫓아낸 이야기며 장마끝에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여름날 쏟아지는 사태속에서 어떻게

포전을 구원해냈는가를 조리있게 이야기했다. 이따금씩 군중의 경탄이 장내를 메우곤했다. 청년의 말마디들마다 김아바이라는 이름이 첩약의 감초처럼 고루 섞여있다. 나의 가슴은 또다시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단념했던 기대가 순식간에 헛순처럼 되살아났다. 나는 긴장해졌다. 진정하라! 그대의 김아바이가 아니다! 리성은 나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으나 심장은 리성을 무찌르며 다시금 높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 좋은 날 숨은 땀을 많이 흘린 김아바이를 무대에 올리자고 제의했다. 군중은 분배장이 떠갈듯한 박수로 응했다.

《김아바이, 어서요. 어서!》

모두들 입을 모아 찾았다. 간절한 눈길들이 허공에서 마주칠뿐 어디에도 김아바이는 없었다. 이때였다.

《아, 저기 오신다! 김아바이다!》

나는 수백쌍의 기쁜 눈빛들이 일시에 쏟아져내리는 바로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흰수건을 얹은듯 하얀 머리칼만 보이는 로인이 주섬주섬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청년분조의 꼬맹인듯한 작달막하고 귀여운 처녀의 손에 이끌려오고있었다. 처녀는 누구에게라 없이 원망인지 자랑인지 알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아이, 글썄 이 좋은 날 탈곡장에서 떨어진 벼이삭을 줍다니요!》

아닌게아니라 아바이의 손에는 줍이 벌게 벼이삭들이 들려있었다. 군중은 와-하며 다시금 박수를 쳤다. 아바이는 처녀가 이끄는대로 어줍게 몸을 말긴채 어쩔바를 몰라했다.

나는 눈을 비볐다. 유난스런 해빛에 조명된 아바이의 얼굴이 영화화면에서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술진 눈썹, 흰점들이 섞인 구레나룻...

...나는 참지 못하고 벌떡 몸을 일으킨다. 무대우로 막 달려올라간다. 아바이의 넓은 가슴에 몸을 통채로 묻는다.

《아바이,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순진이에요. 목숨으로 구원해준 그 순진이에요.》

나는 어깨를 펴며 흐느껴운다. 아바이의 투박한 손길이 나의 얼굴이며 머리칼을 쓰다듬는다.

《아니, 네가 정말 순진이야? 어디 보자. 순진아, 나도 찾았다, 찾았어. 이렇게 몰라보게 되다니? 그 눈모습만은 여전하구나...》

평소에 그렇듯 말없던 아바이는 일생 다하지

못한 말을 순간에 터친듯 두서없이 이야기한다. 나의 뺨이며 이마에 녹은 연딩이같이 무겁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덩이져 구른다. 아바이는 울고 있다.

《울지 말아나의 뺨이며 이마에 녹은 연딩이같이 무겁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덩이져 구른다. 울지 말라는데두.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만났는데...》

자기도 울고있다는것을 잊은 아바이는 오히려 나의 얼굴이며 뺨을 껴맨 손으로 닦아주고 또 닦아준다. 잊을수 없는 그 손으로...

그러나 이것은 그리움의 환영이었다. 아바이는 여전히 무대우에 서있었고 나는 틀림없이 객석의 맨뒤에 앉아있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그러나 다음순간. 무슨 말인가 하며 아바이가 오른손을 쳐들었을 때였다.

(?...)

자연이 준 조명등인 환한 해빛에 아바이의 오른손가락끝에 박힌 다섯개의 가쁜 손톱들이 그 무슨 도금칠한 쇠붙이처럼 번쩍이는것이 보였다.

(아!)

이 모든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것처럼 사실이었다. 나는 털썩 소리나게 자기 가슴을 쳤다.

아, 운명이며. 사람을 끌려도 분수가 있지. 나는 오랜 세월 끈덕지게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하고 기쁘게도 눈물겹게도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미련을 저주하고 또 했다. 나는 더 앉아있을수 없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야회장을 조용히 빠져나온 나는 관리위원회마당 앞 토방돌우에 맥을 놓고 앉았다.

《아니? 기자동무가 아니세요?》

반가운 부름에 나는 어설픈 웃음을 억지로 그리며 머리를 들었다. 농장관리위원장이었다.

머리를 끄게 쫓겨올린 그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같지 않게 날씬한 몸매의 녀인이었다. 그는 이 그려진 나의 얼굴을 보았는지 급한 소리를 내며 내 손을 잡았다.

《왜 그러세요? 네? 어디 아프세요?》

구급환자라도 대하는듯한 관리위원장의 놀란 눈이 순간에 엄청나게 커보였다.

《묻지 마세요. 네? 묻지 마세요...》

나는 끝내 그의 손을 가슴가까이 끄당기며 어깨를 떨고야말았다.

높은 솔대문우에서 까치가 각각 울었다. 이어 깃을 치며 날으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마가 불덩이같아요! 어서 더운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아니예요. 정말 아니예요.》

그는 내가 진정하기를 기다려 사연을 물었다. 나는 잊지 못할 그날을 더듬으며 소리죽여 이야기했다.

흰눈 덮인 수림속, 수림을 헤쳐가는 발구, 발구우에서 흐느끼던 처녀... 그다음 총소리... 아바이

의 마지막웨침이 허구한 날 김아바이를 찾고 또 찾아 해매던 일...

관리위원장도 나와 함께 눈굽을 찍었다. 그의 파스한 손이 녀성들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아량과 푸근한 인정미를 풍기며 나의 손을 어루쓸었다.

《관리위원장동무, 세상에 김아바이는 많고 많은데 내가 찾는 김아바이는 왜 없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것처럼 모두 훌륭했지만 나는 나의 김아바이를 찾을길 없습니다...》

나는 덧붙여서 내가 만나본 《김아바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태어난 고장, 얼굴모습들은 서로 달라도 그들은 모두 나의 김아바이처럼 혁명대오에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알았고 혁명에 바칠 자기의 몫을 알았다.

나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다 듣고난 관리위원장은 조용히 나의 손을 잡으며 띠엌띠엌 말했다.

《그렇지요. 우리 시대엔 누구나 다 <김아바이>지요. 시대에 대한 임무와 혁명에 대한 자각 바로 그것으로 하여 김아바이들이 많은 우리 나라가 아닙니까!》

관리위원장은 타는듯한 얼굴에 고운 미소를 고평히 띄우며 다시금 나의 손을 꼭 쥐었다.

《기자동무, 너무 상심 말고 기뻐하세요. 그 김아바이도 지금 어디서 훌륭하게 살고계실거예요.》

《...!!》

나는 희망과 확신과 기쁨으로 변하여 파도처럼 일렁이는 그 무엇을 가슴흐뭇하게 느끼며 그의 손을 마주 꼭 잡았다.

은백색 햇빛은 아름다운 농장벌을 한가득 채우고도 남아 저 멀리로 퍼져갔다. 밝은 햇빛이 흘러가는 저 산을 넘으면 마을, 마을 지나 벌, 벌에 잇닿아 또 산... 자연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그 모습 그대로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달라졌다.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 땅에 포화가 흐르던 준엄한 시절에, 6만톤 대신 12만톤의 강재가 쏟아지던 천리마운동의 날들에, 서해갑문 건설장의 날바다를 메우던 80년대속도창조의 불바람속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금별의 위훈과 함께 빛나는 이름들을 이 땅에 새겼던가.

바로 이들뒤에는 수천수만의 김아바이들이 조용히 서있는것이다.

나는 매일과 같이 가슴을 태우며 찾고 또 찾던 그 무수한 김아바이들속에 바로 자기가 살고있다는것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후련해지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 방송야회는 끝나지 않았다. 우렁찬 노래소리는 풍년든 대지에 울려퍼진다. 말없이 피와 땀을 묻어가는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있는 이 땅우에...

비내리는 봄날에

-인민군렬사탑앞에서-

고영수

혼자선 볼수 없어
가슴속엔 더더욱 묻어둘수 없어
편지 한장 품고 온 머리회숙한 너인
봄비에 옷자락 젖는줄도 모르는듯

고향집 뒤에 두고 전선으로 떠나간
그리운 남편의 모습만갈아
정겹게 쳐다보는 그 얼굴에
추억의 미소 어리어라

발목을 덮는 사래긴 이랑에서
보슬비 함께 맞던 못잇을 그날처럼
기쁨에 목이 메어
너인은 편지사연 조용히 아뢰이누나

...

지휘관이 된 영웅의 아들을 보니
그 아버지가 보고싶다 하시며

열병식대오에 친히 아들을 불러주신
수령님의 다함없는 그 은정을!

아, 그냥은 듣고만 있을수 없어
한자리에 그대로 서있을수 없어
병사는 어느덧 감격에 젖어
너인의 곁에 내려서는가

환호의 열병광장에 들어설 아들을
아버지와 나란히 그려보며
목메여 속삭이는 너인의 얼굴에
소리없이 구슬지는 뜨거운것이어

아, 비는 내려도 행복에 젖는
너인의 마음 창창히 개인날이구나
그 짧은 한장 편지속엔
영생하는 병사의 삶이 담겨있기에

당일군의 풍모에 대한 참신한 형상

명일식

최근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에서 주목되고있는 측면의 하나는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일하고있는 당일군의 풍모를 참신하게 형상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일을 잘하면 자연히 인민들의 존경을 받을것이며 따라서 우리 당의 위신도 더욱 높아질것입니다.》

단편소설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조선문학》 1987년 2호 권강일)의 리당비서와 단편소설 《눈이 내린다》(우와 같은 호 김영길)의 종합기업소 초급당비서의 성격은 새로운 생활과 독특한 묘사수법으로 당일군의 풍모를 비교적 참신하게 잘 형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단편소설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는 밝고 명랑한 유치원아이들의 류다른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속에 깊이 들어가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돌봐주고있는 평범하고 친근한 사람으로서의 당일군인 리당비서의 성격을 특색있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은 유치원 교양원 장미가 《자랑관》에 자기가 붙이지 않은 박세철이라는 어린이의 글을 누가 붙이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것을 단서로 하여 유치원아이들이 파릇파릇 푸른 옷차림을 한 봄빛 찬란한 벌로 봄맞이 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리당비서와의 교감과정에 그것이 밝혀지고 단편소설의 계기가 해명되는 짧은 이야기이다.

당일군들의 사업범위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참으로 넓고 방대하며 중요한것이다. 그런것만큼 지금까지 당일군들을 형상한 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단편소설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에서처럼 유치원아이들의 생활을 통하여 당일군의 풍모를 보여준 소설은 없는것이다.

혁명의 미래이며 꽃봉오리들인 유치원아이들의 생활에 대하여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고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사업에서 예외로 될수 없는 중요한 사업분야의 하나이다.

유치원아이들의 생활속에서 형상된 당일군의 풍모는 맑은 거울속에 비쳐진 모습처럼 뚜렷하고 불수 있다.

단편소설은 이처럼 전혀 새로운 유치원아이들

의 생활을 무대로 하여 당일군의 풍모를 참신하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에서 보는것처럼 길가에서 리당비서를 보자 스무명도나마되는 유치원아이들의 얼굴은 순간에 꽃처럼 피어나며 그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석에 끌려가는 철물처럼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가 친아버지를 만난것처럼 기뻐하며 어깨며 목에 허물없이 막 매달린다.

아이들의 마음이란 티없이 맑은 샘과도 같은것이어서 억지로 한결음도 당길수 없으며 사랑을 기울여준것만큼 따르는것이다.

작가는 길가에서 리당비서를 반기는 유치원아이들의 모습 하나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지금까지 아이들을 친부모처럼 사랑하고 사람들속에 깊이 들어가 살고있는 당일군인가 하는것을 충분히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는 또한 당일군으로서의 리당비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구체적인 생활로 생동하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은 다음 장면에서 아이들의 조그마한 손이 리당비서의 눈을 가리우고서 누구인가를 알아맞추는 생활이 펼쳐진다.

리당비서는 눈을 가리우고서 아이들에게 말을 시켜보고는 목소리를 가늠하여 누구인가를 맞추기도 하고 또 손더듬으로 키와 옷을 가려보고 누구인가를 알아맞추곤한다.

누구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한두번 만나보고서는 이 단편소설에 나오는 리당비서처럼 누가 누구인가를 목소리나 옷매무시를 가려보고 척척 알아맞출수 없는 것이다.

누구의 키는 얼마만하고 또 누구는 일상적으로 어떤 옷을 많이 입고 다니며 누구의 목소리는 어떻다는것을 잘 알아맞추자면 한집에서 살고있듯이 늘 관심하고있어야 한다.

단편소설은 또한 당일군인 리당비서의 성격을 아이들의 외형만이 아니라 담당 유치원 교양원까지도 미처 헤아려보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속까지 환히 꿰뚫어보고있는 구체적인 생활을 섬세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리당비서의 눈을 세번째로 감싼 자그마한 손은 바로 박세철어린이의 손이었다. 그 손을 어루만지는 리당비서의 손끝은 바로 두번째손가락의 조금 비뚤어질사한 손톱없는 손가락에 가 멎었다.

순간 리당비서는 그가 바로 박세철어린이라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그늘이 질것 같아 일부러 다른 아이의 이름을 두번씩이나 부르다가 나중에야 세철이의 이름을 부르며 업고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그때에야 교양원 장미는 리당비서가 바로 박세철이의 글을 《자랑판》에 붙였다는것을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수 있었으며 자신을 깊이 뉘우치고 리당비서를 한없이 우러러보는것이다.

얼마나 고맙고 친근한 사람인가!

담당교양원도 미처 생각지 못한 박세철어린이의 마음속을 먼저 알아보고 그의 마음을 꽃처럼 활짝 피워준 리당비서.

바로 이런 훌륭한 당일군들에 의하여 우리 아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영원히 받들어갈 혁명의 후비대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이 아닌가.

단편소설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는 이처럼 유치원아이들속에서 살고있는 당일군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당일군의 높은 품모를 참신하게 형상하였다.

단편소설은 또한 제목이 말하여주고있는것처럼 서정적이며 낭만적인 생활을 펼쳐보임으로써 독특한 맛을 돋구어주며 작품의 예술성을 한층 더 부각시켜주면서 당일군의 형상에 이바지하고있다.

당일군의 높은 품모에 대한 참신한 형상은 또한 단편소설 《눈이 내린다》에서의 종합기업소 초급당비서의 성격형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단편소설에서 초급당비서가 나오는 대목은 얼마 길지는 않다. 하지만 그의 성격이 강한 인상으로 독자들의 머리속에 남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진 당일군인 종합기업소 초급당비서의 성격을 독특한 묘사수법으로 참신하게 형상한데 있다고 보아진다.

단편소설은 《ㄷ간석지》건설자들이 눈내리는 날에 1만정보를 맨 먼저 막고서 그 총화로 수훈식장으로 가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은 다 차를 타고가는데 작업반장 최중선이만은 홀로 먼 제방뚝을 걸으며 이미 떠나간 기사장에 대하여 추억하는 이야기이다.

최중선은 눈길을 걸으며 수백리의 제방을 건설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와 같은 인간들을 많이 키워내고는 뜻하지 않던 일로 세상을 떠나간 림기사장을 잊지 못하여 그가 해놓은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본다.

하얀 눈이 덮여 제방은 잘 보이지 않지만 최중선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림기사장의 수고는 걸음

걸음 더 되살아났다.

바로 이때 그의 앞으로 발목까지 빠지는 눈속을 헤치며 모자도 안쓰고 덧옷도 없이 내리는 눈을 그냥 맞아 눈사람같이 되어버린 사람이 마주다와오고있었다.

그가 바로 종합기업소 당비서였다.

초급당비서도 최종선반장과 똑같은 심정으로 눈덮인 제방뚝을 걷고있었다.

가슴에 번쩍이는 훈장이 또하나 늘어나는 이 기쁜날에 그보다도 이 제방뚝에 스며있는 림기사장과 같은 참다운 인간들을 잊지 못하여 그들을 추억하며 홀로 눈길을 걷고있는 당일군.

단편소설은 이처럼 눈사람처럼 되어버린 초급당비서의 모습 하나를 통하여 그의 높은 인간애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 당일군의 품모를 참신하게 보여주고있다.

눈길을 걸으면서 옛 기사장을 추억하는 최종선반장과 함께 처음부터 당일군의 품모를 보여주지 않고서도 눈사람처럼 되어버린 당비서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성격형상을 참신하게 보여준것은 작가가 새롭게 탐구하고 발견한 독특한 묘사수법이라고 볼수 있다.

단편소설은 또한 당비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미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도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추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높은 표창이라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깊이있게 해명하여주고있다.

이미 세상을 떠나간 참다운 인간들의 위훈을 세상에 널리 그리고 영원히 전하려는것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진 당일군의 품모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모의 하나로 된다.

현재 있는 사람들보다 이미 떠나간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여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품속에서 살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만 베풀어지고있는 크나큰 사랑인것이다.

따라서 이미 떠나간 사람들을 추억하고 그들을 내세워주며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나게 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일군들의 사업에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단편소설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와 《눈이 내린다》는 특색있는 새로운 생활과 독특한 묘사수법으로 우리 시대 인간전형인 당일군의 품모를 참신한 형상으로 훌륭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벽찬 현실속에서 특색있는 새로운 생활과 독특한 묘사수법들을 더 깊이 탐구함으로써 우리 시대 당일군들의 품모를 더 참신하게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나의 성장과 함께

김정호

가슴속 환희와 걱정을 불러내며
장쾌하게 울리는 기적소리-
바래워주고싶어
조립장 철문에 기대어
손을 흔드는 3대혁명소조원
이내 마음이어!

잘 가거라 《붉은기》호
창조에 나날에 태어난 전기기관차야
나의 노래도 살고
나의 성장도 살고

바라보니
총차입장을 떠나
쿵쿵... 지심을 흔드는 저 무쇠바퀴들
나와 늘 일손이 잘도 맞던
조립공들의 그 마음 비껴 빛나는것이나

아침노을 곱게 물든 저 차창들은
대학생차림으로 내 처음 공장에 들어서던 날
반겨 맞아주던 그 웃음들이나

정녕 무심히 볼수 없구나
이 가슴에 넘치는 기쁨을 살고
붉은 기쁨을 앞머리에 번쩍이며
이 땅을 달려가는 전기기관차여

너는 이제 달려가리라
억만 채부 가득 실은 차량들을 이끌고
80년대 진군길따라
위훈의 열풍을 안고-

시대의 벅찬 숨결 호흡하며
내 또한 달려가리라
3대혁명전위답게
언제나 전진의 기발 추켜들고

오, 애젊은 나이에 벌써
혁명가의 참된 삶을 빛내여주는
그 믿음에 보답할 맹세없이
내 어찌 너를 바래랴

어디서건 높이 올려다오
이 가슴에 넘치는 걱정의 환희를
푸른 꿈 설레는 대학시절부터
3대혁명의 지름길을 달리는
내 성장의 큼직한 자욱 새겨주며

잘 가거라 《붉은기》호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배푸시는
그 사랑 그 믿음 속에 태어난
너와 나의 기쁨을 이 땅에 전하며
사람도 기계도 새롭게 탄생하는
그이의 위대한 꿈을 온 세상에 노래하며

울바자에 대한 시

류정형

령넘어 은은히
포성 울려오는 길가집
남진의 길에 들린
그 어느 소대를 위해
어머니는 또다시 쌀을 이는가

들리고 떠나가는 전사들마다
의용군으로 떠나간 제 아들같아
물젖은 손 마를새없이
군대의 뒤바라지가 기쁨인
령남의 어머니

미대를 털어
아침을 당부하고
잠간 차려진 행군중의 이 휴식
전사들은 어느새 말뚝잠이 들었는데
조용히 쌀을 이는 어머니
아시는가 이제는 땀나무도 떨어진줄...

아침도 몇번
저녁도 몇번
때없이 끓여야 하는 때식

화독같이 달아오른 저 구들목이
나무가리 밀자리마저 다 먹어버린줄
어머니는 모르시는가, 입가엔 그저 웃음

에구, 시장들 하겠구만...
그저 그 말이면 다
물맞추 가마에 쌀을 안치고는
치마귀 여미며 프락에 나서시네
나서더니 마당가의 울바자를 뽑아안네

아, 남녘땅 찬바람속
일찌기 남편잃고 아들 하나 키워올제
프락을 둘러친
고삭은 울바자밑에서나마
험한 세상 가려주는
안식을 찾던 어머니

이제는 어이 하시려나
이 작은 프락이
폭풍 세찬 전장에 이어졌으니
애오라지 바람을 막아줄

마음의 의지를 송두리채 뽑았으니

아궁이엔 활활 치솟는 불길
가마엔 풀풀 뿜는 하얀 김
이때라 쪽잠에서 깨어난 전사들
허전한 그 프락에서 모든걸 깨달으며
어머니를 찾아 목이 메는데

그 전사들의 등을 어루쓸어주는
어머니 말씀이 가슴을 치네
-이제야 우리 군대가 왔는데
울바자는 해서 뭘하겠나
어서 들어가 조반상이나 놓게

그 아침엔 전사들
각별히 무거워진 손가락을 들었네
그리고 서둘러 길을 떠났네
침략자를 쳐물리친 조국의 기슭에
어머니의 집도 그 품에 있는
조국의 영원한 울바자로 서기 위해

방문기

시대의 숨결속에서

김해성

일터치고 건설장처럼 거창하고 들끓는 일터는
없을것이다. 우리가 찾아간 마그네샤크링카생산
능력확장공사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총
돌격전으로 세차게 뚫어번지고있었다.

여기 동해기슭에서 날과 더불어 더욱 웅장하게
더욱 현대적인 새 모습으로 일떠서고있는 마그
네샤크링카생산기지는 전진하는 조국의 숨결인양
거세차게 소용돌이치는 열풍으로 우리를 맞아주
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구상과 지도 밑에 진행되는 중요대상건
설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특히는 인민
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설계도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매
우 중요하고 보람찬 사업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
를 가지는 이 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것을 흐뭇
이 바라보며 지금의 주공대상인 제품싸이로공사
장으로 향했다.

1. 위훈의 창조자들이 여기에 있다

제품싸이로는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된 생산기지

에서 팡팡 쏟아져나올 마그네샤크링카가 쌓이게
될곳이다. 이 거대한 싸이로들은 분조를 다투며
쭉쭉 솟아오르고있었다. 앞에 다가서면 그 어마
어마한 위용에 저도몰래 주눅이 들다가도 이런
건물을 마음대로 척척 만드는 우리 인간들의 무
궁무진한 힘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하는 싸이로
들!

이곳 건설자들은 위력한 우리 식 건설공법으로
싸이로들을 동시에 쌓아올리고있었다. 원래 한
달이상은 걸려야 하리라던 이 아름다운 공사를 단
10일동안에 해제끼는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여기에서는 직업도, 성격도, 나이도, 사는교장
도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고 손발을 맞추어 콩크리트타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공사의 시공주인 근위41광업건설사업
소 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 그리고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사무원들과 지원자들, 3
대혁명소조원들, 가정부인들...

기중기들이 연해연방 물탈바가지들 들어올리면
전투원들은 불이 번쩍나게 물탈을 철근이 우죽
비죽 솟은 휘틀안에 처넣고 꿈꿨다. 여기서
도 저기서도 《타입 끝!》 하는 힘찬 보고가 들린
다.

그러면 시공지도원 김청송동무의 구령에 맞추

어 전투원들이 싸이로휘틀에 설치된 수백개의 자끼를 돌린다. 원형휘틀들이 나란히 솟구쳐오르면서 그걸로 미장을 한듯 미끈하게 다져진 콩크리트결면이 드러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맞추어 한분새로 똑같이 자끼를 돌리는 모습은 마치 음악에 맞추어 하나의 일치되고 조화로운 춤가락들을 무대에 펼쳐놓은 무용수들을 방불케 했다. 또 그들이 한 번 용을 쓸 때마다 싸이로가 쑥쑥 키통음하며 자라오르는것은 얼마나 신기한가. 부지중 건설에서 나오는 신비한 힘을 가진 장수들이 련상되면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탄이 터져나왔다.

이 일터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기중기운전공이었다. 휘틀작이 끝나면 철근들을 다 잇기전에 싸이로마다에 필요한 몰탈을 날라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기중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타입속도가 좌우된다. 실새없이 우르릉거리며 집채같은 바가지에 몰탈을 가득 담아 한번의 군동작이나 실수도 없이 정확히 제자리에 쏟아붓는 기중기의 능란한 솜씨는 실로 경탄할만 했다.

저 우람찬 기중기를 모는 운전공은 아마 건설로 나이가 든 듬직하고 로숙한 사람일테지...

그런데 한차레의 작업을 마치고 운전을 교대한 운전공이 기중기에서 내려오자 우리는 그만 어처구니없는 지레짐작에 스스로 민망스러워졌다.

그는 몸집이 작고 연약해보이는 단발머리처녀였다. 금시 봉오리를 터친 한뼘기 꽃같은 애어린 처녀가 이 큰 공사장에서 저 대짜기중기를 장난감 다루듯 껌싸게 몰았던말인가?

우리는 기중기운전공 최계숙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힘들지 않소?》 하고 우리가 묻자 처녀는 해말간 얼굴에 홍조를 머금었다.

《아이참, 일을 하고 일을 해도 더 하고싶은것이 이 건설장이랍니다.》

처녀는 일도 거침없이 잘했지만 말도 역시 거침없이 잘했다. 하긴 눈앞에 거연히 솟아오르는 이 큰 싸이로들은 곧 이 처녀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어찌 보람이 크지 않으랴.

《동문 이다음에도 여기에 와보면 정말 감회가 클거요.》

《참, 먼 후날 사람들이 이 싸이로들을 보면서 기중기를 운전한 단발머리처녀를 생각할까요?》

처녀의 영동한 물음에 우리는 어안이 빙빙해졌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 그 어떤 공명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기엔 처녀의 애된 얼굴이 너무나도 맑고 순진해보였기때문이다. 처녀는 우리의 심중을 알아챈듯 방그레 웃었다.

《나무라지 마세요. 전 어렸을 때 화려한 거리를 거닐면서, 웅장한 공장들을 견학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용광로들과 큰집들을 누가 일떠세웠을까 하고 생각하곤했어요. 그때 전 동화에서 나오는 무쇠팔뚝의 장사들처럼 우람진 거인들을 그려보곤했지만 저와 같은 단발머리처녀의 모습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 제가 이처럼 큰 건설장에서 기중기를 몰게 될줄이야...》

이 순간 처녀의 얼굴을 붉게 물든 홍조는 노을

처럼 아름다왔다.

그렇다, 다름아닌 이 애되고 천진스러운 처녀가 바로 자기의 두손으로 거대한 창조물들을 안아올리는 우리 시대의 경이적인 장수가 아닌가. 로동당시대의 수많은 《건설》들은 바로 이처럼 평범하고 슬기롭고 성실한 인간들에 의해 창조되거늘.

사람들이여! 여기에 전설속의 장수들이 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혁신자가 되고 시대의 영웅이 되고 전설속의 장수가 되는곳! 여기가 바로 우리의 일터-보람찬 건설장이다.

2. 그들이 쓰는 시

청춘이 있는곳엔 랑만이 있고 랑만이 넘치는곳엔 위훈이 창조되는 법이다.

타입의 한 공정이 끝날무렵, 한켠에 설치된 지휘마이크에서 격정적인 목소리가 울리었다.

절벽을 들부실듯
세차게 달려오는 파도처럼
바위를 파헤칠듯
창창 떨어지는 폭포처럼

청춘이여 너는
그처럼 굴할줄 모르는
도도함으로 불리운다
그처럼 지칠줄 모르는
용맹함으로 불리운다
...

청춘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랑송이었다. 어느 기동에술선전대가 왔는가? 아니, 자기의 열렬한 감정을 그대로 내뽐고있는 청년은 청년돌격대 선동원 박명환동무였다. 보통기에 몸이 다부진 그의 얼굴에서는 열정이 솟불처럼 이글거리고있었다. 젊음의 미란 이런 흥안의 청년을 두고 하는 소리리라.

우리는 인차 그와 친숙해질수 있었다.

《동문 시를 무적 좋아하는게지?》

우리가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한때는 저도 시인이 될 꿈을 안고 자작시를 써보곤했습니다. 그런데 잘되지 않더군요. 아마 이 책상물림에겐 현실체험이 너무 부족했던가 봅니다. 때를 써서 청년돌격대원이 된 저는 시대정신이 약동하는 이 일터로 달려왔습니다.》

공감되는 말이다. 우리는 그에게 물었다.

《그런즉 시를 찾아 이 건설장에 왔단말이구만. 그래 좋은 시를 썼소?》

《아직... 그러나 꼭 쓰겠습니다. 사실 이 건설장 어디에나 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길 보십시오.》

청년은 눈썹리가 모자라게 펼쳐진 넓은 건설장을 가리켰다. 벌써 20미터의 높이에 이른 이 싸이로우에서는 하늘을 떠받들듯 우뚝 솟아오른 새수직로들이며 고도로 현대화된 생산체통의 갖가지 건물들과 구조물들, 서로 키를 대보듯 나란히

서서 공중높이 한껏 치달아오른 크고작은 굴뚝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이제 새로 일떠선 저 수직로들에서 마그네사 크링카가 폭포처럼 쏟아져 이 싸이로마다에 그득히 쌓이겠지요. 이 마그네사크링카폭포는 어버이 수령님의 기쁨이 되고 온 나라의 기쁨이 될 기쁨 폭포가 아닐까요?》

《기쁨폭포라, 이건 정말 멋있는 시요.》

우리는 환성을 올렸다.

《아직은 모르익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공사가 완공되어 마그네사크링카가 쏟아져나올 때면 저의 시도 완성될것입니다. 크링카폭포와 함께 이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는 걱정을 또한 폭포처럼 터뜨려야지요. 그날을 위해 전 힘껏 일하겠습니다.》

이 낭만적인 청년은 우리와 헤어지자바람으로 청년돌격대원들속에 뛰어들어가 주먹을 흔들며 선동연설을 한마디하고는 걸싸게 일을 해제끼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렀다.

우리는 청년의 모습에서 오래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청년은 글로써가 아니라 기쁨의 폭포를 마련해가는 자기의 고귀한 구슬땀으로써 어머니당에 드리는 뜨겁고 열렬한 시를 창조하고있지 않는가.

어찌 저 청년뿐이라. 이곳 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흘리는 한방울한방울의 구슬땀이 이제 우리 시대의 창조물로 솟아오르고 크링카폭포로 쏟아져내릴것이니 정녕 이들이 조국을 위해 바치는 성실한 로동-그것은 그대로 이 땅위에 영원히 새겨지는 시였다. 충성의 송가였다.

3. 우리가 찾은 주인공

16개의 미끄럼식원형회틀을 덧붙여놓은 발판은 하나의 커다란 무대를 방불케 했다. 기중기의 동음, 호각소리, 지휘구령, 유쾌한 통지거리, 웃음소리, 나팔소리, 북소리, 방송원의 열기띤 음성...

각이한 음색의 소리들이 한데 어울려 장쾌한 화음을 이루고 그 반주에 맞추어 성수가 난 로동의 룰동이 차넘치는 그 《무대》를 바라보느라니 건설자들과 함께 흠뻑 땀에 젖어 일을 해보고싶은 충동이 솟구친다.

어느덧 우리는 일판에 뛰어들었다. 흥겨운 추판을 구경하다가 오금이 들썩거려 더 참지 못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처럼 건설자들과 한데 어울려 일하면서 우리는 이 거창한 일터에 대한 글을, 더 정확히 말해 이곳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에 대한 글을 쓰고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으로 되어야 할것인가? 나는 이 보람찬 로동의 무대에 펼쳐나선 사람들중에서 매혹적인 주인공을 찾아보았다.

이 타입공사장의 꽃으로 불리운다는 저 건설공처녀? 아니면 혼자서 차끼 두대를 달아 랑손으로 단꺼번에 잡아돌리며 두뭇, 세뭇 한다는 저 억대우같은 제대군인청년? 아니면 건설이 시작된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건설장에 찾아와 청년

돌격대원들의 친누이가 되어준다는 저 아주머니? 누구나 할것없이 세상에 자랑하고싶은 사람들이었다.

《물이 떨어졌는데 뿔프 뭘하는가?》

지휘마이크에서 울리는 벼락같은 목청에 사색은 깨어졌다. 빈 물통을 든 몇명의 건설자들이 초조히 서성거리는것이 눈에 띄었다. 알고보니 물뿔프가 뚫은것이다. 웬일인가? 고장났는가?...

물없이 는 타입공사를 할수 없다. 여기서는 혼합장에서 실어오는 세멘트혼합물에 적당히 물을 쳐서 묽음을도를 조절해가며 타입을 진행하고있었다.

모두 안타까이 뿔프장쪽을 바라보는데 그쪽에서 수염이 거뭇한 사람이 랑손에 물이 담긴 초롱을 들고 다급히 뛰어왔다.

땀흐르는 얼굴, 뒹겨나는 물방울에 화락하니 젖은 아래도리...

그는 부채작업반장 전운필동무였다.

성미가 급한 한 젊은이가 마주 달려가 물초롱을 받아들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일부러 뿔프를 세웠네.》

그러자 젊은이는 펄쩍 뛰었다.

《일부러 세우다니요? 정신있습니까?》

《동문 뿔프에서 어지러운 물이 나오는데 못보오? 흙성분이 조금이라도 세멘트혼합물에 섞이면 퉁크리트의 강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걸 모르진 않을테지요?》

《그까짓 약간 흐려진 물때문에 타입을 멈출수야 없지 않습니까?》

《뭘요? 우린 몰탈과 함께 건설자의 랑심을 이 싸이로벽에 다져넣어야 하오.》

작업반장의 노기띤 음성은 공사장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쳤다.

타입공사에 필요한 혼합물보장을 맡고있는 전운필아바이는 방금 공사장에 나왔다가 뿔프로 퍼올려쓰는 늪의 물이 흐려진것을 보게 되었다. 때는 봄철이라 한낮이 되면서 얼어든 땅이 녹자 주변의 흙탕물이 늪에 흘러든것이다.

《우린 조금이라도 어지러워진 물을 쓸수 없네. 좀 힘들어도 맑은 물을 길어다 몰탈을 이기자구.》

반장아바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여러 청년들이 물통을 들고 공장공업용수탱크가 있는곳으로 냅다 달려갔다. 우리는 그들의 전장에서 땀을 철철 흘리며 물을 길어오고있는 전운필아바이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얼마후 자동차가 큰 물통을 적재함에 싣고 맑은 물을 실어나르자 타입공사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우리는 어쩐지 물이 흐려진 늪으로 가보고싶었다. 공사장에서 얼마간 떨어진곳에 자그마한 늪이 있었다. 그곳에 이른 우리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말았다.

전운필작업반장이 아래도리를 벗어던지고 무릎을 치는 찬물속에서 삽질을 하고있었기때문이다. 아바이의 관꼴이 두드러진 두볼이 시퍼렇게 질렸다. 나는 그가 감탕에 어지러워진 물을 정확히

길 웅덩이를 파고있음을 깨달았다. 밤이면 다시 땅이 얼면서 물이 맑아진다. 아바이는 그 맑은 물을 따로모아들 물주머니를 만들고있었던것이다.

우리가 아바이를 감동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아까 싱갱이질을 하던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는 무릎을 건어올리고 침방 물에 뛰어들어가 아바이의 사를 빼앗았다.

《반장아바이, 관절염이 또 도지면 어떻게 하자고 그럼니까?》

《괜찮네. 물을 계속 자동차로 날라쓸수야 없지 않나.》

《원참, 아바이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그저 열흘동안에 싸이로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세우다보니...》

《이사람, 그 열흘이란 날자가 왜 필요하나? 우리가 공사를 빨리 했다는 보고를 해서 칭찬이나 받기 위해서인가? 아닐세, 우리 조국을 더 빨리 전진시키기 위해서이지. 이 크링카생산기지는 오늘날뿐만아니라 백년, 이백년후에도 조국의 부강을 위해 필요할테지.

난 우리 시대 건설자들에 대한 가장 정당한 평가는 백년, 이백년후에 후대들이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때 후대들은 오늘날 일떠세운 건설물들에서 우리 시대의 일본새와 량심을 보게 될거네.》

아바이의 말에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백년, 이백년후면 아바이는 후대들의 평가는 직접 듣지는 못할것이다. 하지만 후손만대에 넘겨줄 이 귀중한 창조물을 바로 우리가 20세기 80년대에 산 인간들이 건설했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도록 아바이는 지금 백년, 이백년이 지난 먼 후날에 살고있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아닐가?...

우리는 기뻐다. 들끓는 건설장에서 떨어진 이 뿔프장, 남의 눈에 안띄우는 이 외진 구석에서 만년대제로 빛내일 거창한 시대의 기념비를 자기의 깨끗한 량심으로 떠받들고있는 주인공을 찾은 것이다. 모름지기 한생을 묵묵히 살아온 저 아바이에게는 가슴속에 묻어둔 사연도, 아름다운 추억도 많으리라.

우리는 건설장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시대의 고결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의 방문은 아름다운 꿈과 량만, 깨끗한 량심으로 이루어진 고상한 정신세계에로의 방문이라고 할가.

우리는 이런 훌륭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이 건설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리라는것을 그리고 미구에 이곳에서 마그네샤크링카의 폭포가 광광 쏟아져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에 크나큰 기쁨을 드리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으며 이곳을 떠났다.

신천

리준

여기서 그 대답을 찾을수 있다. 총잡은 전우들이여!

어찌하여 빗맞은 하나의 총탄자국을 두고
그처럼 엄격히 자기 생활을 총화해야 되는지

여기서 뜨겁게 깨우쳐준다

어찌하여 땀흘리며 훈련장을 달리고

지휘관의 반복구령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찌하여 군화끈을 한시도 늦출수 없고

무거운 배낭을 벗지 말아야 하는가를

오오, 조선의 분노가

서슬푸른 총창으로 솟구쳐오르는곳이여!

살아있다면... 아, 살아있다면

쇠물을 뽑으며, 비단을 짜며, 오곡을 가꾸며

행복의 웃음꽃 피워갈 그들

나의 정다운 어머니며 아버지

그대의 미더운 형이며 사랑스러운 누이인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세울수는 없는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총잡은 청춘들 나의 전우들아

증오와 분노의 정점-신천땅에

언제나 마음을 얹어두고 살라

그대 지금

산악에 있건, 파도를 헤치건, 하늘을 날건

신천의 원한 안고 무자비하게 보복하라

여기 쓰러진 사람들이

마지막 눈동자에 담았던 그 분노를 다 모아담

으라

총창에!

주먹에!

심장에!

인삼

-인삼공물이 너무 많으므로 이 시를 짓는다-

안축

신농씨 지은 책에
풀이름도 많아
그중에서 인삼이
가장 좋은 약초라네

귀한 물건은
흔하지 않은 법
막꿀처럼 여기저기
자라지 않는다네

하늘땅이 만물낼 때
약성분을 별려준
중생을 구원함이
본뜻이라 하련만

한뿌리에 세가닥
이파리는 다섯잎
신기한 그 약효
이루다 못 꼽으리

인삼캐는 백성들
산과 골짜기를 훑으며
천번 만번 뒤져서야
한뿌리 얻어내니

도리어 백성의 병
약초에서 생겨나니
이 병을 고칠 약은
그 누가 지어주랴

해마다 남의 나라에
공물로 바치니
약국의 늙은 의원
한탄하며 놀라네

무슨 수로 기한전에
저울눈을 다 채우랴
옷은 헤어지고
살은 가시에 찢겼구나

어찌하면 먼곳에다
삼뿌리 옮겨심어
종자마저 말리우는
이런 다름 없앨가

약삭빠른 장사꾼들
다투어 사들여서
먼곳에 옮겨다 파니
그 값이 약차해라

때는 가을이라
비바람에 벼이삭 누웠어도
두려워라 공납 독촉
집일은 전폐로세

우리네 백성들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장사치들보다야
몇 곱절 총명하리

관가는 여기 붙어
리득을 얻어내려
해마다 기한 정해
거두어들여누나

돌아와서 안해와 마주앉아
슬픈 눈물 흘리더니
살던고장 버리고
류랑의 길 떠나네

(지정엽 역)